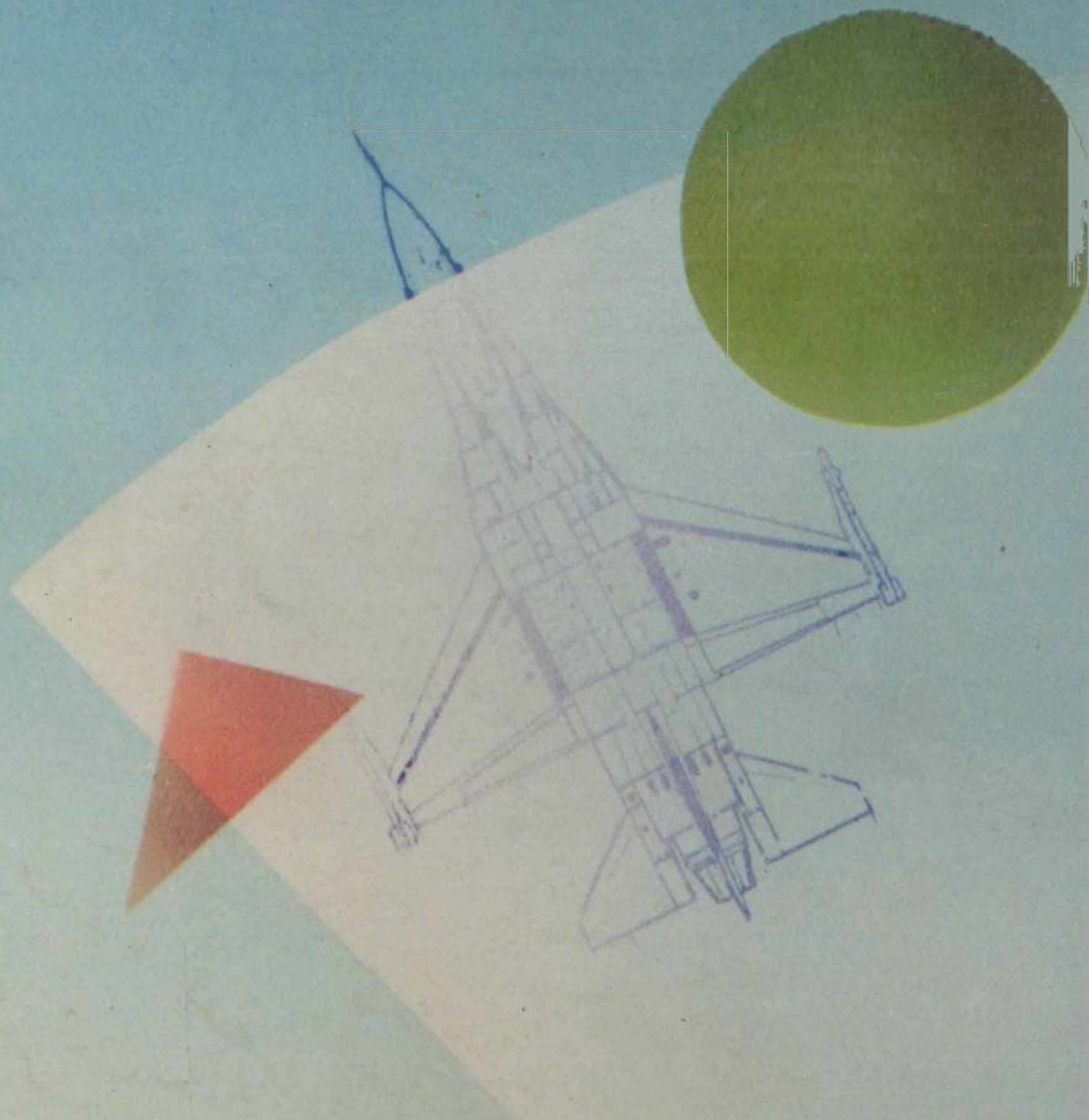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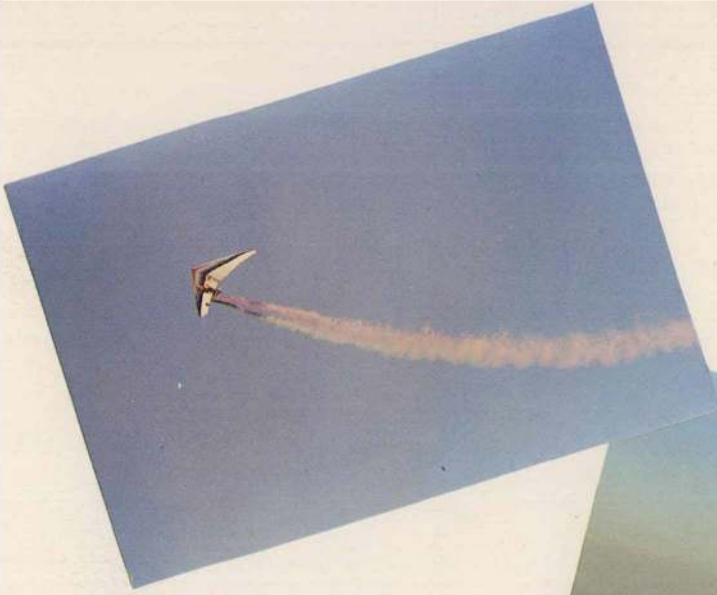


에어

AIR FORCE QUARTERLY
1988년 제 3 호 (통권 제207 호)



공군본부



'88 공군참모총장배
행글라이딩대회
'88. 10. 31.
- 단양 소백산에서 -



■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Anthony K. S. Yeo Ambassador Embassy of Malaysia)와 환담을 나누는 서동열 참모총장



■ 신임 미7공군사령관을 접견하는 서동열 참모총장



■ 신임 미7공군사령관(Lieutenant General Thomas A. Baker Commander Seventh Air Force)이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의장행사를 가졌다.

권 두 언 / 정훈감 (2)

연속 기획 / 공군의 얼굴들

우리의 조종사들 어떻게 날아왔나 / 편집실 (7)

■ 조종사 수기

조종사임이 자랑스러운 또 다른 이유 / 남용우 (11)

그 때, 눈 내리던 하늘의 작은 날개 / 조성환 (13)

책임지는 교관이 된다는 것 / 정윤석 (18)

■ 지휘성공 사례

더 강한 독수리의 요람을 만든다 / 차종권 (22)

■ TOPGUN의 편지

성실로 떠를 삼으라 / 강을배 (30)

■ 타 특기가 보는 눈

■ 정비

활주로 위의 그들 / 박준기 (33)

■ 관제

하늘의 신사여, 잠깐만! / 윤홍철 (35)

■ 사관생도

메추리의 꿈 / 김현수 (38)

탐방취재

슈바이처의 숨결을 / 편집실 (184)



1990년대의 전장(군사지식)

군사지식

6·25당시 전술공수항공기의 역할 / 이광희 (40)

소련 최신예전투기의 능력과

운용개념 분석 / 조건현 (64)

공군과 육군 그리고 1990년대의 전장 / 금기연 (83)

이란·이라크전 그 내막은 무엇인가 / 이태영 (94)

제 언

내가 느끼는 한국 / 福山一行 (107)

중화민국의 통일관 / 吳英樟 (112)

교 양

문 학

괴테의 파우스트 / 신평근 (153)

과 학

미래의 컴퓨터 / 정찬기 (161)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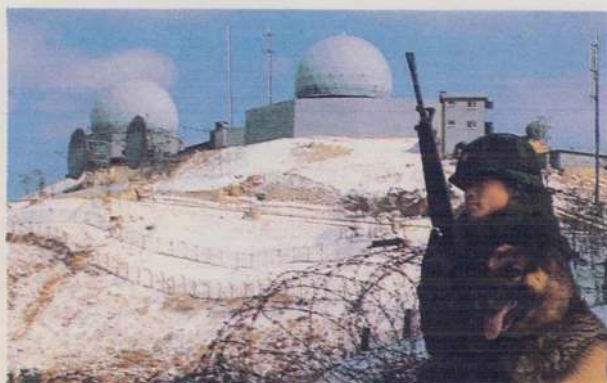
물인정+고지식함=법조인(?) / 정진영 (171)

체 육

체조를 아십니까? / 강경여 (174)

의 학

가정의학과 현대인의 건강관리 / 이태준 (180)



Site지역의 정신전력(논단)

논 단

원고시대와 한국경제 / 박창일 (120)

어떻게 소련에 다가서야할 것인가 / 이상선 (134)

Site지역에서의 정신전력과

종교와의 관계 / 강선정 (145)

PHOTO ESSAY

人生 / 편집실

문 예

수 필

철조망 앞에서 / 김현수 (188)

인생은 추월할 일이 아니다 / 표문재 (191)

시

할아버지의 유산 / 김해룡 (193)

소 설

하촌일기 / 조미경 (197)



전술 공수의 역할(군사지식)

표 지 화



표 지 화 : 김태성(삼희 기획
Designer)

표지설명 : 공군의 방공관제와
비행을 도안화시킨
일러스트



조종사 생활수기(공군의 얼굴들)

부대 동정



■ 건군4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투력 증강 및 자주국방태세 확립에 헌신한 장병 및 군무원들의 '88 정기포상식이 공군본부에서 있었다.



■ 공군사관학교에서는 5만시간 무사고 비행 및 200만km 무사고 차량 운행 안전 시상식이 있었다.



■ 공군본부에서는 한국정사학회 임승국 회장을 모시고 '한국역사의 승리사관'에 대한 외래강사 초빙 강연회를 가졌다.



■ 개막 테이프를 절단하는 서동열 참모총장, 운보김기창, 옥산김옥진, 미술협회 하종현회장

병영생활의 명랑화와 장병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정서함양과 취미활동을 통한 여가선용으로 진중문화 창달을 위한 제3회 진중창작미술전이 인사동 백상기념관에서 열렸다.

출품작품 총 108점을 사계전문가들이 심사하여 65점(서예 23, 한국화 17점 서양화 25점)의 입상작을 선별하였다.

심사에는 여원구(서예) 김옥진(한국화) 김태호(서양화)씨가 하였다.



한국화부문 우수상 유병호상사의 석양에 대한 작품설명

공군진중 미술전 수상작

심사를 마치고 : 우리는 언제부터가 그들의 존재만
 을 어렵듯이 인식할 뿐, 그들이 우
 리를 위해 견뎌왔던 수고와 땀을 잊고 있었고, 또한 강
 인하게 다문 그 입술 뒤의 따사로운 정서를 간과해버
 린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었
 으랴,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느끼지 못하더
 라도 우리의 장병들은 우직하게도 책임과 임무라는 것
 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왔으며, 더우기 그 차갑고
 각박한 생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거듭나기를 멈추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면에서 그들의 작품은 강단에서의 미학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젊음을 태우며 진하게 우
 러낸 하나 하나의 강한 터치에서 그 의미를 읽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수상한 한국화, 서양화, 서예
 부문의 개성있는 작품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줄 아는 모든 출품자의 작품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이제 세번째 열리는 공군 진중 창작 미술전을 심사
 하며 느낀 그들의 창조적 잠재력은 우리 심사위원들에
 겐 신선한 충격이었고, 해가 갈수록 향상되어 가는 작
 품수준도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



석양 상사 유병호 (3252부대)



풍경 병장 이각현 (공군사관학교)



필승의 신념 중사 김승환 (2762부대)

밝아오는 옥빛과 양알에 서서 벽이 슬슬은 조용히 극도로
 지치지 않는 마음과 보나 명공한 이슬방울은 우리의 마음
 을 흐린 듯이 아득하게 생각하게 하니 사색하는 자의 마음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먼 우리에 사는 찬나운 일말의 기쁨에
 읊나 무리는 행동할 때 마다 사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으니 자오천궁의 기쁨을 나누어 주리라 하리라
 야하며 백성을 호호히 기쁘게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민족과 백성을 위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서우리는 알고 있었으나 나의 인연과 미의 보람을 위해
 이극도로 애고 있었으나 나의 인연과 미의 보람을 위해
 벽이 슬슬이 가라앉아 평온한 지킴이 평온한 지킴이
 되어야 하니 가라앉아 평온한 지킴이 평온한 지킴이

새벽이슬에 내충성을
 일병 유영재 (공군사관학교)

唐天水左街張鍾祥母趙氏夫人初
 夢如來謂曰夫人當生貴子即出囊
 如僧誕引大奇之故奉法人所為大
 長耳目玄靈談論教之將生僧白晝

戊辰仲夏 碧岩孫仁愛

유공권해서
 중사 손인섭 (6751부대)



정물 중사 박해석 (3252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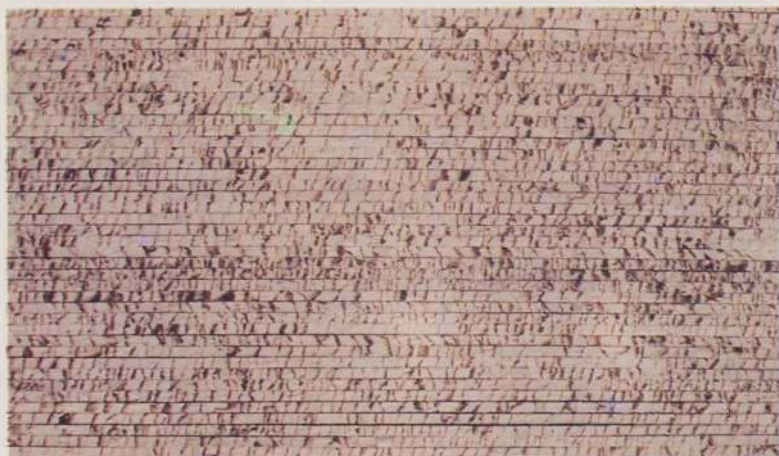
가을 계곡 중사 신기상 (3252부대)



정물 중사 정광기 (3252부대)



여름 이병 박상현 (3659부대)



호름
대위 장영익
(3579부대)

3 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생도들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데 목적을 둔 제35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공군사관학교는 2년 만에 다시 종합 패권을 탈환하였다.



영견

AIR FORCE QUARTERLY

1988년 제3호(통권 제207호)



參謀總長統率方針
必勝의精兵強軍되자
最上의 即応態勢 確立
科學的 指揮管理 提高
巨視的 空軍文化 暢達

공군본부

不惑의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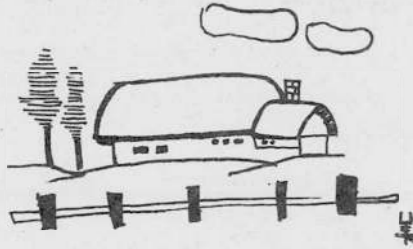
정훈감 대령 강 국 희

40이라는 숫자는 많은 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旧約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불모의 땅을 헤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땅을 얻었고 예수도 광야에서 40일간의 고통스런 기도의 시간을 끝내고 구원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주었다. 40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 속에는 이러한 상징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도 人生旅程을 分類함에 있어 40세를 不惑의 나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人間도 40년의 年輪이면 많은 誘惑에 의연할 수 있는 完成의 境地를 이룰 수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내년은 우리 공군이 창군된지 만 40周年을 맞는다. 우리는 초창기 L-4 10대를 美國으로부터 引受받아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6·25라는 참혹스런 民族分斷의 전쟁을 치르어야만 했고 가냘픈 날개로 몸부림치듯 共産 적과 싸웠었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을 격한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의 科学器材로 武装한 航空機와 고도의 기술을 蓄積한 成員들로 조직된 名實相符한 정병강군의 모습을 갖추었다. 오늘날 우리가 無敵空軍의 기틀을 다지게 된데는 忠勇無雙한 先輩戰友들의 피땀 어린 努力과 언제나 空軍을 믿고 성원해 준 국민들의 기대와 지원이 뒷따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밑거름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족의 自尊心을 지키는 국민의 軍隊임을 자랑스레 생각할 수 있었고 名譽롭게 맡겨진 任務에 충실히 열과 성을 다 해왔다. 견고한 성을 쌓듯 쌓아 온 40개 성상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느덧 古木의 姿態를 갖춘 스스로의 모습에 感歎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88년은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轉換點을 만들어 준 한해였다. 憲政史上 처음으로 平和적인 政府移讓이 이루어졌고 그 基盤 위에 世界人의 대축제인 서울 올림픽이 成功的인 大会進行과 韓国の 健康한 아들 딸들의 눈부신 善戰으로 세계 4위라는 感激的인 結



果를 만들어냈다. 이는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底力을 과시하고 政治색에 물들어 반목으로 일관되었던 東西陣營에 化合의 한마당을 선사한 歷史의 중재자 役割을 훌륭히 해낸 것이다. 지난 7년간 우리는 勞心焦思 올림픽을 準備해 왔다. 政治的 葛藤상황으로 世界의 輿論이 부정적인 方向으로 치우쳐 갈 때도 있었지만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經濟富國을 이룩하고 많은 危機狀況 속에서도 団合된 모습으로 肯定的인 解決의 길을 모색했던 歷史意識을 가진 國民답게 모든 難關을 克服하고 民族의 大事를 치르어 낸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얻게 된 自信心과 하나의 目標로 集約해가는 國民性의 發見은 永遠히 우리 가슴 속에 寶石처럼 빛나는 재산이 되리라 確信한다.

이제 우리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떠오를 未來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허위와 불신으로 멎든 시간들을 접고 眞實과 믿음으로 역어나가게 될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 물론 이러한 희망찬 기약은 탄탄한 國防力의 뒷받침이 要求된다. 이제 우리는 成熟한 國民性으로 이룩한 政治發展의 도상에서 더욱 安定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 근본이 되는 국방의 任務를 맡은 선택된 자들로서 항시 主人意識을 가지고 生活해야 하겠다.

解放 전 남의 나라 軍隊에서 太極마크를 아로새긴 우리의 飛行機로 조국하늘을 飛行할 瞬間을 몽매간에 그리던 先輩들과 국민들에게 不惑의 나이로 成長한 우리는 F-16의 우렁찬 폭음과 一技當千의 士氣를 알려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長年の 年輪에 걸맞는 氣品있는 姿勢와 곧이어 펼쳐질 航空宇宙時代의 主役으로서 任務의 重要性을 새삼 깨달아야 하겠다.

1988. 12.(歲 暮)

空軍本部 政訓監

공군 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

“공군의 얼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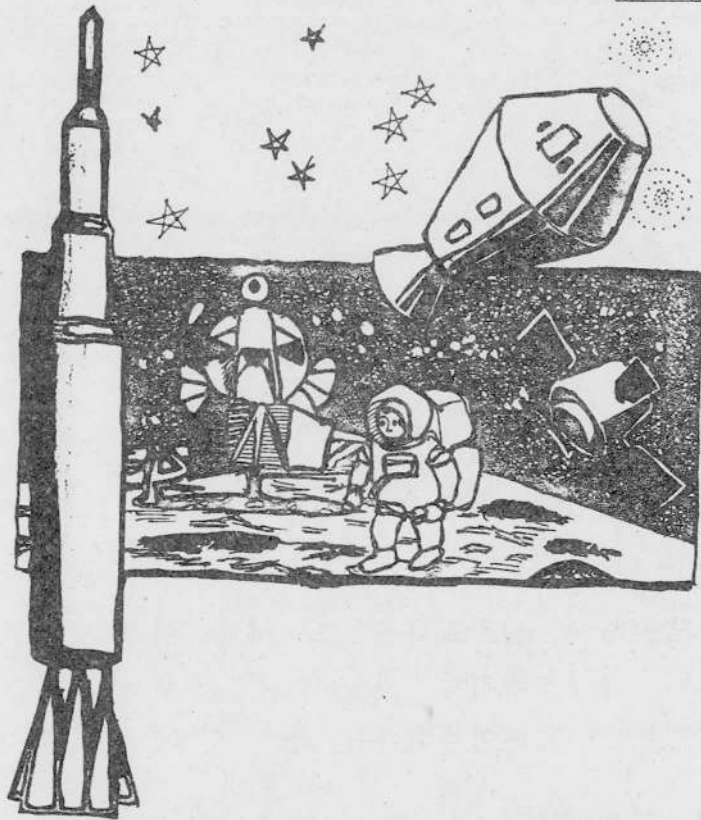
조 종 사



('88. 진중창작 미전 수상작)

메지어 오늘 흐르고
내일도 흐를
저하늘의 정열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뜨거웁다.

- 조지훈작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 -



편집자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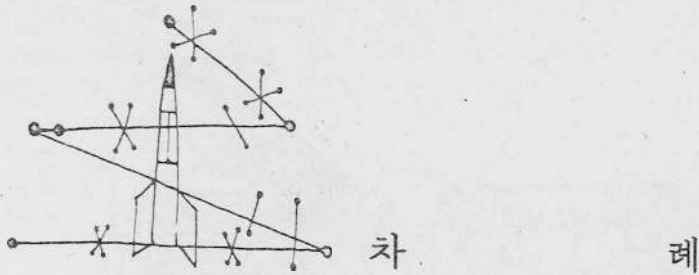
이번호부터 공군 창군 40주년을 맞아 각 특기 분야에서 영공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애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수기, 경험담, 타특기의 견해등의 원고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특집은 이어서 관제, 정비,무장, 통신, 수송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공군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

공군의 얼굴들



- 서 언

- 우리조종사들 어떻게 날아왔나?

- 조종사 수기

- 조종사임이 자랑스러운 또 다른 이유들
- 그때, 그 눈내리던 하늘의 작은 날개
- 책임지는 교관이 된다는 것

- 소령 남응우
- 소령 조성환
- 대위 정윤식

- 지휘 성공사례

- 더 강한 독수리들의 요람을 만든다.

- 중령 차종권

- TOP GUN의 편지

- 성실로 떠를 삼으라

- 소령 강을배

- 타륙기가 보는 눈

- Runway 위의 그들
- 하늘의 신사여, 잠깐만,

- 중위 박준기
- 중위 윤홍철

- 사관생도가 본다

- 메추리의 꿈

- 생도 김현수

우리 조종사들 어떻게 날아왔나?



- 편집자 주 -

이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한 이후 하늘은 꿈과 동경을 상징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인간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습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공간과 인간을 자유로이 연계시켜 무엇을 구상하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이 투자되었다. 땅위에 서서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그 사실을 자연의 섭리라고 체념스레 받아들이기엔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력이 너무 풍부하였다.

인간이 하늘을 동경한 이래 난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인간의 어깨에 날개를 그린 것을 시발로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수십초간의 체공시간을 갖게 될 때까지 비행이라는 것은 단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매력 그 자체이고 그 이

상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광대무변한 우주에서도 자의적인 움직임으로 비행을 주도할 만큼 항공공학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에 우리나라 항공사의 주축이 되어온 공군 조종특기 분야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전망을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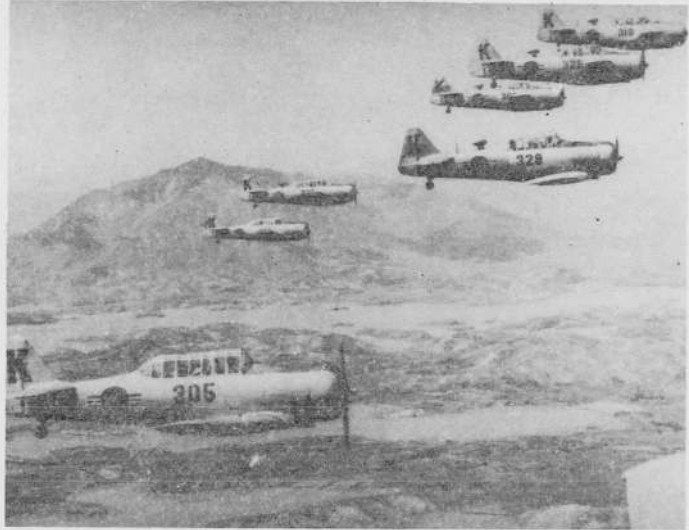
태동기의 조종사들

우리나라 최초의 조종사는 1919년 중국에서 활약한 서일보라는 인물이다.

라이트형제의 비행성공이 1903년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비교적 빨리 첨단기술을 접한 인물이나 그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리고 본격적인 항공분야의 전개는 해방 이후 일본과 중국의 항공계에서 종사하고 있던 항공인들이 귀국하여 음에 따라 그 기틀이 다져지게 되었다.

공군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 공군의 얼굴들



공군초창기의 T-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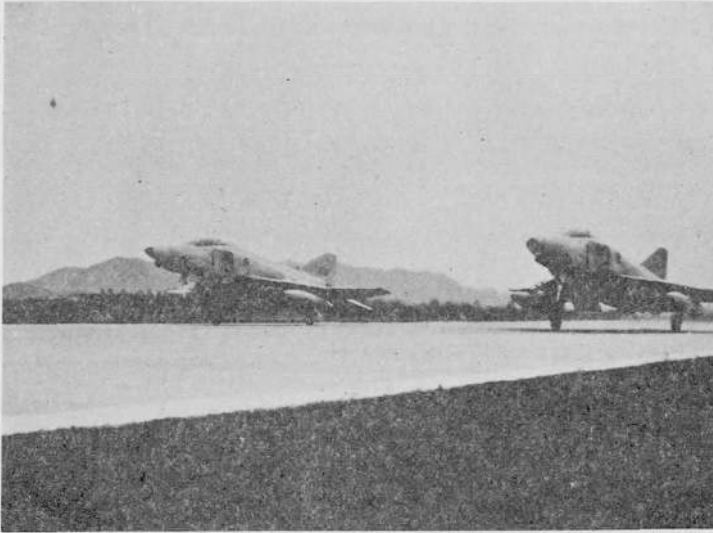
그들이, 창설한 공군의 전신인 육군 항공대는 '48년 9월과 10월에 L-4 및 L-5 연락기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았으며, 한국 조종사들의 기본기량을 인정하여 김정열대위에게 비행훈련교육을 일임하였다. 이어 9월 15일 10대의 L-4 연락기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서울상공 전시비행을 실시했다. 당시 공군을 창군한 멤버들이 모두 일찌기 남의 나라 군대에서 조국독립을 꿈꾸며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태극마크가 선명한 비행기로 서울상공을 비행하는 순간은 실로 감격적이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초년기의 조종사들은 비록 연락기를 조종하고 있었고 장비와 기술면에서 크게 낙후된 상황하에 있었지만 해방후 첫 조종사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관된 자세를 견지했다. 특히 이어 발발한 6.25전쟁때에는 F-51 무스탕기를 직접 일본으로부터 공수하여 부족한 훈련시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조종능력을 과시했다.

조종분야의 발달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프로펠러에서 제트엔진으로의 변환을

조	종	사
---	---	---



공군발전사의 기념비적 존재인
F-4D의 위용

시도하게 되었다. 1954년 제1차 조종사 도미교육훈련을 필두로 1957년까지 97명의 제트기 조종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기종은 F-86이었고 자체 정비능력을 구비한 제 10 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첫 Z엔진 조종사로 활약하였다.

이어 1965년 4월 30일 F-5 전투기를 인수하였고, 1968년 8월 29일 팬텀기가 인수되어 한국공군은 명실공히 최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는 정예 조종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86년 6월 27일 F-16기가 정식으로 우리에게 인도되어 우리 조종사들에 의해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를 더듬어 보건대 6.25 당시 물러오는 적탱크를 향해 가냘픈 연락기에 몸을 싣고 수류탄 몇발 떨어뜨리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조종사들은 이제 엄청난 위력을 과시하는 F-16을 주력기로 눈부신 변모를 거듭해 왔다.

그간의 많은 과학기재와 장비를 이용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과정도 정예화되고 각종 지원분야도 현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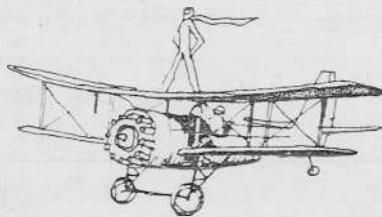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조국영공을 비행하는 조종사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군인정신은 계속 전수되고 있다.

미래의 조종사

항공분야의 세계적 추세가 우주로 활동영역으로 확대한 요즈음엔 기술집약적이고 산업파급효과가 지대한 항공산업의 발달 여부는 그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그 선두에서 활동하게 될 조종사들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가가린이 대기권 밖으로 처음 벗어난 우주비행사가 된 후 미·소를 위시한 강대국들의 우주를 무대로 한 과학기술 경쟁은 그 발달속도를 배가시켰으며, 인간의 활동영역을 다른 혹성으로 까지 확대시킬 전망이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공학분야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항공공학에 대한 학문적 도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분야의 성숙은 곧 이루어질 전망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산업투자가 전개될 때 우리공군의 각 분야별 요원들의 사업참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며, 특히 조종분야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조종사 배출기관이 다원화되지 못한 상태여서 조종사의 주축을 이루는 공군조종사들의 역할은 안보적 측면에서나 항공산업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로의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 제한된 지면을 통하여 대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12대대는 창대 30년(1958.8.1)의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대대로써 F-51, F-86에 이어서 '86년 8월에 F-5E/F로 기종전환하여 '87년 4월에 ○○○비행단으로 배치된 대대이다.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전통과 뿌리깊은 대대에 부임하면서 책임의 중차대함과 동시에 선배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강인하고, 패기에 찬 필승의 전투대대를 만들거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벽한 전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대원의 능력과 근무자세, 그리고 근무환경을 하나씩 관찰 평가하여 대대 조직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임 대대장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많은 업적을 이룩해 놓은데 대해 감사히 생각하면서 한편, 기종전환, 기지이동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보완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였다.

따라서 공군에서 가장 우수한 비행대대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그러나

단계적으로 대대의 제반 사항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은 동북부의 최전방 기지에 위치하여 막중한 방공임무를 맡고 있는 비행대대를 가장 우수하고 정예화된 대대로 발전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참모총장님의 지휘방침인 최상의 즉응태세 확립, 과학적 지휘관리 제고, 거시적 공군문화 창달을 받들어 전투비행대대 환경에 맞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대대를 만들기 위한 운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완벽한 전투태세 확립

둘째, 전투요원의 정예화

셋째, 전력의 무위손실 방지

넷째, 정신전력의 극대화

다섯째, 인화단결 및 근무환경 개선을 구체화하여 지휘관리 방침으로 수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서언에서 언급한 대대 운영 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2. 본 론

가. 완벽한 전투태세 확립

군의 조직은 무엇보다도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공군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

공군의 얼굴들



완벽한 임무수행은 부단한 연구와 예리한 비행분석에서 비롯된다.

복잡다양한 무기체계, 작전환경 등 어떠한 악조건하에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적, 물적, 정신적 요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하나의 힘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전투태세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 비상대기 전력의 즉각 출

동태세 유지

유사시 적기와 최초로 교전하게 되는 것은 공군이며 가능한 한 원거리에서 적기를 격퇴시켜야 한다. 이러한 초전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과 군의 사기 뿐 아니라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비상대기전력은 평상시에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며

철저한 근무가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이 비상대기 지침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언제 교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개인의 기량을 고려한 편조계획

- 비상대기 임무에 대한 각 상황별 대응절차의 브리핑 가이드 작성

- 비상대기근무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 등이다.

(2) 각종 상황별 대처 능력 향상

전투대세에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오직 조종사 혼자서 판단에 의하여 계속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전명령에 지시된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평시 임무 중 적과 조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예상 상황에 대한 대응전술과

- 유사시 무기체계가 우수한 적기와 교전시에 적용해야 할 전술 및

- 항시 전장개념에서 언제, 어느 곳 어느 기종의 적기와 교전시에

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대응전술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의하도록 하여 각종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 전투요원의 정예화

운동시합에 출전하는 운동 선수는 부단한 강훈련을 통하여 기량을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투대대도 역시 유사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대원을 정예화시켜 기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강도높은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1) 합리적 자원 운영으로 조 기 정예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대대원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능력 및 자격을 고려한 과학적인 자원배분이 요구된다.

대대원의 정예화는 일부 조종사에 대한 정예화 혹은 기량의 평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사시 전 대대원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경력 및 자격을 고려하여 반기, 분기, 월간, 주간 단위로 자원을 배분하고, 주간 및 월간단위로 분석한

공군의 얼굴들

결과를 차주 및 월계획에 반영하여 개인별 기량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저등급 조종사에 대한 관리는 월별로 공대지 및 공대공 정예훈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관을 임명하는 동일과목을 집중훈련함으로써 저등급 조종사의 기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2) 실전적 기술훈련으로 최상의 전투기량 유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전투기량 습득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전투기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 기본 기량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훈련과

- 복잡다양한 실전상황에서 즉각적이며 적절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훈련이란 그 자체가 아닌 제한성때문에 형식적이며 타성적으로 수행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훈련을 훈련의 벽을 넘어 실전으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전투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전력의 무위손실 방지

기계문명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서는 항상 사고라는 위험요소가 도

사리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탈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고 뒤에는 아직도 사전 안전관리가 크게 대두되곤 한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과 세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항공전력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사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 수립에 전전긍긍한다면 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최대훈련과 최대안전이라는 상호 대립되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의 무위손실 방지가 요구된다.

(1) 대대원의 철저한 신상파악
대대원 개개인의 철저하고 정확한 신상파악이란 사실상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과거 20년간 비행사고 중 조종사 요소에 의한 인적과실 사고율이 63%나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대대원에 대한 다각적인 철저한 신상파악 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면담시간을 만들어 개개인을 불러 신상에 대해 일일이 묻기보다는 대대생활 자체를 자연스럽게, 부담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대대원의 성격, 자질, 감정, 사상 및 심리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대

대원 자신도 소속감과 자신감이 생기며, 불필요한 Stress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일 건강기록에 대한 군의관의 강평 결과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Bio-Rhythm을 고려한 대대원의 신상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비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2) 강인한 훈련으로 안전저해요인 극복

비행훈련은 기상 제한치와 개인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제한요인은 지휘관의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서 훈련 여부와 대대원의 심적 자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고도에 구름과 비가 내리는 경우 출근하는 대대원들의 마음자세는 이미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상이 훈련 제한치보다 좋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임무수행 후 모기지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타기지로 귀환하는 등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기상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비행을 한다는 마음자세와 여러 가지 비정상 상황에서라도 항상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능력과 기상제한치의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높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노력과 철저한 정신자세로써 안전저해요인을 극복하여 최대훈련이 최대의 비행안전을 끌어올 수 있음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3) 치밀한 관리로 정비 질 향상

불과 2년 전에 기종을 전환시킨 대대로써 각 항공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서 정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바다의 습기와 비행장 고유의 특성에 의한 항공기의 여러 가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종사와 정비사가 합심하여 조그만 결함에 대해서도 비행 후 기장과 상세한 토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결함내용은 본인이 끝까지 추적, 원인과 수정내용을 전과 교육토록 함은 물론 1주일에 1회씩 각 항공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항공기에 대한 애착심과 정비지식 습득, 기장과 유대강화 등 정비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정비사의 예방 점검을 통한 정비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절과 날씨에 따른 예방점검과 정비사의 특기교육을 강화시킨 결과 항공기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결함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공군창군 40주년기념 연속기획 I 공군의 얼굴들

라. 정신전력 강화

군이 전쟁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우수한 장비와 이에 따른 전략·전술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장비와 전략전술이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인 사람들의 정신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주입식 교육이나 권위에 찬 설교보다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당위성과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양한 무기체제와 장비를 운영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길은 앞서 언급한 실전적 기술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최상의 전투기량을 바탕으로 임무달성을 위한 투철한 정신전력을 전투원 스스로가 가질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

마. 인화단결 및 근무환경 개선

대대 구성원의 성장과정과 환경이 서로 다르며, 대부분 경험이 적고 젊은 연령층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다혈질이고 군중심리가 발동되기 쉬운

집단이다.

이러한 부대의 사기는 곧 인화단결이 바탕이며, 보다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보장한다면 부대 사기는 향상될 것이다.

(1) 인화 단결

소단위 부대별로 뭉쳐진 힘이 전체적으로 뭉칠 때 그 집단의 인화단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비행대대의 소단위 부대라 할 수 있는 각 편대의 편대장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중요시하였다. 출근 후 편대별로 편대 Briefing을 실시하도록 하여 편대원의 일일업무 배당 및 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편대단위의 업무능률 향상 및 편대의식 고취를 꾀하였다.

이러한 편대 단위의 단결은 대대장을 중심으로 모여져 모든 업무가 실시되고 또한 단체운동을 통하여 대대원이라는 의식을 고취시켜 대대원의 단결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2) 환경 개선

검은색은 위압감과 공포심, 그리고 폐쇄적이며 우울한 심정을 불러 일으켜 반항의식을 낳게 한다.

대대 건물은 증축한 지 오래된 것으로서 내부는 낡고 산만했으며, 외부는 대대 이전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대로 정리가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 환경이 구성원의 정서 및 대대를 사랑하는 소속감 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비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임 3개월 후부터 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건물 외부는 대대원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징적 구호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를 부착하고 야외 휴게실 및 각종 수목을 정리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조조 및 심초비행 등으로 피곤한 일과 속에서도 대대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순화된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 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참모총장의 지휘방침인 “필승의 정병강군”을 비행대대 차원에서 적용하여 대대 지휘방침을

- 완벽한 전투태세 확립

- 정예 전투요원의 양성
- 전력의 무위손실 방지
- 정신전력 강화
- 인화단결 및 환경개선 -으로 설정하여, 대대장이 대대란 조직체 대열에 한 발 앞에서 혼신의 정력을 기울여 창의적 자세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예화된 전투비행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불과 2년 전에 기종 전환 및 여러 대대에서 차출된 조종사로 구성된 창설대대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비상대기 출동태세와 각종 상황별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완벽한 전투태세 확립, 합리적인 자원 운영과 실전적 전술훈련으로 정예 전투요원 양성 대대원의 철저한 신상파악과 강한 훈련으로 안전저해요인 극복, 최상의 전투기량 습득으로 정신전력 강화,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화단결 및 환경개선), 이제는 어느 기존 전투대대에 못지 않은 비행대대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더 정진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비행대대의 표본으로써 공군전력의 내실적 증강에 이바지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공군의 얼굴들”

Top Gun 의 편지

“성실로 떠를 삼으라”



뜻하지 않았던 수상소식을 듣고 무척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양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비행생활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또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신 선후배 조종사 여러분과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양과 음으로 도와주신 주위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조종사들이 뜨거운 조국애와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조종사 중의 한 사람일 뿐 우수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소령 강을 배
(제 3758 부대)

조간 25기로 임관하여 전투비행단 교관을 거쳐 편대장을 역임했으며 '85년 '86년 웰튼상을 수상했다. '88. 1. 30 최우수조종사로 선발됐다.

단지 조국영공의 파수꾼으로서 미력하나마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해 주어진 직분만을 수행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은 이제까지의 결과에 대한 칭찬이기 보다는 장래의 모든 생활에 대한 격려의 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종 사

지난 비행생활을 돌이켜 볼 때 항상 긴장의 연속과 위기의식, 반복되는 생활속에서 때로는 탈피해 보고도 싶었고 적당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실로 떠를 삼으라”라는 성경말씀을 묵상하곤 하면서 위로를 받았읍니다.

이 작은 희생으로써 조국과 이웃이 밝아지고 소속해 있는 비행단, 대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읍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과 조국, 이웃과 가족에 대한 성실을 몸소 실행하면서 “삶”의 참 의미를 맛보고 싶읍니다.

어느 조직, 어느 위치, 어느 기종에

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얼마나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생활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창공에서 꿈을 펼치며 인생의 참의미를 음미하는 조종사들에게 당부의 소견을 덧붙여 봅니다.

「비행은 나 자신과의 투쟁의 표출」이라는 일념을 바탕으로 비행생활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카이 사브로는 에이스가 되기 위한 자기와와의 투쟁에서 시력향상을 위한 물리적인 훈련, 공중상황



참모총장으로부터
최우수 조종사
표창을 수여받는
강을배 소령

“공군의 얼굴들”

판단력 향상 훈련, 불굴의 투지근성 향상 훈련으로 공기가 맑은 청명한 주간에 별을 찾아내어 주변에 존재해 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발견했다는 사실과

최근 창공의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예거」의 조종사로서의 천직의식 -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과 국가를 초월하는 범세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류평화를 위해 경주할 때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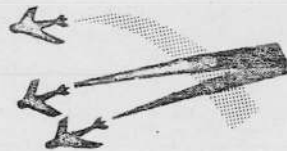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는 조국과 민족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의 영광을 수호하는데만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류평화를 위한 파수꾼으로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하리

라 봅니다. 따라서 철두철미한 소명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 가일층 노력하는 인류의 창공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종사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남편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 애쓰면서 늘 기도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아내와 그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조종사들의 아내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땀과 노력으로 정열을 불사르며 자기완성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타특기가 보는 눈

-정비사-

RUN WAY 위의 그들

푸르른 창공을 바라보고 있노
라면 손톱보다도 작은

물체가 지나가면서 내는 시원스러운 소리는 우리조국 영공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리가 있는 후에 Run Way에 날렵한 모습을 들어내는 웅장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단지 평범하면서도 능률한 기체가 들어올 때면 항공기기장 기부를 비롯한 정비사들은 귀가하는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항공기를 유도할 준비를 한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내려올 때 조종사의 앞머리가 땀으로 젖어있는 것을 보면 “수고했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가 절로 나올 정도로 조종사의 고생을 느낄 수 있다.

낙하산을 등에 메고 밝은 얼굴로 걸어가는 조종사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육군과 해군과는 다른 공군만이 느낄 수 있는 임무완수의 순간을 느낄 수 있다.



중위 박준기

(제3526부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항공공학을 전공했으며 공사 35기로 임관하여 정비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조종사들이 밝은 미소로 정비사들을 대하는 것은 자신의 항공기를 마치 자식처럼 돌보는 기장에게는 큰 힘이 되고 모든 정비팀이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조종사들의 하루일과는 비행전 숙지 사항과 아침조회를 겸하는 전체 브리핑으로 시작된다. 이 시간에는 나도 정비현황을 조종사들에게 보고하기 때

“공군의 얼굴들”

문에 자리를 함께 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진지하며 능동적이라고 느껴진다.

그 이유는 자신의 임무수행의 실수가 자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국가에 손익을 주고, 나아가서 국가 영공방위에 지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엄숙하며 진지하다고 느껴진다. 조종사들의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로운 대한의 푸른창공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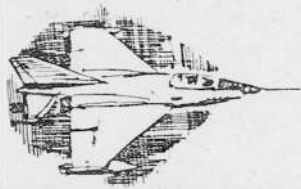
푸른창공에 떠있는 우리의 전투기를 보며 나는 전투기가 이륙하기까지 조종사들의 준비는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첫째이유로는 조종사인 동기생들과 회식을 하더라도 그들은 명일있을 비행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할 정도로 자신의 비행에 정신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로는 흥가분하면서 상쾌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려고 늘 신경을 쓰며, 셋째로는 휴식시간인 주말에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

비하기 위해서 부대내에서 주말을 보내는 동료들을 볼 때면 사생활도 제약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정신자세와 생활이 철통과도 같은 영공방위를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닐까.

같은 공군으로 조종사들과 시내에서 저녁식사라도 할 때면 나는 이런생각을 하곤 한다. 서로 바쁜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질 기회는 없지만 이런 시간은 오랜 훈련을 마치고 쉬는 잠시동안의 휴식에서 느낄 수 있는 짧은 성취감과 같은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그들은 쉽없는 긴장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애국심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군을 이끌어가는 우리들로서는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군 전투력 증강의 요체가 되며, 국민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타특기가 보는 눈

— 관제사 —

하늘의 신사여, 잠깐만

나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공군의 일원이 되어 관제사로 근무하는 지금까지도 조종사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소년시절부터 품고 있던 전투기 조종사의 심상이란 강건한 신체와 불굴의 투혼을 가졌으며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세심함과 재빠른 순발력으로 간발의 위험이 닥쳐올 지라도 결국은 악당들을 쳐부수는 자못 영웅과 같은 모습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는가?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덕목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깨달을 무렵이 되어서는 그들에게 한가지 찬사가 덧붙여지는 것을 알았다.

모든 공군 장교는 International Gentleman이며 공군장교의 대표격은 역시 조종사들임을(이런 표현이 불만스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며 사실은 신성한 것이

중위 윤홍철

(제 8386 부대)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논리철학을 전공했다.

사후 82기로 임관한 그는 방공무기통제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이러한 심상들은 랜서리 생겨난 것이 아니다. ‘빨간 머플러는 하늘의 사나이……’라는 소년시절의 우리들의 애창곡서부터 매력적인 Tom Cruise가 주연한 최근 영화 「Top Gun」, Richard Gear의 연기가 돋보였던 「사관과 신사」 또는 TV의 인기영화 「Air Wolf」와 같은 것들이 이 모든 상상들을 부추기면서 사실화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Fiction들이 생겨난 여러 토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로로 사실화된 경우들은 대체로

“공군의 얼굴들”

조그만한 허물이 한 가지라도 생기게 된다면 곧 사실이 아니게 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관제사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확신도 있지만 나의 경우로 한정하자면 훈련을 마치고 전투기 관제업무와 접촉하게 되자마자 당시까지 품어왔던 좋은 인상들의 고리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던 보라매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어느 맑은 날 밤 우리는 가상 적기를 요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기량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있는 선배 관제사가 관제를 맡았다(그는 중등비행까지 마친 조종사 출신이다).

가상적기 선포, Fighter Scramble, 긴장된 순간들이 흘러갔지만 결과는 Missed Interception, 어느모로 보나 조종사의 Skill 부족으로 인한 사태였다. Monitoring을 하고 있던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의 Skill 부족을 안타까와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느닷없이 욕지거리가 튀었다. 점잖은 말씨로 번역하자면 그때워 엉터리로 하는 관제를 하려거든 옷벗고 나가라. 너 때문에 Mission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인데 왜 그의 욕지거리가 이렇고 저런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건강부회인가를

시시콜콜히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요격 각도와 거리상으로 Missed Interception이 생길 확률은 거의 희박하며 그런 상황까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제사의 임무인 것이다. 물론 당시의 공중상황에 특별한 제한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Landing 후의 Debriefing에서 충분히 성실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관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잘못이 지적되고 서로에게 유익한 기량의 향상이 이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지통신의 저 멀리에 있던 그는 적어도 신사답지 못했다. 신사란 공정한 정신의 소유자이다. 모든 실수를 다짜고짜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신사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발전은 물론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일은 작은 비극이라고 부를 만한 경험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나는 「관제사」임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멋진 조종사들과 함께 공군이 존재하는 이유를 근거지우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같은 것이 바로

그 Partner 에 의해서 통째로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은 참으로 씁쓸하고 맥빠지는 것이었다.

한 그루 벌레먹은 나무를 보고 숲 전체를 쓸모 없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며 마치 어린아이들 편싸움처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너의나라 나쁜 나라 라는 식의 조작한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좋지 않은 감정을 부채질해서 Team Spirit 로 똥똥 뭉쳐 있어야 할 관제사와 조종사들의 사이가 너무나 기계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를 난 곰곰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뿌리는 조종사들에게 혹시나 그릇된 「타특기 경시 경향」이 만연돼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물론 그 힘든 훈련과정을 거치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조종사들이 개인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그 점을 흠잡아 그래선 안 된다느니 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흠될 것 없는 개인적 우월감이 타특기 경시라는 그릇된 형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며 공군 작전수행력을 약화시키는 차원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사기의 문제다.

그러나 나는 보다 많은 조종사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광대무변한 공간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묻는 그들의 힘찬 음성이 이어폰을 통해 울려올 때 나는 내가 공군의 일원임을 그리고 그들이 내존재를 가장 절실히 느껴주는 전우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가장 명확한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을 다짐한다.



“공군의 얼굴들”

사관생도가 본다



메추리의 꿈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위해 인간은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인간은 하늘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늘이란 공간을 뛰어넘어 먼 우주를 향해 그 발자취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지구라는 땅덩어리보단 저 푸른 창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나 또한 이 창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도 꿈만같이 여겨지던 파일럿. 창공을 누비는 그들의 모습은 내 가슴을 짜릿하게 감동시켜 주었다. 이런 이유에서 난 결국 이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렸을 적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런 나에게 지난 7월말 기지견학이라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항상 TV와 말로만 듣던 파일럿.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깊은 감동과 함께 환호성치고 있는 심장의 고동소리



생도 김현수
(공사 1년)

'69년 인천에서 출생했다. 인천선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사 40기로 입교했다. 뽕뽕쭉베리를 동경하는 문학청년이며 용감한 전투조종사를 지망하는 1학년 생도다.

를 느끼며 그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녹색의 비행복을 입고 계신 선배 조종사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늘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렸을적보다 더 마음속으로 와 닿으며 하늘을 누비고자 하는 나의 결의는 더욱 굳어져 갔다. 선배조종사와의 만남, 먼 발치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직접 보고 듣는 것은 너무도 달랐다. 걸

으로 드러나는 몇때문인지 상당히 쉽게 조종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였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나니 생각과는 다른 무척 힘들고 고된 길이었다. 사실 지금 사관학교에서의 교육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되고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저 하늘을 누비고 계시는 선배 조종사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내가 선배 조종사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도 많은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고 푸른 창공에서의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 그러나 나 또한 선배 조종사들에게 뒤질 수 없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생각하며 꼭 조종사로서 내 꿈을 펼쳐보고 싶다. 내 가슴에 조종 wings 달고서.



6.25 당시 戰術空輸 항공기의 역할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전술공수작전

- 제 1 절 초기 전술공수기의 활동
- 제 2 절 공중투하 / 공정작전
- 제 3 절 항공의무수송
- 제 4 절 조명탄작전
- 제 5 절 기타작전

제 3 장 기종별 활동현황

- 제 1 절 개 요
- 제 2 절 기종별 활동분석

제 4 장 공수취급업무

- 제 1 절 개 요
- 제 2 절 공수취급업무 일반
- 제 3 절 지상공수업무
- 제 4 절 공중투하절차

제 5 장 결 론

중령 이 광 희

(제 5672 부대)

1947년 경남진해에서 태어났다. 공사 21기로 임관하여 C-54 운영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계기비행분야에 관심이 높아 AFM 51-37을 번역하여 공군교범 사용을 인정받았다.

제 1 장 서 론

일반적으로 현대전의 특징을 줄여서 말하기를 “전, 후방이 따로 없고 국가총력전이 되며, 초기전황이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孫子가 말하기를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고 했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목적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총력을 기울인다는 意味는 극히 다양하겠지만, 국력이 시기적절하게 使用될 수 있도록 집중·분산시키는 요소도 포함된다. 그러면 무슨 수단으로 국력을 집중시키고 분산시킬 것인가? 국경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수송수단이 쉬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전시 전술공수란 상상만 해도 그 역할은 엄청나다. 우리 身體에 比하면 공수란 심장과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심장과 피돌기운동은 우리 일생 동안 그침이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애써 느끼려 하지 않으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적다.

심장이 멈추고 피돌기가 그치면 사람은 죽는다.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 전술공수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소중한 연구자료가 바로 곁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경험적 전사를 가지고도 전술공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可能한 한 많은 敎訓을 도출해 내야 한다. 우리 땅에서 실제 있었던 전술공수를 옆에 두고 공수를 論할 수는 없다.

본고는 한국전하에서의 전술공수기의

활약상을 주마간산적이거나 되새겨 보면서 전술공수기의 중요성을 吟味하는데 그 의의를 가질까 한다.

제 2 장 전술공수작전

제 1 절 초기 전술공수기의 活動

1. 초기정세

원래 미 극동공군의 임무 중에는 한국에 대한 방어계획은 없었다. 단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국인들의 철수를 위하여 필요한 해상수송선을 공중엄호하는 것과,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철수작전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한 공격이었다. 전쟁발발 당일 11:00 시가 지나자 미 극동사령관 패트리치 소장은 제 5 공군 산하 전 지휘관에게 “駐韓美國軍”의 철수를 위한 空輸作戰에 必要한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 이 指示에 따라 제 8 전투비행단장 프라이스(John M. Price) 大領은 25일 저녁까지 B-26 폭격기 10대를 비롯하여 C-54 12대 C-47 3대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6월 26일 정보부대 報告에 依하면, 한국의 狀態는 ‘춘천을 탈환했다’ ‘전세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보고가 있어, 일본내에서 한국으로 전개하

군사지식

기가 便利하도록 이다쯔에서 아시아로 C-54 항공기를 이동만 시켜 놓았다.

즉, 한국내 사태가 그리 긴박하지 않으므로 공수작전을 취소하고 계획을 바꾸어 仁川港에서 선박으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투기가 수송선을 엄호토록 하였다. 이미 노르웨이상선은 682 명의 주한외국인을 싣고 인천항을 떠났다.

以後 한국사태가 점차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안 무초대사는 상선에 의한 미국인 수송계획을 다시 취소하고 항공기에 의한 긴급공중철수를 要請하였다. 이 要請에 따라 맥아더 원수는 미 극동공군에게 항공기로써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라고 指示했다. 맥아더 원수는 처음에 총 370명 人員에 대한 空輸만 必要하다고 했지만, 항공기에 의한 철수소식에 접한 주한 미국인들은 인근공항으로 몰려들어 計劃보다 훨씬 많은 人員을 공수해야 했다. 즉 金浦에서 250명, 수원에서 313명, 부산에서 375명을 일본으로 날랐다.

2. 공격목표가 된 공수기

주한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을 때 맥아더 원수는 “한국전쟁에서의 승패여부는 국민과 군의 士氣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느냐에 달렸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北傀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괴는 초전 단1회의 決戰이 전쟁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 국민의 士氣를 완전히 꺾기 위하여 주한외국인 수송을 하는 공수항공기에 공격을 加하기 시작했다.

實例를 보면 ;

- 6월 26일 주한외국군을 철수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공수기를 5대의 야크기가 金浦를 공습하였으나 F-82기가 요격하여 그 중 2대를 격추시켰다. 이것은 한국전에서 최초의 공중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 6월 28일 6대의 야크기가 수원에 나타나 C-54 한 대와 B-26 폭격기를 공격하였다.

- 6월 28일 역시 수원기지에 야크기가 출현, 지상에 있는 C-54 한 대, 비행 중인 C-54 한 대에 피해를 입혔다. 공수기를 공격하여 全体的인 국민사기를 꺾는 효과도 있었지만, 수송기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킴으로써 아군의 戰力 일부를 수송기 업호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었다.

3. 한국전 최초의 화물공수

전쟁은 바람을 안은 산불처럼 커지면서, 전쟁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군은 계속 밀리면서 전쟁수행에 必要한 모든 것이 不足한 상태가 되고 있었다.

특히 탄약이 절대적으로 不足했다. 이에 맥아더 원수는 美極東空軍에 탄약공수를 지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전에서 戰爭遂行을 위한 물자공수가 그 테이프를 끊었다. 6월 28일에는 200t의 탄약을 공수하고, 그 이후 일본에서 軍需品을 적재한 해상수송선이 도착될 때까지 매일 150t의 탄약을 공수하도록 指示되었다.

제 2 절 공중투하 / 공정작전

한국지형은 서술한 바대로 산과 강이 많고, 당시 교통의 미발달로 지상 보급로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한국지형의 특성은 유사시에는 작전수행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깊은 研究가 되어져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時代를 막론하고 戰爭에서의 병참선은 곧 戰爭의 생명선임은 기지의 사실이다. 병참선이 끊긴 전쟁은 강 건너 불을 보듯 그 결과는 뻔하다.

특히 독특한 수송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중투하방식에 의한 再補給作戰形態 또한 앞으로 철저히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전에서 실시되었던 공중투하 / 공중작전 중 重要한 사례와 그 문제점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1. 지역공중투하

가. 인천 상륙 작전계획

인천상륙작전 以前의 공수기 活動은 단순한 인원 / 화물공수가 그 全部였다. 인천상륙작전이 구체화되면서 이를 위한 대규모 공수작전이 구상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면 미 극동공군은 매일 한국으로 약 700~1,000t의 보급품 및 多數의 공정 부대가 투하되어야 하였으므로 절대적으로 공수항공기가 부족했었다. 이를 위하여 C-46機와 C-47機는 공수능력 및 제반작전 효율면에서 부적합하였으므로 C-119機를 요청하였으나 계획대로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미공군은 9월 10일까지 C-46 64대, 9월 20일까지는 32대를 공급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作戰에 적합한 항공기는 C-119였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C-119機 87대와 C-46機 40대를 한꺼번에 이용, 공중투하에 投入한다는 기본작전방침을 세우고 작전준비를 하였다.

나. 평양 전역

평양을 돌입한 지상군(유엔군)은 보다 많은 공산군을 생포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였다. 이 作戰이 개시

군사지식

되자 제 187연대 전투공수단은 金浦飛行場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예정보다 6시간이 지난 후에 이륙할 수 있었다. 午後 14:00 경에 평양근교 숙천상공에 도달하였다. 숙천지역 공중투하는 한국전 최초의 공정부대 투하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시간 뒤인 15:00 경에 C-119 71 대와 C-47기 40 대가 2,840 명의 공수병과 301t 의 보급품 및 장비를 투하하였다. 약기상에서도 투하지점은 정확하였다. 단지 C-119 2대만이 실패하였다.

이 作戰으로 적은 전혀 예상치 않은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으며, 적은 당황하여 무기를 버리고 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평양포위망 형성에 성공한 제187연대 전투공수단은 10월 21일에는 C-119 機로 1,093 명의 공수병과 106.8t 의 보급품을 투하하였으며, 22일에는 C-119 機 22 대가 130t, 23일에는 9대가 54t 의 물자를 투하하였다. 이 作戰으로 유엔군은 3,115 명의 공산군 포로를 붙잡았으나, 유엔군 포로를 실은 열차가 20일 공정부대 투하지역 근처인 순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그후에 밝혀져 기상으로 인한 作戰開始時間

지연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평양에서의 공정작전은 급격히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성공적이었다고 당시 제 817 공정연대 전투단장이었던 보웬(Frank S. Bowen) 준장은 말하면서, 作戰中 노출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중장비 투하시 항공기 간의 간격이 너무 좁다고 하였다. 중장비가 낙하 중 낙하산 간에 서로 엉켜붙거나 부딪혀서 손상장비가 많은 데서 나온 지적이었다. 포장에도 問題가 있었다. 지상접지시에 충격흡수를 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장비가 사용불능이 되었다.

중장비를 많이 투하했던 평양전역에서 곡사포 12문 중 2문이, 지프도 28대 중 4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투하지역 선정에서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 선발대가 투하지역에 먼저 가서 제반상태를 고려하여 투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 北上유엔군 지원

유엔군의 반격으로 계속 北으로 진격하는 지상군에 부응하여 전술공수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었다. 즉 空路에 의한 병참물자 보급은 필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선 도로망이 오늘날처럼 포장이나 現代化 된 것도 아니고, 그나마도 초전 쌍방

포격전으로 제대로 使用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병참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애로가 수반되기 마련인 것이다. 1950년 10월 말까지는 매일 약 1,200t을 평양에다 공수했다. 10월 24~25일 양일 간에는 그때까지의 기록을 깨뜨리고 하루 1,687t을, 그 다음날에는 1,787t을 공수하였다.

이 事實에 대하여 當時 미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은 “만약 공수가 없었다면 항구와 철교시설이 개통될 때까지 기다리다 지쳐서 후퇴하였거나 정지했을 것이다”라고 전술공수기의 活動을 격찬하고, 그 중요성을 強調하였다.

라. 장진호 철수작전

장진호는 함경남도 함흥 북쪽에 있는 큰 호수 이름으로,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參戰함으로써 유엔군이 一時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을 때 미 제 10사단이 이 장진호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 이 때 전술공수기에 의한 공중재보급에 의하여 그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수사상 그 유례를 보기 힘든 例이다.

미 제 10사단은 1950년 12월 3일 장진호 근처에서 미 제 1사단(해병), 제 7보병사단이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

단당하면서 그 運命이 存亡에 놓이게 되었다.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事態의 긴박성을 알고는 미 제 10사단이 必要하다면 중폭격기를 使用해도 좋다고 통고해 왔다. 영하의 혹한과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서 惡戰苦鬪하는 지상부대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화력지원 못지 않게 空中보급을 통한 心理的 安靜이었다. 동년 11월 28일 미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에서는 장진호 근처 유담리에 있는 미 제 7사단에 탄약 10t을 공중투하하였으며, 신흥리 근처(장진호 동쪽)에 집결해 있는 미 제 31보병연대에게도 역시 탄약 10t을 투하하였다. 미 제 10군단에서는 400t 이상을 투하하여 줄 것을 要請했지만 70t밖에 투하하지 못했다. 전투공수사령부는 공중투하능률을 높이기 위해 各種 포장기구와 C-119機 3대를 연포기지에 전개시키는 한편, 일본 아시아기지에 있던 제 234병참공수보충대는 兵力과 일본인 노무자를 動員하여 C레이션, 소화기, 포탄, 기타물자를 공중투하할 수 있도록 포장작업을 하였다.

동년 12월 4일 미 극동공군은 전투공수사령부에 C-119, C-46, C-47機를 동원, 지상군 미 제 10사단을 支援토록 명령하였다.

군사지식

전술공수기가 증가된 다음 이틀 간에 걸쳐 250여 톤의 보급물자를 공중투하한 이후부터 보급품은 여유를 보이면서 장병들은 心理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士氣가 올랐다. 전열을 다시 가다듬은 장병들은 먼저 지상보급로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에다 全力을 기울였다. 여기에 미제1해병연대가 投下되었다. 장진호로 통하는 보급로는 고토리쪽으로 약 7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지세가 험준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중공군에게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하기 전에 완전한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에 전투공수사령부는 하갈우리와 고토리에 多量의 식량과 탄약을 투하하였다. 하갈우리 주둔부대는 11월 30일 거친 地面을 밀고뛰어 길이 2마일의 활주로를 닦았다.

고토리에도 이와 비슷한 활주로를 한 개 더 만들었다. 전투공수사령부는 이 보잘것 없는 활주로를 이용하여 240회나 출격, 370여톤의 보급품을 공수하였으며, 귀로에는 4,500여명의 장병과 부상자를 철수시켰다. 거칠고 위험한 비행장 상태와 적의 대공포화에도 不拘하고 철수작전은 계속되었다. 이 작전으로 죽음직전의 많은 부상병들의 人命을 구할 수 있었

다.

마. M-2 踏橋공중투하와 흥남철수
M-2 踏橋간이다리 제작에 必要한 徑間(Span)을 말한다. 즉 끼워맞추는 다리의 부분품이다. 이것을 공중투하하여 지상작전시에 使用토록한 것이다. 이것은 공수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즉,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공군이 戰鬪에 參加하여 유엔군의 전선을 깨뜨리기 위하여 치열하게 攻防戰을 벌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장진호 근처에서 미 제10사단이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상황에 연결되는 狀況이다. C-119, C-47機를 이용한 결과 보급품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되었었다는 것은 前述하였다. 공중투하가 시작되지 이틀 후 미 제1해병사단은 하갈우리를 벗어나 고토리에서 격전 중인 제11연대와 合流할 계획으로 준비를 갖추었으나, 고토리 북방에 침입한 중공군이 호수를 건너는 1,500피트 가량의 협곡교량을 절단해 버려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집결을 위하여 제방을 쌓는 方法도 고려해 보았으나 時間이 없었다. 하갈우리를 탈출하려던 제2연대는 차량과 전차를 버리고 개인화기만 지참하고 도보로 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전투물자 공수사령관 스미스 소장은 合板으로 만든 徑間(Span) 8개를 공중투하해 주도록 요청했다. 합판답교의 크기는 5 × 16 × 2 피트이고, 무게는 2,900 파운드로 완전포장한 각 경간의 중량은 2t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하해 본 적이 없는 교량의 공중투하는 그 성공여부가 극히 의심스러웠다. 연포에 있던 C-119機로써 경간 1개에다 G-1 낙하산(낙하산 종류) 6개를 투하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더이상 시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8개의 경간을 C-119機 8대에다 각 1개씩 적재하여 G-1 보다 큰 G-5형 낙하산 2개씩을 각 경간에 달았다. 09:00경 C-119機는 5분간격으로 연포 비행장을 이륙, 고토리 상공에서 8백 피트 고도에서 투하하였다. 결과는 투하지정지역(D.Z)에서 약간씩 빗나가는 하였으나 성공이었다. 이것을 조립, 다리를 가설하여 12월 7일 밤 계획대로 미 제1해병사단 부대원과 고토리 북방에서 合流할 수 있었다.

중공군이 공세를 퍼부은지 13일 만에 해병 1사단과 제31보병연대가 험준한 지세, 혹한 그리고 불리한 戰況속에서도 多量의 중장비를 버리지 않

고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술공수기에 의한 공중투하 덕분이었다. 13일간의 포위망속에서 그들의 惟一한 보급원은 공수이었다. 이 철수작전에서 전투공수사령부와 C-119機 313台, C-47機 37대가 총 1,580t의 보급품과 장비를 투하하였다. 또한 特記할 것은, 前述한 대로 이 장진호 공수작전에서 공수사상 최초로 교량이 투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작전이 끝나자 이 작전에 참가했던 314공수전대와 21공수전대, 그리고 제 801항공의무대대가 한국전쟁 최초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미해병 제1사단이 12월 11일 함흥에서 흥남교두보로 후퇴함으로써 미 제10사단 전 병력이 해상과 공로로 철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포비행장에서 대대적으로 공수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연 4일간 계속되었는데, 도합 393소트에 걸쳐 환자 228명과 병력 3,891명, 그리고 탄약과 차량 등 2,080t의 화물을 공수하였다. 이때 만약 항공기에 의한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엔군의 피해는 막대하였을 것이다.

바. 문산지역 공수작전

이 작전은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군사지식

한창이던 '51년 3월 북으로 도주하는 적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케멸시키기 위하여 서울과 개성 사이 임진강변에 가까이 있는 文山에 대규모 공정부대를 투입했던 작전이다. 원래 이 작전은 예정에 없었던 것이었다. 즉, 춘천지역에 이 작전을 실시할 예정으로 314 공수단 소속 C-119機 80대와 437 비행단 소속 C-46機 55대와 함께 투하할 보급품을 대구기지에 집결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 작전의 취사로 그대신 작전규모를 그대로 문산지역에다 투하하기로 전격 決定하였다. 문산 근처에는 약 12,000명으로 추산되는 적이 집결해 있다는 정보에 그 作戰근거를 두었던 것이었다. 제 187 공정연대가 2개 지역으로 나누어 낙하시키기로 하였다.

항공기가 집결해 있던 當時 대구기지 주기장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의 지상이동시에는 그 고충은 말이 아니었으며, 항공기엔진 수명에도 큰 지장을 주었다. 작전당일 기상은 매우 좋았다. 항공기가 시동을 걸고 움직일 때마다 먼지로 인하여 앞 항공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었다. 이륙을 할 때에는 더 심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10초간격으로 이륙, 목표지역으로 향하였다. 當日 목

표지역 상공에서는 적의 아무런 공중 저항도 받지 않고 作戰을 遂行할 수가 있었다. C-119機 72대가 2,011명의 공정대원과 204t의 보급품 및 장비를 投下하였으며, C-46機 48대가 1,436명의 공정대원과 1,505t의 탄약, 식량 그리고 통신장비를 투하하였다. 3월 24일에는 C-119機 36대가 병력 40명과 보급품 187t을 투하하였고, 3월 26일에는 C-46機 4대가 10t을, 28일에는 C-119機 2대가 탄약과 보급품 65.8t을 투하하였다.

투하작전 마지막 이틀간(3.26~3.27)의 공중투하는 부대간 상호왕래를 거의 하지 못한 地域에다 보급품을 투하하였는데, 그 지역에 있던 공정대원은 36시간 동안 한끼 밖에 먹지 못한 실정에 있었다. 이 작전에서 공정대원을 투하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는 조종사 실수로 판명이 났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 되었다. 이 作戰결과를 보고받은 헤브리니 준장은 투하지역에서 어떤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술공수기들은 작전에 임하기 전에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적어도 투하 전 5일간의 예비일이 必要할 것이라고 말하

였다. 이 작전의 결과로 150 ~ 200 명의 적을 사살했으며, 87 명을 생포 하였다.

1951년 7월 1일부터 1952년 6월 30일까지 315공수비행단의 기종별 공수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315 공수비행단 기종별 공수실적표

1951.7.1 ~ 1952.6.30

총계 또는 평균

구 분 \ 항공기형	C - 54	C - 119	C - 47	C - 46
평균 항공기 보유댓수	60	71	25	57
평균 항공기 전투준비댓수	46	41	18	42
INCOME 율 (%)	77	58	72	74
평균 조종사 수	127	88	43	98
출 격 횟 수	33,224	9,281	11,649	14,771
비 행 시 간	122,207	31,106	26,622	60,628
공수화물 총톤수	132,270	27,425	17,117	34,135
소유항공기당 톤수	856,503	24,650	95,587	148,656
승 객 톤 수	2,204	386	685	599
소유항공기당 평균승객수	14,274	347	3,823	2,608
환 자	41,430	-	36,225	1,076
기 타	815,103	24,650	59,362	147,580

출처 : 유엔 공군사 (공군본부)

군사지식

사. 공중투하작전의 諸問題點

항공기에 의한 공중재보급 및 철수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유엔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그때까지 대규모의 공수/공정작전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작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 문제점들을 대략적으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공중투하작전에 적합한 항공기의 不足이었다.

한국전에 參戰했던 전술공수기는 C-46, C-47, C-54, C-119, C-124 (C-124는 나중에 投入) 5종류였으나, 이 중 공중투하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는 C-119였다. C-119機는 화물 적재실이 넓으면서 꼬리부분에 출입구가 있어서 화물을 적하시에 차량이 드나들어 便利함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목표지역에 도달, 투하시에도 타항공기들보다 극히 편리했다. 투하구가 넓고 크며, 꼬리부분에 위치해 있어 단위시간당 투하량이 많아 투하지역 상공에서의 不必要한 대기(Holding)가 적었다.

反面 C-46, C-54, C-47機는 탑재 화물능력이 적을 뿐 아니라 화물적재구가 동체 옆에 있어 여러 가지로 不便하였다. 즉, 지상에서 화물적하시

에 화물을 들어올려서 놓으면 인부들이 적재시켰다. 투하지역에서도 투하구가 작고 옆으로 되어 있어 투하지역 상공에서 지체시간이 다소 必要했었다.

둘째 ; 투하절차의 비표준화이다.

항공기 간의 간격, 투하자세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다량의 항공기가 투하시에 하늘은 온통 낙하산으로 뒤덮였으며, 이로 인하여 낙하산이 퍼지지 않은 채 자유낙하(Free Fall)된 화물도 있었으며, 낙하산 간에 줄이 서로 엉겨붙어서 낙하산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화물은 大破되기도 했다. 또한 악기상 상태(특히 심한 요란현상) 조우시는 항공기 바닥에 낙하산줄이 엉켜서 투하가 제대로 되지 않은 例도 發生했다.

또 한 가지는 화물의 크기나 무게가 낙하산 종류에 맞게 적절하게 배포가 되지 않아 낙하산이 퍼졌으나 지상충격으로 使用不能인 것도 나왔으며, 反對로 화물이 너무 가벼워서 바람을 타고 투하지역(D.Z)을 많이 이탈한 例도 있었다.

지상포장중대는 貨物의 크기를 한 개당 200~300 파운드 크기로 했다.

이것은 포장하기도 용이했고 포장 후 취급하기에도 적절한 크기였다. 그

러나 C-119 機용 화물은 투하구가 컸기 때문에 1,500 ~ 2,000 파운드로 했다. 작은 멍치의 수가 많으면 낙하산줄이 서로 엉키는 현상이 항공기내에서부터 생겼다. 反面, 큰 멍치의 화물은 작은 멍치보다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었다.

세째 ; 투하지역 설정의 부정확성이다. 산악지역인 한국은 D.Z (Drop Zone) 가 공중투하에 적절치 않아 조종사는 투하시 많은 애로가 있었다.

當時 315 공수사단의 관계자 意見으로는 항공기의 공중투하에 적절한 지형기준으로는 적어도 길이 500 야드, 넓이 200 야드이면서 지면이 평탄하고 잔디(화물접지시 충격완화)이어야 하고, “T”字形(투하지역 표시)을 前方 3 마일부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투하 후 지형조건으로서는 항공기 성능과 관련하여 적어도 6 ~ 7 마일 가량의 장애물이 없는 회랑이 必要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거의 무시되었다. “그들은 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좁은 협곡에다 투하지점을 만들어 놓았었다”, “T字 표시판을 發見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미경이 必要했다”(T字가 너무 작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투하지역을 확인하고 비행

하는 데에 어려웠던 點을 조종사들은 그렇게 표현했다.

네째 ; 투하지역내의 절차미숙이다.

투하지역내의 節次는 세밀한 분야까지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은 대량의 항공기가 동시에 집결이 되고, 단 1 회로 투하지역을 발견치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찾기 위하여 공중대기를 해야 하며, 항공기 간 분리가 적절치 못하면 충돌의 위험도 있는 것이며, 기상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야간투하 중 C-119 機 2대가 아군측 야포에 의하여 격추된 것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제 3 절 항공의무수송

1. 작전개요

유사시 부상병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體制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본 한국전에서 헬기를 포함한 전술공수기의 항공의무 후송작전은 극히 성공적이었다. 2 차대전때만 해도 항공기에 의한 부상자 후송절차가 발달되지 못했다. 즉, 지상수송수단과 항공기에 의한 수단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가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져 있지 않았다. 한국전쟁 초기 역시 2 차대

군사지식

전때 실시했던 전통적인 부상병 치료 방법을 썼다. 즉, 부상병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 入院시켜 완치 후에 다시 전투에 투입시켰으며, 중환자일 경우에만 지프와 들것시설이 있는 차에 실려 후방병원이나 육군이동외과병원(MASH)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한국의 특수한 지형, 즉 빈약한 도로와 철로로 인하여 더욱 더 부상자 후송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극동공군 총사령부는 항공기를 이용한 부상자 후송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그 시기에 극히 시기적절하고 가치가 있는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항공기를 이용한 부상자 후송은 오랜 후송시간과 험난한 지형에서 오는 고통을 크게 덜어 주었으며, 경부상자는 전선복귀시간도 짧아져서 전력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2차대전 當時 부상자 1,000명당 사망률이 45명이었는데 比하여, 한국전에서는 1,000명당 25명으로 2차대전 당시에 비하여 무려 반에 가까운 숫자였다. 1차대전에 비해서는 1/4이었다. 이에 대하여 미 공군의무감 암스트롱 소장은 “한국전에서 항공의무후송대대가 이룩한 공적은 미공군역사에 빛날 찬란한 장”이라고 격찬하였다.

2. 후송체계

전쟁초기, 그러니까 '50년 6월에서 8월 사이 항공기로 후송된 부상자는 1,631명이었으며, 해상 및 육로 후송자는 6,500명이었다. 항공의무후송이 한국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한 통신수단의 이용과 해당 의무참모 간의 협조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일선대대병원에서는 부상자의 위치를 전화로 통보하면 이동외과병원(MASH) 헬기가 출동하여 부상병의 위치와 부상의 정도, 필요약품, 후송항공기 착륙에 必要한 제반정보를 상세히 교환하였다. 이러한 절차로써 부상자는 한시간 이내에 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이 부상병들이 지상후송이 되었다면 약 50%는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당시 군의관들은 말하였다.

1950년 말과 '52년 초에는 미 극동공군은 헬기, C-47, C-54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해군병원선(Consolation)으로 후송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즉, 헬기가 부평리, 인제에 있는 병원으로 공수하면 C-47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속초비행장으로 갔다.

속초비행장에서는 다시 헬기가 병원선까지 운반하였다. 대략적으로 치료

가 된 중증부상자는 다시 헬기가 속초까지 나르면 C-54가 일본동경으로 후송시켰다.

3. 전선항공의무활동

항공의무후송작전은 포탄이 직접 쏟아지는 최일선에서도 실시되었다. '51년 2월 중순, 미 제2사단이 저평에서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6대의 헬기가 담요와 의약품을 보급하였으며, 강풍과 눈보라를 무릅쓰고 이틀간 52명의 생명을 구했던 일도 있다. '51년 3월 24일, 25일 양일간 헬기는 문산리 공수작전에 참가하여 비오듯 쏟아지는 폭탄 속에서 148명의 부상자를 구했으며, 대공포에 그 중 2대가 격추되기도 했다. 또한 '51년 한국의 위기인 8월에는 홍수로 인하여 유엔군이 고립되자 헬기는 83명의 터키전투원을 대피시켰으며, 29일에는 임진강의 범람으로 고립된 수색대원 58명을 구출하였다. 12월 5일에는 총 131회 출격하여 392명의 부상병을 공수하여 한국전 이래 최대의 항공후송기록을 세웠다.

항공기별로 任務를 대별해 보면, 통상 C-47機는 전선근처에 있는 야전 비행장에서 병원까지 공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C-54機는 비행장에서 일본까지 날랐다. 일일평균 항공기를 이

용한 후송환자는 약 300명에 달했다. C-46은 소터당 26명, C-54는 36명(들것, 보행환자 포함)을 공수하였으며, 1952년 후반 C-54를, 수송능력이 좋은 C-124로 대체하였다.

C-124는 최고 들것 124명, 또는 200명 탑승이 가능했으며, 부상자 탑승에 필요한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되었다.

한국전쟁 3년간 공수사령부와 제 315 공수비행단은 약 32만 여 명의 부상자를 공수하였다. 일본으로 환자공수 후 한국에 돌아올 때는 보급물자를 날라서 선박을 이용한 환자후송보다 그 비용이 적게 들었다. 한국전에서의 항공의무후송은 1개의 항공의무대대가 2차대전 당시 5~6개의 대대가 이룩한 이상의 업적을 달성하였다.

4. 휴가장병 공수

1953년 7월 개성에서 휴전협정이 시작되자 후송이 필요한 부상자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쟁물자공수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전투에 시달린 장병들을 위하여 환자공수용 항공기는 휴가항공기로 사용되었다. 미 8군은 1952년 12월 30일부터 휴가계획을 수립하였다. 매일 200명씩 5일간씩의 휴가를 주었다. 미 극동

군사지식

공군도 이와 유사하게 휴가를 실시하였다. 1952년 후반기에 공수된 14만 1,935명의 승객 중 2,800명이 휴가장병이었다. 그러나 1953년 6월 18일 휴가자 공수를 하던 C-124 機

한 대가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 전원이 몰사하는 참사를 빚었다. 그 이후 항공기를 이용한 휴가자 공수는 취소되었다. 한국전쟁 중 약 2년간 공수한 후송자수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항공의무후송 실적표

1950. 7. 1 ~ 1952. 6. 30

연 월	1950	1951	1952
1		10,301	5,541
2		18,137	5,584
3		12,451	5,345
4		10,693	3,847
5		11,051	4,593
6		14,811	4,784
7	831	5,965	
8	800	5,556	
9	7,243	11,869	
10	5,877	12,718	
11	13,880	7,023	
12	20,316	6,249	

제 4 절 조명탄 작전

1. 작전개요

한국전쟁에서 적이 敗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유엔공군에게 제공권을 빼앗긴 데에 기인한 것은 既知의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산군이 쉽게 휴전협상태이블로 나올 수 있게 한 것이 야간폭격이었으며, 야간폭격을 원활하게 해준 장본인이 공수기를 이용한 조명탄작전이었다. 그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이 공중항체는 물론, 야간 지상보급차량을 마음껏 두들겼기 때문에 적은 보급품 수급면에서 이미 패하고 있었다. 유엔공군의 지상보급품 이동차량을 주간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그 대책으로 야간에 보급품차량을 움직이게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當時에는 야간보급품 수송차량에 대한 공격방법이 없었다. 이에 스트레이트 메이어 중장은 즉시 미공군에 야간에 이동하는 적지상군을 포착, 공격할 수 있는 장비와 전술을 개발해 주도록 要請하였다. 이 요청으로 연구된 것이 C-47을 이용한 조명탄 투하작전이었다.

2. 세부내용

애초에는 B-26을 이용하여 조명탄

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이 폭격기로써 조명탄을 투하하는 데는 작전상 많은 문제가 있었다. 1950년 12월 말 제 3 폭격비행단의 어느 행정보좌관이 C-47 機를 이용하여 조명탄을 투하하는 方法을 개발해 냈다. C-47 機 출입구에다 조명탄을 투하할 수 있는 Stone-Pipe 형 Launcher 를 만드는 등 일련의 절차를 수립하였다.

처음 B-26 機에서 사용한 조명탄은 M-26 형이었는데, 그 성능이 극히 저조하였다. 불발률이 50~60% 까지 달했다. 그러나 C-47 機에는 MK-5, MK-6 형 조명탄을 사용해 본 결과 129 발 중 단지 7 발밖에 없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관계자들은 C-47 를 이용하여 조명탄작전을 실시하기로 決定하고, 실제작전에 사용해 본 결과 의외로 대성공이었다. 즉, B-26 폭격기가 정확한 폭격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지상포병들도 주간과 거의 유사하게 포격을 할 수 있었다. 미 제 25 사단장 킨 소장도 항공기를 이용한 조명탄투하는 “대단히 가치있는 작전”이라고 격찬하였으며, 적 포로들에 의하여 증언된 내용에 의하면 “야간조명탄은 가공할 것이어서 야간작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에 지상지휘관들은 조명탄작전에

군사지식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관계자들에게 좀 더 많은 시험을 한 후에 실제작전에 투입토록 요청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C-47 機는 지상군 병사들에게 아주 人氣가 좋아서 반딧불이라고 불렸으며, 어떤 사람은 “한국언덕에서의 희망의 등불”이라고도 불렀다. 조명탄작전의 횟수가 더해 가면 갈수록 승무원들의 투하기술이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갔으며, C-47 반딧불의 진가는 더욱 더 높아갔다.

그러나 조명탄이 충분치 못해 작전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C-47 한대가 2개 지상군사단을 지원하면서 일부는 F-4U, F-7F와 합동작전에 참가하였다. C-47 機를 이용한 야간작전은 갈수록 그 효과가 커서 많은 지상군부대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었지만, 전부 지원하지는 못했다. 나중에는 C-47 機가 부족하여 C-46 機를 20여대 요청했지만, 조명탄 부족으로 거절당했다.

제 5 절 기타작전

1. 무선중계 작전

한국전에서 유엔군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시설을 적절히 이용했다는 것을 꼽고 있다.

한국에는 산이 많아 통신기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초기 통신시설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군 간의 충돌도 있었던 사실을 거울삼아 C-47 機를 이용하여 전술항공통제본부와 공중통제관, 항공기 간의 중계, 그리고 전술항공통제본부의 시기적절한 작전지시 중계임무를 1951년 1월부터 항공기에 AN/ARC-28 고주파수 무선중계장비와 4개회선을 가진 고주파수 무전기를 장착,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통신의 중요성은 새삼 부연할 필요가 없다. 지상군관제사가 항공기유도 잘못으로 B-29 폭격기가 안동을 폭격하여 주민 22명이 목사한 사례도 있었다.

2. 못살포

야간에 이동하는 적의 보급품 수송차량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1951년 2월 B-26 폭격기 엄호하에 C-47 機 4대가 적의 주요보급로 4개에 못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자동차 바퀴에 핑크를 내어 날이 새도록 기다려서 주간에 공격하자는 작전개념이었다.

3. 뼈라살포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후방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전선이 붕괴되었을 때, 17일부

터 23일까지 적의 퇴로에 400여 만장의 뼈라를 살포하였다. 이 뼈라를 주워 보고 많은 적군이 투항해 왔다.

10월 1일 군산에서는 약 200여명의 적이 뼈라를 주워 보고 무기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제 3 장 기종별 活動現況

제 1 절 개 요

한국전쟁에서 전술공수작전의 주축이었던 제315 비행단은 제작된지 비교적老朽한(C-46 : 10년, C-47 : 15년, C-54 : 10년) 항공기였지만, 훌륭히 주어진 任務를 수행하였다(노후항공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으나 戰史는 노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 2 절 機種別 活動分析

1. C-119 機

C-119 機가 비행효율면으로는 타항공기(한국전 참전 공수기)에 比하여 컸었다. 화물적재실까지 화물적하차량이 드나들 수 있고, 투하구가 넓어 단시간내 화물투하가 가능하였다는 등長點이 있었지만, 정비면에서는 문제하였다.

원래 미공군은 한국전에서 공수작전

은 단시간내에 종결될 것을 豫想하고 한국으로 급히 파견조치된 까닭에, 항공기 정비지원문제 및 정비를 위한 장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 항공기는 노면이 양호하고 포장된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전시한국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제한치 준수보다 전황이 더 급했으므로 71,500 파운드의 착륙제한치를 무시하고 가동시켰다. 항공기 주기별 점검시간의 불엄수, 제한된 장비능력, 휘날리는 모래바람 등으로 항공기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다. 그 결과 1951년 3월 23일 2대가 비행 중 엔진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프로펠러와 바퀴다리 또한 많은 결함이 나왔다. 프로펠러는 동철제였으므로 지상 이착륙시 휘날리는 돌부스러기에 의하여 많이 상했다. 한국전 초기 10개월간 항공기 가동률은 놀랍게도 평균 11%였다.

2. C-47 機

C-47 機가 한국전에서 기여한 공은 다른 어느 항공기보다 컸고 찬란했다. 가장 큰 업적은 야간조명탄작전이였다.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야간적의 보급품 이동에 제동을 걸었던 주도적 역할을 한 항공기였다. C-47 機 승무원의 피로는 다른 어느 항공

군사지식

기 승무원보다 더했다.

소티당 4~6시간 가량씩 비행을 해야 했고, 100소티가 되어야만 본국 조종사와 교대가 되었다고 한다. 조명탄작전에 못지 않게 최전방 환자 및 보급품 공수에 많은 활약을 하였다.

3. C-46 機

이 항공기는 항공기 자체에 문제가 많았던 C-119 機를 대신하여 보급품 공수와 공정부대를 投下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1953년 3월 C-119 機가 자체문제로 飛行이 잠시 不可能하게 되었을 때 C-46은 한국과 일본 간을 왕래하며 C-119 대신 각종 임무를 해냈다. 비교적 대형항공기였던 C-119와 C-124가 부속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 代打로서 C-46은 많은 활약을 했다.

그러나 투하구가 동체 옆에 부착되어 있는 관계로 화물투하시에는 불편했다. C-46은 불과 몇년 전까지 우리 공군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움직였던 항공기였다. 특히 해상에서의 대간첩작전에서 많은 업적과 함께 훌륭한 사연과 애환을 갖고 있기도 하다.

4. C-54 機

C-54는 공중투하를 많이 실시했던 한국전에서 작전수행에 그 주류를 이

루었던 항공기는 아니었지만, 인원 및 환자공수에는 크게 기여를 했던 항공기이다. 화물적재실이 옆으로 나 있고 높기 때문에, 화물적하시 지상차량이 화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不便함과 프로펠러가 역회전이 되지 않아 3,500 피트 밖에 되지 않는 짧은 활주로에서 착륙중량을 초과한 65,000 파운드(착륙제한치 : 63,500)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착륙을 시도하여야 했다. 이 항공기의 또하나의 결점은 연료탱크가 피탄시 자동밀폐가 되지 않아 대공소화기에 약했다는 것이다. 본 항공기는 또한 월남전에 참전했던 항공기로서 “韓越空輸 500회 무사고”라는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5. C-124 機

1951년 한국전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을 때 C-54 2개대대가 C-124로 대체되었다. 전선보급품의 수요급증에서 온 조치였다. C-124는 17만 5천 파운드 상당을 적재토록 설계된 항공기였지만, 활주로 사정상 그렇게 적재치는 못했다. 이 항공기 적재용량은 C-54의 4배였다. 단위소티당 결함발생률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1952년 후반에 46.1%, 1953년 전반에 61.2%라는 보통 이상의 임무수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엔진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Generator 화재로 인하여 한국전사상 최대의 항공기 사고를 이 항공기가 냈다. 1952년 6월 120명의 승객과 화물 9천 파운드를 싣고 오산을 이륙하여 일본에 도착, 착륙을 위한 접근단계에서 조종사 실수로 추락, 全員이 사망하였다. 이 사고以前에도 3~4회 Generator 화재로 불시착한 사례가 있었다. 사고원인 규명결과 Generator 화재로 밝혀졌다. Generator 화재가 사고원인으로 밝혀지기까지 비행은 잠정 중지되었었다. C-124는 이러한 제반여건등으로 한국전쟁에서의 역할은 기대 이하였다.

6. 헬리콥터

헬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크게 必要하지 않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을 십분 발휘하여 산이 많은 한국지형에서 헬기는 많은 일을 해 냈다.

전쟁발발 초기 미 극동공군 구조대가 8대의 H-5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50년 8월 초 미 제5공군이 3대의 헬기로 편성된 제3공중구조대대를 한국으로 이동, 중환자를 전선에서 외과병원으로 후송하는 데에 使用했다.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점점

헬기의 필요성이 더하여져 미 극동사령부는 미공군에 25대의 H-5와 이에 부수된 승무원, 정비사, 항공군의관등으로 구성된 1개의 중환자대대를 요청했으나 全部 충원되지 못했다.

H-5 헬기는 개전초기 C형이 活動하지 않았을 때 많은 활약을 했었다. 1950년 8월 29일까지 부산병원으로 후송한 환자수는 83명이었는데, 이 환자들이 10 내지 14시간 소요되는 지상후송을 하였다면 많은 부상자가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군의관들은 말했다. 1951년 4월 15일까지 제3공중구조대대는 1,423명의 유엔군 부상자를 후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공군 의무감은 “미공군사에서 가장 찬란한 장의 하나”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헬기승무원들의 악천후와 야간비행으로 겪은 고초는 말이 아니었다.

제 4 장 공수취급업무

제 1 절 개 요

항공기를 이용하는 인원 및 화물을 적절하게 조정통제하는 임무가 바로 공수취급업무이다. 특히 항공화물을 항공기의 형태와 특성에 맞도록 적재

군사지식

하고 하역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미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관 터너 소장은 미 극동공군 예하 수송기를 지상과 공중 어디에서나 통제할 수 없다면 공수능력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애초 항공화물 취급을 육군 예하에 두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군 예하에 두어 작전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나온 건의였다. 그 이후 이 건의는 받아들여져서 미 극동공군에서 일본과 한국내의 공수취급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공수화물에 대한 책임이란 항공기에 적하되는 전 화물을 통제하고 기록하며, 포장하고 하역된 화물을 필요부서까지 운반하는 일이었다.

제 2 절 공수취급업무 일반

제 315 비행사단은 1951년 2월 7일자로 제 6127 공수취급전대를 창설하여 모든 공수에 필요한 절차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6127 공수취급전대장은 제 315 공수비행사단장의 지휘를, 그리고 각 공수취급파견대장은 6127 전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한국전 초기 공수취급을 맡았던 6127 공수취급전대는 장교 107명과 사병 762명으로 10개 파견대로 구성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항공화물취급을 위한 장비의 부족으로 육군으로부터 장비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나, 한국전쟁이 가열됨으로써 인원과 장비를 미공군에서 보충을 받았다. 초기에는 항공화물취급에 관한 요령이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나, 점차 절차보완이 이루어져서 항공기에 화물적하를 위한 시간이 처음 1시간 33분에서 55분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한국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51년 6월에는 6127 공수전대 예하 13개(후에 3개 더 신설됨) 파견대는 10,938소터 비행에 60,475명의 승객과 17,146t의 화물, 899t의 우편물과 10,520명의 항공의무후송환자를 포함하여 25,460톤을 처리하여, 한국전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이에 헤브리너 소장은 “제6127공수전대 창설은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그 업적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 3 절 지상공수업무

한국전에서 전형적으로 실시되었던 공수 채보급임무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한국에 있는 미 제 8군 군수부장이 미육군 공수조정장교에게 전방비행장에 필요한 보급품을

파악하여 통보하면, 미육군 조정장교는 요청된 보급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보급창을 점검한 후 신청된 보급품을 미공군 공수취급과견대로 수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보급품을 한국으로 공수하는 것은 미육군 조정장교가 제315공수비행사단 공수이동통제반에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일일신청업무의 하나로서 14:00시 전까지 공수이동통제반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를 접수한 제315공수비행사단 공수반(Traffic Section)과 공수이동통제반 대표들은 다음날의 작전명령을 준비하였다.

가동항공기를 최대한도로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즉, 한국으로 보급품을 공수한 항공기는 일본으로 회항시는 환자병력, 화물을 적재토록 하였다. 작전명령을 준비하는 동안 각 비행단에서는 다음날 수행할 공수임무를 전화로 수령하였으며, 공수를 실시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공수이동통제반 대표들은 합리적인 공수를 위하여 많은 통제를 하였으며,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에게 까지 적절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 비행장 상태를 분석·파악하여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원래 지시된 목

적지가 적의 기습이나 폭격에 의하여 목적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명령을 변경하여 지시하였다.

제 4 절 공중투하절차

보급품을 공중투하하기 위한 절차는 공수화물취급절차와 유사하였으나, 보다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였다. 보급품을 공중투하방법으로 재보급할 경우에는 미 제 8군 공중투하담당부대에서 보급품의 공중투하를, 그리고 미 제 8군 군수참모부 항공수송장교에게 연락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항공수송장교는 합동공수통제반 미육군 조정장교와 미 제 8군에 있는 제 315공수비행사단 연락장교에게 연락하였다.

제 315공수비행사단 연락장교는 수송기의 전투기 호위문제와 전술항공통신통제기의 조정 등을 고려하여 미 제 5공군에 있는 전화 또는 무전으로 협의하고, 보급품 공중투하 신청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15공수비행사단 작전계획반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였다.

한편, 미육군 조정장교는 아시아 공수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 8081포장부대에게 요구한 보급품 중에 입하된 품목과 입하된 보급품을 적재·수송할 부대를 확인한 후, 미육군 조



한국의 주력공수기 C-130의 위용

정장교는 제315 공수비행사단에 공중투하를 신청하고, 투하될 보급품 내용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작전계획반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보고받은 제315 공수비행사단 공수이동통제반과 공수반은 보급품투하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한국전쟁에서의 전술공수항공기 활동현황에 대하여 수박 겉핥기 식으로나마 알아 보았다. 보잘것 없다면 보잘것 없는 이 과거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지금부터 30년이 지난 과거에 실시된 전쟁에서 이토록 많은 물량이 공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랄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국방의 규모를 생각하면 장차유사시 流動

될 물량을 대략 상상할 수 있다.

끝으로 한국전에서 활약한 전술공수기를 토대로 장차 한국전에 적합한 공수항공기 / 작전형태를 필자 나름대로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 기동성이 있는 다기능항공기를 이용한 공수작전이다. 유사시에는 현재 이착륙에 문제가 없는 정상환주로는 많은 제한적 요소가 따른다고 볼 때, 대략적으로 활주로 형태만 갖춘 생지에서든 마음대로 이착륙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항공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초전 3~4일간의 상호집중포격으로 인한 육로사용 불능, 사상자 급증에 따른 항공의무후송, 고립지역 발생 등의 사실을 가정해 볼 때 다기능항공기의 의미가 명백해진다.

한국전 초기 C-47 機가 해냈던 역할은 실로 다기능적으로 이용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 특수개발된 공중투하 / 공정작전에 의한 전술공수작전이다. 구태의연한 작전방법을 탈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상소화기 성능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LAPSE 나 TIMER (공중투하방법의 하나)에

의한 투하 등 독특하고 창의적인 형태가 요구될 것이다.

세째 ; 합동작전 및 지원기로서의 역할의 증대이다. 군의 특색 및 작전형태에 따라 3군으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3군합동작전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양상이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무기는 3군 합동작전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면서 공산측이 휴전회담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한 것도 C-47 조명기에 의한 야간폭격이었다. 따라서 24시간 지속 작전지원체제에서의 전술공수기의 역할은 더욱 더 막중해질 것이다.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人体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달리기선수라고 해서 다리만 남보다 튼튼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 발전한다 함은,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전 분야가 나름대로 發展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서로 이해하여야 하며, 또 서로 도와야 한다.

소련 최신예 전투기의 능력과 운용개념 분석

이 글은 일본 “군사연구지(’87.11)에 실린 연구보고서를 조건현연구원께서 번역 기고해 주신 글입니다.

- 편집자 주 -



조 건 현 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목 차

- | |
|--------------------------|
| 1. 베일을 벗은 세 종류의 新 전투기 |
| 2. 신형전투기의 위치 |
| 3. B-1B 요격을 목표로 한 MiG-31 |
| 4. 주력전투기 MiG-29 |
| 5. F-15 급의 대형전투기 Su-27 |
| 6. 비행성능면에서 우월한 소련 기 |

사후 64기로 전역한 그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에 살고있다.

퍼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은 그 서문에서 『마하2를 넘는 성능을 가진 Fulcrum 요격전투기가 3백대 이상 實戰배치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MiG-31 Foxhound의 배치 댓수가 150대 이상을 초과하고, 수호이 Su-27 Flanker의 부대배치가 1986년부터 시작했다는 등 주목해야 할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다. 1980년대에도 중반을 지난 지금 일

1987년 3월 24일 미 국방성은 연차보고 「소련군사력」의 1987년판을 내놓았다. 캐스

련의 소련 신형전투기가 점점 실용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1990년대에 걸쳐 서방진영의 공군은 이들 소련 신형전투기와 대치하게 될 것이다.

서방진영에 속하는 일본에 있어서 이들 소련전투기는 말하자면 潛在的인 敵이며, 방위력 정비를 추진시켜 나가는 데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지금 점차 베일을 벗은 소련의 신형전투기 Trio, 이들의 能力과 性格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베일을 벗은 세 종류의 신전투기

1987년 9월 13일 바렌스海 上空에서 노르웨이 공군의 P-3B 對潛哨戒機와 소련방공군 소속이라고 생각되는 Sukhoi Su-27 Flanker 요격전투기의 공중접촉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오슬로發 AFP 통신으로 다음날 14일 여러 신문의 夕刊에 보도되어 Su-27의 전력화를 다시금 인상깊게 하였다. 이번 노르웨이 空軍機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Su-27은 코라半島의 방공군基地에서 발진한 것으로 생각되며, AA-10 Alamo 空對空 미사일을 胴体和 主翼下面에 搭載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공군은 1987년 4월 Su-27 邀擊戰鬥機의 식별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였으나,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번이 두번째의 Su-27 과의 遭遇로 된다.

어쨌든 Su-27이 실용단계에 도달하여戰力化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주목해야 할 세 종류의 新型戰鬥機 MiG-29, MiG-31, Su-27은 모두 이 1년 반 정도의 사이에 서방측 진영의 앞에 모습을 보여 정체가 확인된 것으로 된다.

美國空軍의 F-15나 F-16, 美國海軍의 F-14에 대항하는 신형전투기를 소련이 개발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1970년대 中盤에서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고, 개발 중인 전투기가 F-15나 F-16, 또는 F-14를 강하게 의식한 것일 것이라는 것도 西方側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소련 신형전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1979년 3월의 일이다. 미국의 航空宇宙專門週刊誌 <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AW & ST) > 1979년 3월 26일자에 想像圖와 기사가 掲載된 것이 최초였다. 이것은 모스크바 교외의 라멘스코이

군사지식

공군비행시험센터 上空에서 미국의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에 기초를 둔 情報로서 3종류의 신형항공기의 存在를 확인하였다.

라멘스코이 空軍飛行試驗센터는 미국 공군의 Edwards 기지에 상당하는 시설이다. 이 시점에서는 設計局이나機種조차 定着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공군 내부에서는 便宜上 이것을 「RAM-K」, 「RAM-L」 이라고 부르고 있다. RAM은 Ramenskoye의 Spelling 으로부터 세 문자를 취한 것이며, 그 다음의 알파벳은 확인된 순번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RAM-J는 미국공군의 A-10A 近接支援機와 유사한 근접지원공격기, RAM-K는 터보팬엔진, 雙發・雙尾翼으로 可變後退翼의 單座戰鬥機, RAM-L의 쪽은 Sukhoi의 雙發輕量戰鬥機일 것이라고 오로지 인식되었다. 그래서 RAM-K는 F-14, RAM-L은 F-18A를 강하게 의식한 전투기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RAM-J는 수호이 Su-25, RAM-K는 같은 수호이의 Su-27, RAM-L이 MiG-29라는 것이 확인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인 것이다. 1982년에 NATO는 이들 세 기종이 Frog Foot(Su-25), Flanker(Su-27), Fulcrum(MiG-29)이

라고 하는 Code Name 을 붙였다.

한편 MiG-31 Foxhound 는 한때 MiG-25M Fox Bat E와 혼동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찌감찌 캐구체적인 정보가 전해지고, 그 성격 등은 대체로 정확하게 把握되고 있었다.

2. 신형전투기의 위치

이들 신형전투기 트리오(Trio) 가운데 최초로 실용화된 것은 MiG-31이다. MiG-31이 防空軍에 配置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말 내지 '83년 초라고 생각된다. 아무한게리스크 防空管區의 邀擊戰鬥機部隊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약 150機の MiG-31이 방공군의 第一線에 배치되고 있다고 한다. 極東方面에도 배치가 확인되고 있다. 이 MiG-31은 MiG-25 Fox Bat의 發達型에 해당하는 전투기이며, 최대의 특징은 소련전투기에서는 처음으로 Look/Down/Shoot Down 능력을 갖추고 低空目標對處와 同時, 多目標處理를 실현한 데에 있다. 이 전투기의 레이더장치는 Pulse Doppler 방식을 채용, Look Down/Shoot Down 능력을 가지고 있고, 同時 搜索・追跡機能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一說에는 20개목표의 추적, 4

개 목표에 대한 同時攻擊이 可能하게 되어 미사일은 이 전투기 專用의 AA-9 Amos 를 4~5發 탑재한다. 이 AA-9는 미국해군의 F-14용 AIM-54 Phoenix 에 필적하는 크기의 대형 장거리미사일이다.

MiG-31 과 AA-9 미사일의 組合은 현재의 소련방공군에서 최고도의 邀擊武器시스템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분명히 B-1B 戰略爆擊機나 巡航미사일의 邀擊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MiG-31은 서서히 MiG-25 Fox Bat E와 交替가 진행 중인 듯하고, 앞으로는 방공군의 주력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전투기이다. MiG-31의 위치는 소련본토에 대한 중대한 危脅(B-1B 전략폭격기나 순항미사일)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요격전투기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본 전투기의 배치는 방공군만으로 한정되고 최종적인 配置機數는 많이 보아도 4백機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닐까?

같은 미코얀設計局의 MiG-29는 번호로는 MiG-31보다도 먼저이지만 새로운 개발의 전투기이기도 하고, 實用化는 다소 지연됐다. MiG-29의 부대배치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던 모양으로, 현재 3백機 이상이 第一線에

있다. 實用化는 다소 지연되었지만 配置機數로는 이미 MiG-31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MiG-29의 배치도 방공군이 우선취급을 받고 있지만, 1986년부터 시리아와 印度에의 供與가 시작된 일이 있으므로 空軍前線航空軍部隊에의 배치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MiG-29는 당초부터 F/A-18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機體의 구성은 오히려 F-14에 가깝다. 성격으로는 미국공군의 F-16에 대응하는 전투기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機體規模는 F/A-18과 거의 같은 크기이며, 성능상으로는 F-16과 동등 또는 약간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MiG-29가 F-16에 나은 점은 최대속도와 레이다미사일의 탑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MiG-29의 최대속도는 마하2.2급으로 추정되며, 이는 F-16A의 마하2.0플러스를 약간 상회한다. 마찬가지로, F-16A의 탑재미사일이 赤外線追跡方式인 AIM-9 Sidewinder인 것에 대해 MiG-29는 Semi-Active 레이다 유도방식의 AA-10 Alamo Missile을 2發 탑재하고 있다.

요약하면, MiG-29가 F-16과 싸워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일 것이라고 하는 점일 것이다. 물

군사지식

론 Comma 이하의 마하차이는 실용상 우선 문제가 되지 않으며, F-16C 이후는 AIM-120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MiG-29와 F-16은 거의 互角의 맞수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MiG-29는 空對空戰鬪를 제일로 고려한 쌍발단좌전투기이다. 분명히 對戰鬪機 戰鬪能力을 증시하고 있고, 소련의 단좌전투기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레이더의 Look Down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반면 對地攻擊機能을 重視하고 있는 느낌은 적다. 이 점에 대해서는 F-16과 對照的이다.

MiG-29는 방공군을 비롯하여 공군 前線航空軍에도 배치되어 MiG-21 Fish Bed와 MiG-23 Flogger의 후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투기이다. 이 MiG-29는 틀림없이 앞으로 소련공군의 主力戰鬪機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이나 기타 供產圈 諸國에도 널리 수출되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MiG-29는 동유럽 진영의 주력전투기로 浮上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MiG-29는 바로 서방측의 F-16에 대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의 수호이 Su-27은, 당초는

MiG-29보다도 개발이 先行되었다고 생각되었지만 실용화는 한 걸음 늦어졌다. 1986년이 되어서 가까스로 부대배치가 시작된 듯하다. 이 Su-27은 F-15에 거의 匹敵하는 大型戰鬪機이다. 수호이設計局의 系列에 속한다고 하는 데에서 처음에는 요격전용의 전투기라고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戰爆聯合編隊를 掩護하는 制空戰鬪機인 듯하다. 이 점으로 보아 미국공군의 F-15 또는 미국해군의 F-14에 대응하는 전투기라고 생각해도 좋다.

MiG-29보다도 대형으로서 강력한 機上레이더를 장비하고 있는 점이 사진으로부터 엿보이며, 미사일의 탑재수는 6~8發에 달한다고 보여진다.

탑재하는 미사일은 중거리 AA-10 Alamo와 근접전투용 AA-11 Aicher 등을 조합시킨 것이다. 본 전투기의 미사일 전투능력은 F-15와 거의 互角이거나 약간 하회하는 정도로 생각된다. 一說로는 신개발인 AA-10은 미국의 AIM-120 AMRAAM(신형 중거리공대공미사일)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라고도 말해지지만, Hughes 회사의 AMRAAM 담당기술자는 이說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AA-10은 AIM-7 Sparrow에 상당하는 半能動 레이더誘導方式의 중거리미사일이

기종 항목	MiG-29 (Fulcrum)	MiG-31 (Foxhound)	Su-27 Flanker	F-14A (Tomcat)	F-15C (Eagle)	F-16A (Fighting Falcon)	F/A-18A (Hornet)
주용도 실전배 치 승무원	대전투기 전투 1985 말 1명	요격전투 1982 년말 2명	요격전투 1986 년 1명	요격전투 1972 년 10 월 2명	대전투기 전투 1979 년 1명	대전투기 전투 /대지공격 1981 년 1명	요격전투/ 대지공격 1983 년 3 월 1명
엔진 연료탑재량 공중급유장치 최 대속도	tf×(2) 약 1,300갤론 없 음 M2.3/ 고고도	tj×(2) 약 4,600갤론 없 음 M2.4/ 고고도	tf×(2) 약 2,200갤론 ? M2.3+/ 고고도	tf×(2) 2,635갤론 있 음 M2.34/ 고고도	tf×(2) 2,098갤론 있 음 M2.5/ 고고도	tf×(1) 1,060갤론 있 음 M2.0/ 고고도	tf×(2) 1,512갤론 있 음 M1.8+/ 고고도
기 관 포 1R AAM Radar AAM	23밀리×1(?) AA-10/AA-11 ×(2~4) AA-10×(2)	없 음 AA-8×(2) AA-9×(4~6)	23 밀리 ×1(?) AA-10/ AA-11× (2~4) AA-10× (4~6)	20밀리×(1) AIM-9×(4) AIM-7/ AIM-54× (4~6)	20밀리×(1) AIM-9×(4) AIM-7×(4)	20밀리×(1) AIM-9×(2~4)	20밀리× (1) AIM-9 ×(2~4) AIM-7 ×(2~4)
Look Down 능력 동시 다 목표대처능력	있 음 ?	있 음 4 목표	있 음 있음(?)	있 음 6 목표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있 음 한정적
대지공격능력 무 장장착점	한정적 7개소	없 음 6~8개소	없음(?) 8개소	없 음 8개소	한정적 9개소	있 음 7개소	있 음 9개소

표 1. 미·소 신예전투기의 특징비교

기종 \ 항목	사격통제장치/탐지능력	적외선공대공미사일		기관포
MiG-21 bis Fish Bed N	Jay Bird/10NM	AA-8×(2)	AA-2-2×(2)	23밀리 Gsh-23
MiG-23 MF Flogger B	High Lark/45NM	AA-7(IR)/ AA-8×(4)	AA-7(SARH)×(2)	23밀리 Gsh-23
MiG-25M Foxbat E	High Lark/45NM	AA-7(IR)×(1), AA-8×(2)	AA-7(SARH)×(1)	없음
MiG-29 Fulcrum	Flash Dance/55NM	AA-8/AA-11×(4)	AA-10×(2)	23밀리(?)
MiG-31 Foxhound	? /165NM	AA-8×(2)	AA-9×(4~6)	없음
Su-27 Flanker	?	AA-8/AA-11×(4)	AA-10×(4)	23밀리(?)
YaK-38 Forger-A	없음	AA-8×(2)	없음	23밀리 Gsh-23

註 : ① AA-7 Apex, AA-8 Aphid, AA-9 Amos, AA-10 Alamo, AA-11 Archer,
AA-2 Atoll, AA-2-2 Advanced Atoll

② SARH(Semi-Active Radar Homing)

표 2. 소련전투기의 레이다와 탑재무장

라고 하는 모양이다. 또 Su-27 항공기 탑재레이더는 MiG-29 用의 Flash Dance 를 능력적으로 상회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지지만, 동시 수색·추적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설에는 조금 의문이 있다. 미국방성의 주장과 같이 F/A-18의 AN/APG-65 레이다 사격통제장치(Fire Control System)의 기술을 盜用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들 소련제의 機上레이다가 APG-65를 上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전략적 방공을 담당하는 MiG-31에 대하여, 野戰防空 및 航空優勢 - 制空權의 획득을 겨냥한 것이 Su-27의 임무일 것이다. 보다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방공군의 Su-21 Flagon E/F 나 MiG-23 MF Flogger-B/G 요격전투기를 대체하는 전투기라고 생각되며, 공군前線航空軍의 部隊에도 배치가 예상된다.

신형전투기 트리오의 대강위치만을 언급하였는바, 다음에 각각의 전투기의 구체적인 개요소개로 넘어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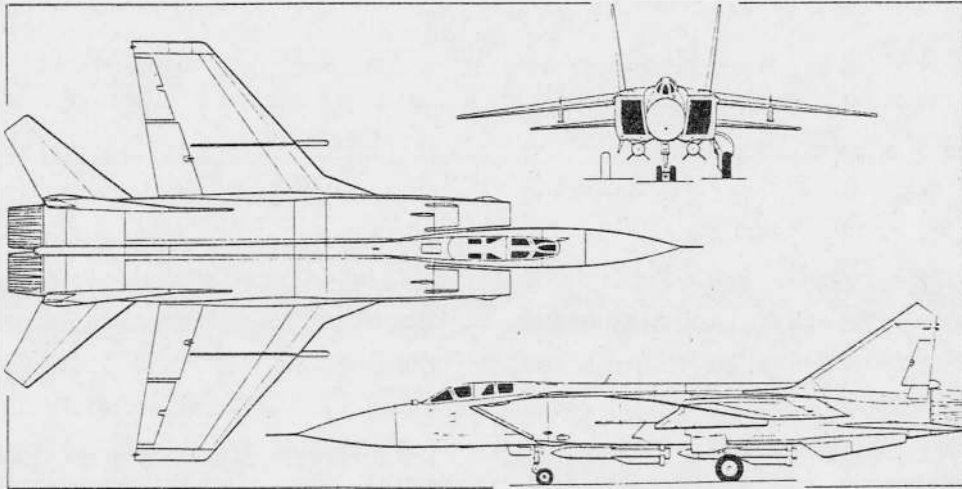
우선은 등장한 순서에 따라서 MiG-31부터 기술한다.

3. B-1B요격을 목표로 한 MiG-31

MiG-31은 MiG-25M Fox Bat E

로부터 발달한 요격전투기이다. MiG-25가 高高度領域을 비행하는 폭격기의 요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MiG-31은 순항미사일 등 低空侵入目標의 邀擊에 사용된다. 이 MiG-31은 소련전투기로서 최초의 완전저공 침투목표대처능력을 가진 전투기로서 1980년대 전반에 실용단계에도달했다. 서방진영 앞에 최초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85년 가을의 일이다. 노르웨이 공군의 F-16 전투기가 바렌츠海 上空에서 최초의 식별사진촬영에 성공하였으며, 이 사진은 1986년 2월에 공표되었다. 소련이 MiG-31의 개발에 착수한 정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970년대초 즉 MiG-25의 부대배치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미 그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미국공군의 B-1 전략폭격기 개발계획이 시작된 시기(1970년 여름)와 거의 일치한다.

당초의 B-1 개발계획에서는 그 제1 선부대에의 배치는 1980년대 초라고 생각되어 있었으므로, 소련에서의 MiG-31의 개발은 이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 개발계획 그것이 여러 차례 수정된 B-1과는 별도로 B-52G/H에서의 空中發射 巡航미사일의 탑재계획



MIG-31(AA-9
Amos 미사일탑재)

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도 MiG-31의 개발을 추진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간에 소련이 이 시기에 低空侵攻에 대해 유효한 요격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등장한 MiG-31은 서방측에서 한때 Super-Foxbat 라고 불려진 일이 있다. 이것이 MiG-25M Foxbat E와 혼동된 원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MiG-25M Foxbat E란 Fox Fire 사격통제장치를 High Lark(MiG-23MF Flogger B와 같음)로 바꾸는 것으로, 한정적인 Look Down 능력을 부여한 MiG-25P의 性能改良型이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약 3백機の MiG-25P를 M

형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미국측의 관측에 의하면 1985년까지에 이들의 개조를 거의 완료한 것 같다. MiG-31의 機体 구성은 Foxbat 계열과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複座化하고, 여기에 機上邀撃管制案員이 搭乘하여 무기시스템의 조작을 담당하게끔 한 것이 최대의 변화이다. 後方席의 설치와 관련하여 동체는 조금 연장되었다. 엔진은 MiG-25M Foxbat E와 같은 Tumansky R-31-300계열의 개량형이다. 기체중량은 MiG-25M 보다는 10% 전후 크고, 최대속도는 마하 2.4, 전투행동반경은 400~800해리라고 추정되고 있다. MiG-25와 비교할 때 저공에서의 요격전

투에 주안을 둔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서방측 진영이 MiG-31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기체가 소련의 전투기로서 최초의 완전한 Look Down /Shoot Down 능력을 갖고 저공침투목표에 대한 對處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추정으로는 MiG-31은 高度 200ft를 비행하는 레이더 反射面積 11평방미터의 소형목표를 20,000ft의 上空으로부터 擊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레이더 반사면적이 1평방미터의 소형목표라고 하면, 거의 순항미사일에 상당하는 크기이다. 이 경우의 미사일은 신 개발된 AA-9 Amos를 사용한다. MiG-31의 레이더사격통제장치는 Pulse Doppler 방식을 채택하여 거의 완전한 Look Down 능력을 가지며, 대체로 同時多目標對處能力을 具備하고 있다고 한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探索能力은 최대 165해리, 追跡거리 145해리라고 전해지고 있고, 20 목표에 대한 同時搜索·追跡機能이 있다고 한다. 또 AA-9 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4개목표의 同時對處가 가능하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AA-9은 美國海軍의 AIM-54와 거의 같은 크기의 미사일로, 最大射程距離는 25~40

海里, 慣性誘導 및 能動(Active)레이더 호밍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는다고 하면 MiG-31/AA-9 시스템은 F-14 정도의 동시다목표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MiG-31은 이 AA-9 미사일을 8發 搭載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지만, 이것은 능력의 과대평가의 느낌이 강하다. AA-9의 탑재숫자는 胴体下面에 4發과 主翼 Pylon의 2發을 합쳐 6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동체 아래 4발만의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해지고 있는 4개목표 동시대처능력 과도 符合한다.

여기에서 總括한다면, MiG-31/AA-9 시스템은 저공침투하는 B-1B 전략폭격기로부터 高高度, 高速侵入의 SR-71 戰略偵察機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며, 순항미사일을 요격까지 할 수 있는 소련 最高의 防空시스템이라고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MiG-31의 實戰配置가 시작된 것은 1982년 후반이라고도, '83년 초기라고도 말해지고 있으며, 먼저 방공군 아루한게리스크 防空管區의 邀擊戰團機部隊로부터 배치가 진행되었다. 美國防省 刊行의 <Soviet Military Power> (1987)에 의

군사지식

하면 현재까지의 배치기수는 150기 이상으로 되어 있다. 아루한게리스크 지역에 이어 極東方面에의 배치도 시작된 듯하고, 사할린의 도린스크에 MiG-31 1개飛行隊가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 극동방면의 MiG-31의 배치에 대해서는 「防衛白書」에도 기술되고 있다. 日本防衛廳에서도 본 전투기의 배치를 확인하고 있다.

MiG-31은 소련방공군에서 획기적인 요격전투기라고 높이 평가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틀림이 없다. 미국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순항미사일을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소련에 있어서 MiG-31과 AA-9 미사일의 존재는 극히 크다고 할 것이다.

B-1B에 對應하는 尖兵, 이것이야말로 MiG-31의 使命이며, 本 戰鬥機의 存在意義는 이 점에 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4. 主力戰鬥機 MiG-29

MiG-29 Fulcrum은 미국기의 예를 든다면, F/A-18 Hornet에 상당하는 雙發의 單座戰鬥機이다. 이 MiG-29機의 기본적인 諸元에 대해서 <Janes 航空機年鑑> (1987版)은 全幅 11.5m, 全長 17.2m, 自重 17,250 파운드, 總重量 36,375 파운드로 추정하고 있다.

이 추정은 F/A-18과 比較하여 自重이 조금 넘는 것처럼 생각되며, MiG-29의 運用自重은 최소한 25,000 파운드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F/A-18의 운용자중은 23,050 파운드라고 발표하고 있고, 이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MiG-29의 自重이 20,000 파운드 이하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最大離陸重量은 45,000 파운드 전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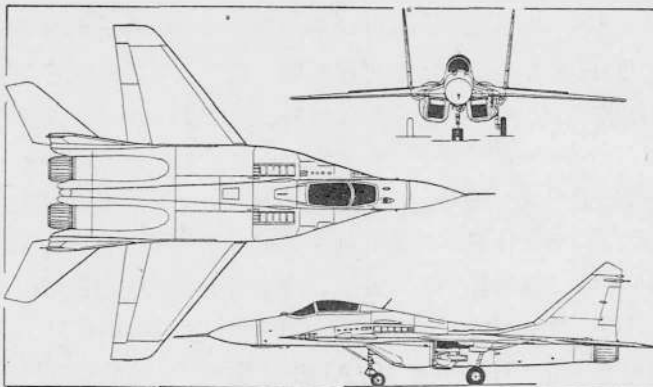
MiG-29에서 주목되는 것은 機體의 構成이 수호이 Su-27과 類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코얀, 수호이 兩 設計局이 TsAGI의 이름으로 알려진 中央航空力學 研究所로부터 각종 기초데이터의 제공을 받아 機體設計에 그 결과를 反映시킨 결과라고 관측되어 있다. 수호이 Su-27은 MiG-29보다도 대형의 기체이지만, 尾翼配置를 포함한 기본설계는 분명히 MiG-29와 공통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분명히 F-14의 영향을 받고 있다. 평평한 바닥의 胴體를 좌우의 엔진 Nacelle에 끼워넣도록 한 MiG-29의 구성은 확실히 F-14 그대로이다. 그래서 MiG-29가 F-14의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MiG-29에는 여러 곳에 F-14를 참고한 자취가 보여지

만, 主翼平面形의 선형이나 Blended Wing Body 등 분명히 다른 부분도 많다. 거기에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의 풍부한 Know-how의 축적도 있다.

MiG-29의 엔진은 낮은 Bypass比의 Afterburner 附着 터보팬 Tuman-sky R-33D를 2基 장비하고 있다.

이 엔진은 Afterburner(後期燃燒機) 사용시의 推力이 18,300 파운드라고 추

정되며, F/A-18의 F-404 엔진과 거의 同級의 성능이다. MiG-29는 또 소련의 전투기로서는 최초로 터보팬 엔진을 실용화한 機體이다. 空氣吸入口는 마하2 이상의 速度性能을 얻을 수 있는 可變式을 채용하고 있지만, 극히 독특한 FOD 防止機構가 서방측 항공관계자의 큰 注目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FOD(Foreign Object Damage)란 異物 吸入에 의한 엔진



소련 방공군의 주력전투기인 MiG-29 Fulcrum

군사지식

손상을 말한다. MiG-29의 FOD 방지기구는 地上姿勢에서는 항상 공기흡입구를 닫고 이 사이 엔진으로의 공기공급은 主翼前緣付着根(Leading Edge Root) 部に 설치된 보조흡입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一說에는 飛行試驗段階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채택된 機構라고 말해지지만, 진상은 불명확하다.

이 MiG-29는 機首에 Pulse Doppler 레이더방식의 高性能레이더 射擊統制裝置를 장비하고 있고, 全天候條件下에서 低空侵入目標에 대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本전투기의 사격통제장치는 NATO Code Name 으로 Flash Dance 라고 부르는 듯하며, 완전한 Look Down/Shoot Down 능력이 있다. 다소 의문이기는 하지만, 수색 중에도 추적을 계속할 수 있는 동시 수색·추적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lash Dance 의 探知距離는 55 海里, 추적거리는 45 해리, 신형 AA-10 Alamo 중거리사정 레이더유도미사일의 제어능력이 있다고 한다. 탐지거리 55 해리라고 한다면, F-16A 의 AN/APG-66 레이더 사격통제장치에도 충분히 匹敵하는 性能이다.

MiG-29의 무기시스템을 구성하는 또하나의 센서에 赤外線探知裝置(IRST)

가 있다. 이 IRST(Infrared Search & Track)는 受動探知센서이며, ECM(Electronic Countermeasures) 상황하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똑같은 IRST가 MiG-25M, MiG-31 에도 장비되어 있고, 소련 요격전투기의표준적인 센서機器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소련이 IRST를 重視하는 것은, 강력한 自己防禦用 電子戰裝備에 더하여 Stealth(秘匿性)이 우월한 B-1B 전략폭격기의 요격을 생각해서의 일이라고 전해진다.

MiG-29의 탑재무기는 空對空미사일 3종류와 固定裝備인 기관포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標準武裝은 AA-10 2發과 AA-11 4發, 또는 AA-7 Apex 2發과 AA-8 Aphid 4發을 組合시킨 것이다. 이 MiG-29는 레이더유도의 중거리사정미사일에 의한 可視距離 밖의 원거리전투능력을 가진 機體이다. MiG-29의 최대속도는 마하 2.2 라고 추정되고 있다. 可變式 吸入口를 가진 이 전투기는 분명히 마하2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속도성능에서는 F-16이나 F/A-18을 上廻하는 機體이다. F-16이나 F/A-18 등의 미국전투기와 싸워이길 수 있는 것을 至上命題로 하는 MiG-29

는, Mach 2 이상의 속도성능을 어떻게 해서라도 달성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일 것이다.

MiG-29는 또 推力重量比가 확실히 1을 上廻하는 機體이다. 추정치를 기초로 계산한 本 전투기의 추력중량비는 거의 1.22로 된다. 여기에서 최신의 미국전투기와 맞수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機體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비행성능만으로 비교한다면 MiG-29는 F-16이나 F-18보다 낮고, 무기시스템까지 포함한 綜合戰鬥能力面에서는 미국기가 더 優位에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MiG-29의 實戰配置는 1983년경부터 시작하여 '85년에는 戰力化의 段階에 이른 것으로 된다. 本 전투기의 부대배치는 먼저 防空軍부터 시작되었으며, 海外에서는 NATO陣營과 對峙하고 있는 東獨에 가장 먼저 배치되었다. 현재는 極東地域에도 배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MiG-29는 MiG-21 Fish Bed 後期型, 수호이 Su-15 Flagon 및 MiG-23 MF Flogger B/G 등의 後繼機로 되는 機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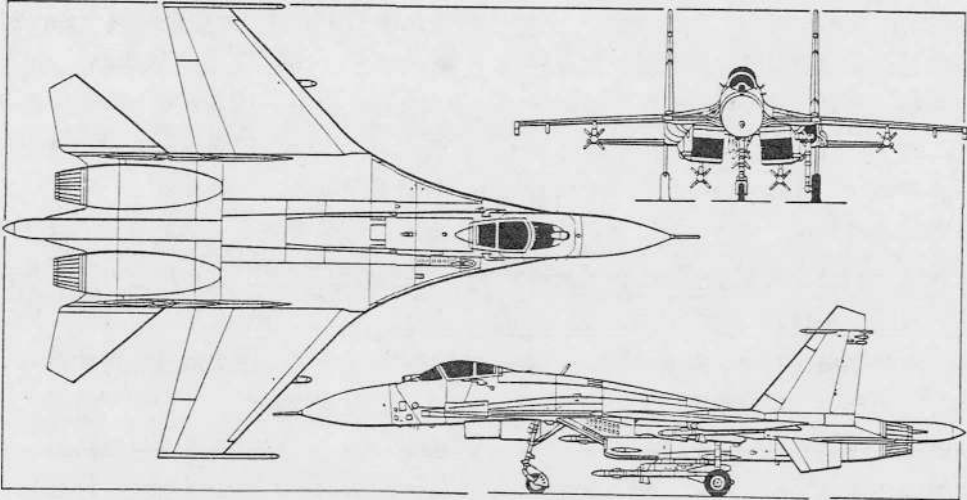
1980년대 이후의 소련공군의 主力 戰鬥機 이것이 MiG-29일 것이다.

5. F-15 級의 大型戰鬥機 Su-27

수호이 Su-27은 당초는 可變後退翼으로 全幅 12.5m(主翼後限時), 全長 약 20m, 總重量 6만 파운드級의 雙發戰鬥機라고 추정되고 있었다. 물론 그 한편으로 主翼을 고정식으로 하는 說도 있고, 單座인가 複座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도 의견이 紛紛하였다. 실제로 固定翼과 可變翼의 양쪽을 試驗製作하여 比較를 행한 결과 오늘날의 모습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說도 있다. 개발담당도 당초는 Mikoyan 設計局이라고 하는 見解가 유력했었다. 이 機體가 Sukhoi 設計局의 擔當으로 制式名稱을 Su-27이라고 부른 것이 判明된 것은 1982년의 일이다. 이미 이 時點에서는 Su-27이 미국공군의 F-15와 같은 범위에 속하는 대형전투기로 최대속도 마하 2.3급, 주익은 고정식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本戰鬥機의 성격은 低空侵入 目標對處能力을 가진 全天候戰鬥機로 보고, 對地攻擊能力을 합쳐 가진 機體라고 추정하였었다.

이 Su-27의 實體가 노르웨이 공군이 1987년 4월에 공포한 사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바와 같이, 機首의 큰 레이돔에 고성능의 機上레이다장치를

군사지식



Su-27 flanker

장비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전체적인 印象은 MiG-29와 잘 닮았지만, 분명히 대형의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空對空미사일을 6~8發 搭載할 수 있는 雙發·雙垂直尾翼形式의 大型 單座戰鬪機이다. Jame 航空機年鑑의 推定에 의하면, Su-27의 諸元은 全幅(Wing Span) 14.5~14.7m, 全長(Overall Length) 21.0~21.6m, 最大 離陸重量 44,000~60,000 파운드에 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국국방성에서도 거의 같은 식으로 推定을 하고 있지만〈Soviet Military Power〉(1987)에서는 전장이 20m 이하로 변경되었다. 전폭도 여기에 상응하여 소폭으로 수정되었다. 實機의 사진을 보아도 아늑게 아니라 全長이 20m를 넘는 大型戰鬪機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精確한 推定은 아니지만, 總重量도 50,000 파운드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본 전투기의 기체규모에 관한 지금까지의 西防陣營의 推定은 어쨌든 과대추정일 가능성이 높다.

前衛한 바와 같이 Su-27의 기본적인 구성은 MiG-29와 아주 비슷하며, 분명히 對戰鬪機 戰鬪를 重視하고 있는 점이 엿보인다. 엔진은 推力 30,000 파운드級의 터보팬으로 Tumansky R-31의 개량형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 機體가 MiG-29와 같이 추력중량비가 1을 上廻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단지 엔진의 추력이 30,000 파운드級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평가로 보인다. Su-27이 MiG-29보다도 대형으로 고성능인 機上레이다를 장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지만, 그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一說에는 同時 探索·追跡機能을 가지고 探知距離는 130 海里, 追跡距離 100 海里라고 한, 당연한 숫자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레이다의 탐지능력은 어디까지나 탐재하는 미사일의 射程距離에 적합한 것이 필요하며, 탐지거리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100 해리를 초과하는 탐지능력은 미사일의 추적성능에 비하여 분명히 과대하다.

Su-27의 機上레이다는 MiG-29의 Flash Dance를 機能的으로 약간 上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搭載하는 미사일은 중거리사정거리를 갖는 AA-10과 近接戰鬪用의 AA-11의 組合이다.

미사일의 탐재수는 6~8發이라고 보여지며, 미국 국방성에서는 6發로 推定하고 있다. 또 노르웨이 공군이

군사지식

표 3. 소련의 연도별 군용기생산수

년 도 기 종	1980	1983	1984	1985	1986
폭 격 기	30	35	50	50	50
전투기/전투폭격기	1,300	950	800	650	650
수 송 기	350	250	250	250	200
대 잠 기	10	5	5	5	5
헬 리 콥 터	750	550	600	600	500
훈 련 기 외	325	10	10	0	55
합 계	2,765	1,800	1,715	1,555	1,460

遭遇한 Su-27은 AA-10을胴体와主翼下面에 총 6發 탑재하였다.

AA-10은 AA-7의 後繼로 되는 중거리사정거리를 갖는 Semi-Active (半能動) 레이다유도미사일이며, 최대 사정거리는 20~25 海里 (Nautical Mile)이다. 저공목표에 대처하는 Shoot Dnwn 사격이 가능하게 되어 유도방법을 赤外線追跡方式으로 한 것도 있다. 機關砲裝備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口徑 23 밀리級의 것을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Su-27의 성격이나 용법은 별로 명확하지 않지만, 邀擊戰鬥뿐만 아니라 戰爆聯合編隊의 掩護— 美國海軍式 表現으로는 TARCAP— 등을 제일로 고려한 기체일 것이다. 적어도 당초

에 생각하였던 요격전투전용의 기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6. 비행성능면에서 우월한 소련기

이들 세 종류의 소련제 신형전투기가 1980년대 초부터 中盤에 걸쳐 實用化된 것은 이미 說明한 바와 같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은 197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미국 군용기개발과 배치계획을 거의 그대로 추적하여 충실히 模倣한 것이다. 즉 B-1B 전략폭격기나 순항미사일에 대처하여 MiG-31을 개발하고, F-14로 시작되는 일련의 신형전투기에는 MiG-29와 Su-27로 대응한다고 하는 공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iG-29나 Su-27이 對戰鬥機 戰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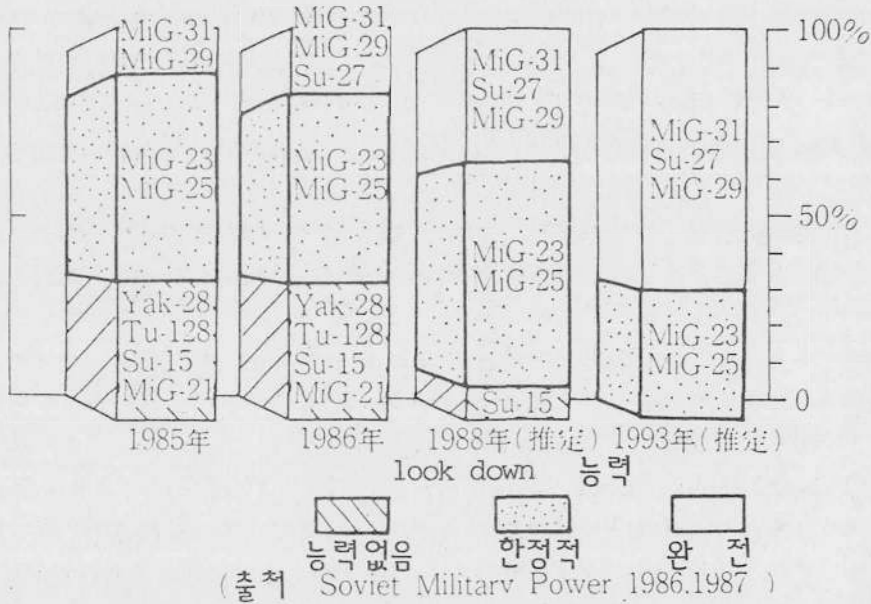


그림 1. 소련 전투기의 레이더 능력 비교

能力과 低空侵透目標의 對處能力을 重視하는 機體로 된 必然性이 이해된다. 비록 體制나 思想이 근본적으로 달라 도 과학기술의 이론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얻을 수 있는 해답은 같다.

같은 理論에 根據하여 더욱 목표하는 바가 같다면 완성된 機體는 거의 같은 것으로 된다. 따라서 MiG-29 나 Su-27 과 F-14 의 사이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도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다.

MiG-29 나 Su-27 의 외형은 상응하는 이론적 뒷받침아래 결정되었다고

생각해야 하며, 美國戰鬪機의 單純한 模倣은 아니다. 소련은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戰鬪機 開發歷史를 지니고 있고, 技術基盤이 確立되어 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 반면, 레이더나 무기시스템 분야에서는 소련이 미국에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도 명확하다. 소련은 물론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弱點을 克服하기 위해 全力을 投入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미국技術의 盜用이라고 한 탐정소설 비슷한 이야기가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군사지식

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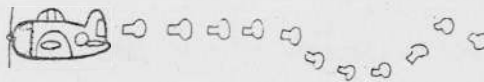
F-18 용의 APG-65 레이더의 技術 濫用의 眞僞는 어쨌든, 電子工學技術面에서 소련이 뒤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세 종류의 소련 신형전투기의 아킬레스 힘줄(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소련전투기의 레이더 능력을 개념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出處는 미 국방성 刊行의 < Soviet Military Power >이다. Look Down 能力을 가진 機體가 해마다 增加傾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다. 그래도 미국이 Look Down/Shoot Down 能力에 보태어 同時 多目標對處能力을 가진 F-14 용

의 AN/AWG-9 시스템이 1970 년대 초에 실용화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10년 이상의 技術隔差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에 넣는다면 戰鬥 機로서의 總合能力에서 역시 미국의 위치는 確固不動하다. 그러나 MiG-29와 Su-27로 대표되는 신시대의 소련전투기는 敵으로서 볼 경우 충분히 강력한 상대로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어떻든 1990 년대의 美·蘇 空軍力의 對決은 F-15/F-16 對 MiG-29/Su-27이라고 하는 構圖로 보여질 것이 틀림이 없다.

(참고문헌 : '87.11 軍事研究 新戰鬥 機 イリオの能力と 運用コンヤブド)



공군과 육군 그리고

1990년대의 전장

- 美 공군대장 Robert 장군의
Defense 지 원고 번역문 -

공군과 육군 간의 협력은 1946년 Carl Spaatz 장군과 Dwight D. Eisenhower 장군 간의 약속에 의한 합의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군이 독립시 최초의 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스파츠 장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전술공군사령부를 창설할 것과 2차대전 중 육군항공단이 전장에서 제공한 것과 같은 정도의 항공지원을 육군에게 약속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와는 매우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다. 즉, 전술공군의 모든 활동은 육군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적기를 격추시키거나 전차공장을 파괴하거나, 증원군을 공격하거나 전선에서 장갑차량을 케멸시키거나 간에, 전술공군의 목적은 아 지 상군에게 전장에서 우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령 금기연
(합참전략국)

공사 21기로 임관하여 미 해군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전투비행대대 및 비행교관을 거쳤으며, 연합사 정보참모부 정찰장교를 역임했다.

미국역사상 위대한 두 장군 간의 합의가 있는 지 40년이 지났지만 육군과 공군의 관계는 계속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육군은 공군에게 그들의 기동계획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군의 역할을 통보하며,

군사지식

공군은 이에 따라 육군의 목표달성에 적절한 전술공군을 제공한다. 아주 최근 우리는 공지전투교리(Air-Land Battle Doctrine)에 기술된대로 치명적이고 유동적인 1990년대의 전장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및 항공후방차단/전장항공차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공지전투교리를 개발하면서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는 우선 1990년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장을 설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지상군이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전략을 발전시켰다. 이 결과 그들은 공지전투교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항공후방차단, 특히 전장항공차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근접항공지원과 항공후방차단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전투기의 소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공지합동작전

공식합의

우리가 현재 운용 중인 A-10 항공기가 이러한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군과 육군은 후속 근접항공지원기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1985년 양 군 참모

총장 및 장관이 이를 위한 합동각서 (Joint Memorandum)에 서명하였다. 이 각서는 후속근접항공지원기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동항공기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임무수행을 위해 어떤 성능을 구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양군 간의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육·해·공군 간 합동노력을 성공적으로 이끈 군 간 협력분위기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의 현용 근접항공지원전력의 주력기인 A-10은 1970년대의 육군전투교리가 요구한 “적극방어” 환경에서 운용되도록 개발되었다. A-10은 그러한 임무에는 매우 적합하였으나, 그 이후 소련은 전투수행전략을 수정하고 선진기술로 그들의 장비를 개선시켜 버렸다.

공지전투교리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 기본철학은 적이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하고, 적이 전방지역 지상에서의 숫적 우세와 공중우세 획득을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다. 소련의 교리는 우군이 방어진지를 보강하기 전에 우리의 후방 깊숙이 전진할 것을 요구하며,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결코 전선을 통과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지전투에서 항공후방차단이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공지전투에서는 근접항공지원 및 전장항공차단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부각되는 것이다.

비선형 전장

1990년대의 전장은 유동적이고 비선형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선도 수시로 앞, 뒤로 조정될 것이며, 혼란스럽고 또 매우 치명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 상공을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선형 전투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전사어나 나오는 애기가 될 것이다. 육군지휘관은 근접항공지원요청을 전선지역뿐만 아니라 적 지역 깊숙한 곳에까지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전선후방에 위치한 시간에 민감한 (Time Sensitive) 표적을 탐지·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접항공지원용으로 통상 예비해두는 항공기를 통상적인 항공후방차단,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장항공차단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근접항공지원은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하고, 융통성과 생존성을 구비해야 한

군사지식

다. 또한 초기의 전장환경에서 A-10을 그토록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전차격파능력과 단 1회로 공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하며, 전천후 주야간능력도 있어야 한다.

현재 새로운 근접항공지원임무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 선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후속항공기는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가 될수도 있으며

기존무기체계의 개조형이 될 수도 있다.

대응성 (Responsiveness)

후속근접항공지원기로 어떤 항공기를 선정하든 간에 즉각대응성은 매우 중요하다. 대응성은 공군이 근접항공지원전력으로 높은 출력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군의 근접지원작전

우선 고장률이 낮아야 하며, 일단 고장이 나더라도 빨리 수리가 가능한 항공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임무를 끝낸 뒤 다음임무로 빨리 재출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필요로 한다. 신뢰성이 높고 정비가 용이하지 않으면 후속근접항공지원기는 즉각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용 통 성

지휘관들은 최전방에서의 전통적인 근접항공지원임무는 물론 적후방의 표적도 공격하도록 요청할 것이므로 융통성이 중요하다. 후속근접항공지원기는 재래의 근접항공지원과 전장항공차단 임무도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관포 외에 재래식폭탄, 유도폭탄(GBU), 확산탄(CBU), 매브릭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필요로 하며, 때로는 바로 인접해서 작전 중인 우군병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외과수술의 경우와 같이 정확하게 이들 무장을 투하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무장투하는 단 1회로 공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준다. 원하는 정확도를 얻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다. 왜냐 하면, F-16 등의 신예항공기로 우리는 이미 원하는 정확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A-10은 오늘날 최전선에서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나, 공지전투가 규정하는 새로운 근접항공지원 역할에서 요구되는 융통성은 결여되어 있다. A-10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전투환경, 즉 비교적 안정된 전선과 안전하게 기동하고 작전할 수 있는 우군후방지역을 전제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A-10은 전천후나 야간작전용 전차/항법장비가 없으며 최전선 후방의 고밀도, 고위험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작전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민첩성도 결여되어 있다. 침투속도와 지속적 선회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추력을 증강시키려 할 경우엔 20%의 속도증속을 위해 200% 이상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 이렇게 되면 작전반경과 전투지역내 체공시간에 제한이 뒤따르게 된다. 또 속도를 20% 이상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A-10은 효과적인 항공기가 될 만큼 빨라지지는 않는다.

그대신 우리의 A-7의 개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A-7은 디지털 항법장비를 갖춘 능력이 탁월한 기종으로서, 새로운 항공기의 반값으로 장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하다. 개조할 부문은 후기연소장치가 있는 터보팬 엔진과 개량된

군사지식

통신장비, 야간항법 및 공격용 전방감시적외선체제 (FLIR), 광각 전방전시 (Wide-Field-of-View Heads-up Display) 체제, 자동지형추적레이다, 인공위성항법체제 (Global Positioning System), 그리고 전차격파용 30밀리 기관포 등이다. "A-7F"라 불리는 이 항공기는 우리의 정비·군수체제에 매우 적합하며, 개조결과 신뢰성과 정

비성도 높아질 것이다. 사사업비용도 저렴하여 A-7기종을 유사한 신기종으로 대체하는 비용의 약 절반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7F 시제기의 시험비행은 '89년 5월에 시작될 것이며, 성능 및 비용이 기준치를 충족시킬 경우 실전배치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A - 10 과 A - 7 성능비교

성능 \ 기종	A - 10	A - 7
최 초 비 행	1972. 5	1965. 9
단 가	790 만불	790 만불
최 대 속 도	390 KTS	606 KTS
순 항 속 도	300 KTS	470 KTS
전 투 행 동 반 경	540 NM	585 NM
승 무 원	1	1
기 총	30 mm × 1	20 mm × 1
최 대 무 장 장 착	16,000 LBS	15,000 LBS
유 도 탄	AIM - 9, AGM - 65	AIM - 9, AGM - 65
기 폭	57' 6"	38' 9"
기 장	53' 4"	46' 2"

생 존 성

1970년대 이후 근접항공지원기에 대한 위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소련

이 그들의 탐지 및 대공능력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후속근접항공지원기는 전통적인 근접항공지원 운용시에는 전

혀 예상하지 못했던 적전선 후방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접항공지원과 전장항공차단을 모두 안전하게 수행하고 귀환할 수 있는 항공기를 필요로 할 것이다. 생존성 문제에 있어서 주목적은 적탄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속도와 기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성상 항공기 속도가 빠를수록 적이 이를 탐지·포착할 시간이 적어진다. 만약 적이 탐지·포착하기에 충분한 장시간동안 노출되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항공기의 기동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경우엔 적이 격추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적이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선회를 빨리할수록 안전해지므로, 고도로 밀집된 지대공유도탄과 대공고사포가 주위협이 되는 전선후방에서는 속도와 기동성이 특히 중요하다.

오늘날 운용되고 있는 신형항공기와 전자/항법장비는 상당한 피격회피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조종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체제들-항법 및 감지기 해석체제 (Sensor Interpretation) 와, 기타 위협경고 및 전자방해체제 등-은 조종사로 하여금 위협에서 벗어나 피격되는 일이 적도록 해 준다.

피격에 대한 내성

주어진 상황에서 피격회피수단이 충분치 못하거나, 어리석게 고밀도·고위협 환경에서도 우리의 피격회피수단이 충분하다고 믿을 경우 후속근접항공지원기는 피격을 당하고도 무사히 귀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기 설계 및 제작사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이룩한 공학 및 재료상의 첨단 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전투기는 피격을 당하고도 생존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무게를 더하지 않으면서도 놀랄 만큼 강도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합금과 벌집구조 및 복합소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탄소복합소재가 아주 좋은 예가 되겠는데, 이 물질은 강철보다 강하고 티타늄보다 견고하면서도, 알루미늄 무게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부식도 되지 않고, 금속보다도 더 쉽게 항공역학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피격시 자동밀폐가 되는 유압계통은 새로운 항공기의 커다란 장점이다.

이 계통은 유압선이 파괴되었을 때 압력차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밸브를 차단,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압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

군사지식

에 고압공기계통을 작동시켜 유압계통의 보조역할을 담당케 한다.

우리는 또한 거의 모든 주요계통에 대해서 예비장치를 갖추고 있다. 날개구조와 동체는 주요부분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비행이 가능하게끔 설계하였는데, 한 예로 F-16은 조종계통통제를 위해 7개의 독립된 전기계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의 사용은 아마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항공기의 내구성에 도움이 되었다. 연료관리, 엔진, 무장투하 및 조종계통 등을 관장함으로써 컴퓨터는 조종사가 위협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조종계통 제어컴퓨터가 없다면 정상비행시에도 F-16을 제대로 비행하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 하면, 설계 자체가 비행 중 항공역학적으로 불안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후속근접항공지원기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탁월한 기동특성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또한 조종계통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된 기계적인 장치와 철선, 크랭크 등을 전선문치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면적과 부피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이들 계통의 예비장치를 쉽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4개의 독립된

채널이 각각 다른 경로로 조종계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번의 피격으로 4개의 채널이 모두 파손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게 될 것이다.

“총명한” 조종계통 제어컴퓨터 덕분에 수년 전만 해도 항공기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오늘날의 전투기는 비행이 가능하다. 항공기가 피격을 당해 주요조종계통이 손실되더라도 컴퓨터가 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종을 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코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은, 비행 중 나무와 충돌하거나 항공기끼리 충돌하여 심한 손상을 입고도 귀환한 예가 몇 건이나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표적식별

적의 방어가 향상되었으므로 단1회 공격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차기 근접항공지원기의 주요특성이 되어야 한다. 현대의 기술은 이점에 관해서도 전망이 밝다. 미 공군과 육군은 합동연차계획으로 표적식별 및 위치확인용 전장감시체제를 야전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 공중경보 및 통제체제(AWACS) 항공기는 전방에서의 항공우세요구에 부응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공중전을 위한 AWACS 처럼, 지상전을 위해서도 합동감시 표적공격 레이다체계 (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가 곧 운용될 것이다. 이 체계는 개조된 보잉 707 항공기에 고성능레이다를 탑재하여 전장지역 밖에서 안전하게 제공하면서 적 영토내 중심 깊은 곳을 탐지하게 되며, 차륜차량과 궤도차량까지 구분하여 표적정보를 전술공군통제소와(TACC) 현재 야전배치 중인 육군지상수신소에 보내 주게 된다.

우리는 첨단전술항공정찰장비(Advanced Tactical Air Reconnaissance System)를 우리의 유인침투기와 무인항공기(Drone)에 탑재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본질상 고성능 비디오카메라와 부속 컴퓨터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찰비행 후 조종사나 무인기가 정찰 자료를 지상수신소에 공중에서 직접 전송시키게 된다. 자료를 공중에서 직접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필름을 현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야전지휘관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거의 실시간 영상제공이 가능하다.

합동감시 표적공격 레이다체계와 첨단 전술항공정찰장비 등의 향상된 정보능력으로 인해 전구사령관은 처음으로 전선후방의 적이 최전선으로 이동

하여 우군과 교전상태에 들기 훨씬 이전에 이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의 실시간에 전파되는 표적자료는, 이러한 체계가 없을 경우 지휘관이 알기 전에 멀리 이동해 버릴 수도 있는, 시간적으로 민감한 표적에 대한 공격도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감시체제로 공중전투에서 요구되는 전술공군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술공군 통제체제의 개선이 불가피해진다. 전술공군통제체제는 현재상태로는 실시간 정보자료를 다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긴급근접항공지원과 기계화된 전장항공차단임무를 일부 다시 수행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24~48시간의 계획주기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체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는 전구지휘관이 시간적으로 민감한 표적에 대해 신속히 결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값진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술공군통제체제에 부여해야 된다. 적상황 연계컴퓨터(Enemy Situation Correlation Element)로 이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적상황 연계컴퓨터는 전술공군통제본부에 주로 이용하는 대형컴퓨터체제로서, 여러 곳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적

군사지식

사단의 구성·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지구지휘관에게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전지구지휘관들은 적의 공격지점을 결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시키게 된다.

최대의 이점은 전선 후방지역에서 생기는바, 이곳에서 우리는 적의 계획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을 공격하여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게 된다. 공군은 또한 대지공격통제능력체제 (Ground-Attack Control Capability)라 불리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전장항공차단 임무시 시간에 민감한 표적에 대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지공격통제능력은 적 상황 연계컴퓨터의 방대한 기본자료와 합동감시 표적공격 레이더체계로부터 입력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신속히 표적을 결정, 전선후방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게 된다.

표적획득(Target Acquisition)

이러한 여러 가지 체제들을 통해 근접항공지원조종사들은 긴급표적을 알게 되며, 항공기에 탑재된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이들 표적에 대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식별 및 획득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몇

가지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조종사는 주야간, 전천후 조건에도 아주 정확하게 저고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인공위성항법체제와 같은 극도로 정확한 항법체제와 지형추적장비(Terrain Profile Matching System)를 결합시키면 항공기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지상에 충돌하지 않고 저고도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야간이나 악천후상태의 비행을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몇 가지 전방감시적외선레이다(FLIR)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들 장비를 이용하면 칠흠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간 임무시와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는 저고도비행이 가능하게 된다.

근접항공지원조종사는 고도로 정확한 항법체제와 함께 표적을 적시에 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장비를 필요로 한다. 현재 육군은 자동표적입력체제(Automatic Target Hand-Off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전방항공통제관(FAC)이나 육군지휘관이 표적 위치를 결정하여 직접 공격기의 항법 장비에 좌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비화 무선기로 전달하게 된다. 이것을 이용하면 조종사가 표적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공격위치로 기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더 많이 갖

게 된다.

일단 조종사가 표적을 발견하여 식별이 이루어지면 오늘날의 전투기에 탑재된 장비는 대부분의 조건하에서 첫 공격시 탁월한 정확성을 발휘한다.

최근의 공대지사격대회에서 F-16은 6발의 폭탄을 투하, 그 중 5발을 전차포탄에 명중시킨 적도 있다. 이런 정도의 정확도와 함께 전방감시적 외선레이다, 자동표적입력체제, 인공위성 항법체제 등이 결합될 경우 후속근접 항공지원기의 1회 공격효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육군에 대한 지원

“지원”이 근접항공지원의 핵심단어이다. 근접항공지원은 전구지휘관이 지상전을 수행해 나가는 많은 무기 중의 하나이다. 육군은 자체의 전투 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장래의 전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장특성으로부터 항공기 소요를 도출해 내고, 육군을 지원하여 공지전투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군의 임무이다.

육군과 공군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매일 같이 일하고 있다. 근접항공지

원문제를 다루면서 공군은 육군이 고심하여 발전시킨 전투교리를 공군의 제한사항 때문에 조정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다. 사업개시 이래 줄곧 우리는 1990 년대의 전장에서 육군이 우리에게서 필요로 하는 모든 역량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여 왔다. 육군과 공군은 후속 근접항공지원기가 즉각 대응성과 융통성, 그리고 생존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상에 무관하게 24 시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 후속기는 다양한 전술무장을 장착해야 하며, 매우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젠하워 장군과 스파츠 장군이 공군탄생 전야에 악수를 한 이래 우리는 머나 먼 길을 걸어왔다. 비록 2 차대전시의 기술수준이 오늘날 양 진영의 수준에 비해 한없이 낮기는 하였지만, 전쟁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전쟁에서의 성공은 육군과 공군 간의 팀웍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후속근접항공지원항공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되어 온 육군과 공군 간의 협력은, 우리의 해묵은 공격전력을 교체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란 - 이라크전

그 내막은 무엇인가?

I. 들어가는 말

2차대전 이후, 아랍세계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의 결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하였다. 민족이 분열되자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미숙한 정치권력의 등장은 경제적으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와 대중의 불만이 편만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아랍세계는 냉전체제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는 보수와 급진세력이 대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1971년부터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회담을 벌여,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전이 막을 내렸으나 이집트는 아랍세계에서 고립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이란에서 종교혁명이 일어나자 친서방진영의 축이 붕괴되었다. 이에 소련의 남하정책은 용이해졌으며, 미국은 이란을 대신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를 페르시아만 안정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었다. 페르시아만



중위 이태영

(공군사관학교)

61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외국어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아랍문학을 전공했다.

사후 82기로 임관하여 현재공사 외국어과 교관으로 근무중이다.

국가들은 이란의 쉬아파 이슬람혁명의 수출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이라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란과 대치하게 되었다.

'80년 9월 샤프트 알 아랍 수로 문제로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이라크를 지원하여 쉬아혁명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고, 쉬아파 강경 아랍국들인 리비아와 시

참호속의 이란군



리아만이 이란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즈만 해협을 봉쇄할 태도를 취하자 미국은 석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란과의 무력대치 속에서 전면전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란은 무차별 유조선 공격을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말았다.

'88년 7월, 미국의 이란기 격추사건이 있은 후, 이란은 더 이상의 소

군사지식

모전으로 부터 탈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유엔의 휴전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지난 8월 20일, 이란-이라크 전쟁이 휴전되었다. 사실, '88년에 들어와 전쟁이 휴전되기 전까지 이라크의 대규모 공세로 많은 점령지를 빼앗긴 이란은 혁명정부의 권력구조가 안정되지 못하여 진통을 겪어왔다. 이란-이라크전이 선포전, 후협상으로 종전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아직도 국경문제와 휴전 후의 전쟁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전 후 복구사업 역시 강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물고 올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8년간의 전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종전 후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이란-이라크 전쟁의 원인

이란-이라크전은 샤푸르 알 아랍 수로를 비롯한 국경문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내면에는 양국 사이에 쌓여왔던 민족적인 감정이 깔려있으며, 이는 순니파 이슬람과, 쉬아파 이슬람 간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아랍세계에서 경찰국가

행세를 한 이란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반감과 이란의 호메이니와 이라크의 후세인 간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도 그 원인이 되었다. 이라크는 이란에 쉬아혁명이 일어나 혁명정부가 들어서고 국력이 약화되자 '75년 알제이에서 맺은 굴욕적인 국경협정을 파기하고 이에 보복하며, 또한 아랍세계의 주도적인 국가로서의 도약을 모색한 것이다.

1. 민족간의 갈등

637년 아랍의 우마이야즈가 페르시아의 사산조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되자 아랍인은 지배계급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란인들은 중류계층인 마왈리들로 전락하였다. 늘 아랍민족보다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있던 이란인들은 결국 우마이야조에 반발하여, 당시 기존질서에 반대하던 쉬아 이슬람 종교세력과 결탁, 압바시아 왕조를 바그다드에 세우는데 그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이란인과 아랍인이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지위개선의 어려움을 인식한 이란인들은 민족분리를 시도해 나갔다.

몽고가 오랫동안 아랍을 재패한 뒤, 16세기에 들어와 이란에 사파위즈가 등장하여 쉬아파를 국교로 정하

자, 이란의 민족주의가 이 종교로 표현되게 되었다. 이후에 이란은 순니파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터키와 대결하여 쉬아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2차대전 이후에는 강대국

의 이익에 의해 순니 이슬람 정부가 이란에 들어서자 이에 대항하여 계속적인 종교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1979년, 급기야는 호메이니에 의한 쉬아 회교혁명을 맞게 된 것이다.

이란 여성들의
사격훈련



7세기 무함마드가 죽자, 할리파(최고지도자)가 세습제로 결정되었는데, 교조의 사촌조카인 알리를 추종하여 정통 이슬람인 순니와 투쟁을 벌여온 무리가 생겨났으며 이것이 쉬아파의 기원이다. 쉬아파는 이라크 남부지방에서 발생하여, 현재 이라크인의 55~60%가 쉬아파 이슬람 교도들이다.

이란에서 쉬아혁명이 일어나자 이라크 내의 쉬아파 교도들은 크게 고무되어 그동안 순니정권하에서 당했던

불이익을 만회할 상황이 이라크에 조성되길 바랐다. 그래서 급기야 이들은 호메이니와 결탁하여 “다와”당을 만들었다. 이에 이란은 이라크 내의 쉬아파교도들에게 이라크의 바아쓰당을 전복시킬 것을 선동하였고 이라크 정부로서는 쉬아혁명이 자국내로 파급될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란혁명 후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쉬아폭동이 일어났고, 순니국가들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부서진 탱크앞에
죽어있는 이라크
군 시체

2. 국경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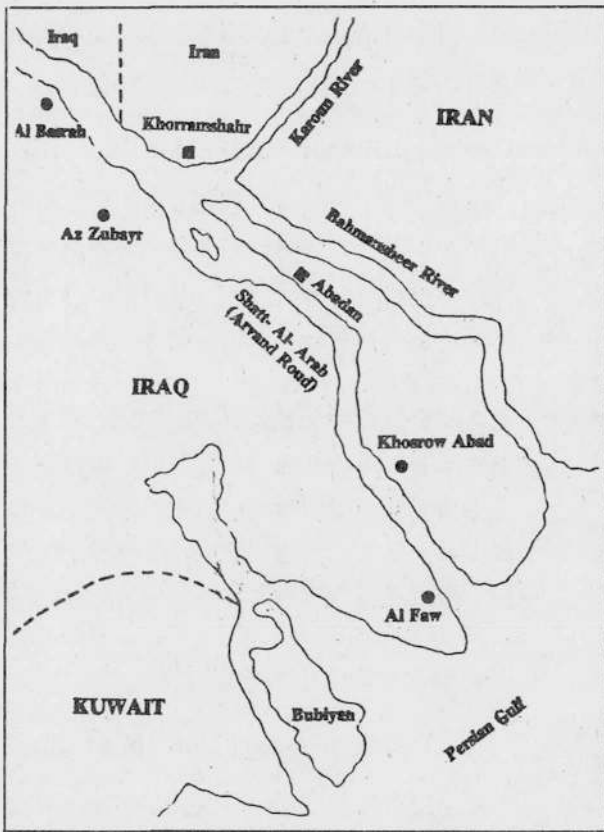
이란-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샤푸르 알 아랍 수로는 17세기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국경조약때 부터 분쟁이 되어 왔다. 이 지역은 이란측에서는 호람샤 등의 석유 수출항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며, 이라크로서도 바스라항에서 바그다드까지의 항행의 유일한 노선으로 양보

할 수 없는 곳이다. '37년 이후 이 수로의 중앙 계곡선이 국경으로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란은 이라크 내에 있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지원, 반란을 조장하였다.

결국 이 반란에 위협을 느낀 이라크는 '75년, 이란이 쿠르드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수로의 중앙 계곡선을 국경선으로 정하는 알제이협

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팔레비시절, 이란은 군비증강을 꾀해 이 상황의 고착화를 시도하였고, 이라크의 바아쓰

정권은 국력의 약화로 인해 이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다.



샤트 알 아랍수로

3. 페르시아만의 주도권 다툼

이라크의 바아쓰정권은 국내정세가 안정된 이후에 페르시아만 정책을 강화해 나갔는데, 특히 사담 후세인은

샤트 알 아랍 수로의 협정을 맺은 당사자로서 이 굴욕을 보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이란에 쉬아혁명이 일어나 혁명정부가 들어서자, 이

군사지식

란은 이슬람 정통주의 국가를 자처하면서 이라크 사회주의 바아쓰정당을 세속주의 정당으로 규정, 이와 대결을 부르짖었다. 이에 이라크는 이란의 쉐아혁명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재건으로 여기고 민족적 차원에서 이란과 대립하게 되었다. 호메이니가 1963년 이란에서 추방되어 이라크의 쉐아성지인 나자프에서 망명처를 구했으나 쉐아 종교활동으로 이라크에서 추방된데 대한 호메이니의 개인적인 감정도 이 전쟁에서 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또 하나의 이유로 이란이 혁명을 겪은 후 정부군과 혁명군 간에 알력이 생기자 이를 외부로 표출시켜 내부의 안정을 꾀한 것도 간과할 수 없었다.

Ⅲ. 전쟁의 경과

1980년 9월, 개인적인 보복감정에 쌓여있던 후세인은 이란이 혁명으로 군기강이 문란하고 미국과의 적대관계로 2년간 무기공급이 중단되었으며 언어·인종문제와 비쉬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쿠제스탄지역의 아랍인이 동조하면 전쟁에 승산이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9월 22일, 알제이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샤프트 알

아랍 수로의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1971년 영국이 아랍지역에서 철수한 후, 이란이 점령했던 Abu Musa 와 Tomb 도에서 철수할 것과 이라크 내 쿠제스탄지역 주민의 자치요구가 이란의 사주임을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하였다.

1. 이라크의 침공('80. 9)

이라크는 전쟁을 개시하면서 먼저 이란의 주요 비행기지들을 폭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육군의 5개사단이 이란으로 진격하여 초기 승운을 잡았다.

이에 대해 이란은 우세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반격, Faw 항 근처의 원유 저장소를 파괴하여 이라크의 원유 수출능력이 격감되었다. 이라크가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이 전쟁은 확대되었는데 이라크는 결국 9월 25일에 이르러 공격목표인 호람샤를 함락시켰다.

2. 정적인 전쟁('80.10~81.5)

호람샤를 점령한 이라크는 점령지역의 보위에만 급급하였고, 이 시기를 이용하여 이란은 청년대를 창설하고 최고 국방회의를 만드는등 전열을 가다듬을수 있었다.

3. 이란의 공세 ('81.5~82.7)

전열을 가다듬은 이란은 아바단지역을 반격하여 이라크군을 내쫓고 다시 11월, Bostan 을 탈환하였다. '82년 3월에는 쿠제스탄지역으로부터 이라크가 철수함으로써 호람샤지역을 탈환하였다.

4. 이라크의 반격 ('82.7~84.3)

'82년 7월 이란의 공격으로 바스라가 함락되었다. 이에 이라크는 하르그섬의 원유저장소를 공격하였다.

또 한편 중부전선에서는 이라크가 이란군을 Mehran 지역에서 격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쟁을 주도해 나갔다. '84년 2월, 이란은 바그다드에서 바스라를 연결하는 전략적 고지들을 점령하고 또 다시 바스라를 공격했으나 실패, 바스라 북부 40마일의 Majnun 섬의 유전지대를 점령하는데 그쳤다.

5. 유조선 전쟁 ('84.2~84.12)

이라크는 조속한 평화협정과 서방 국가의 원조를 노려, 이란의 유조선 공격을 유도할 목적으로 페르시아만 북부지역의 반다르 호메이니와 반다르 마사르만을 향해하는 선박들을 공격하였다. 이에 '84년 3월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 선박을

공격했으나, 강대국의 개입을 꺼린 나머지 호르무즈해협을 폐쇄시키지는 못하였다.

6. 교착상태 ('84 말~86.2)

이란은 메란지역을 공격하였으나 일부만 회복하는데 그쳤고, '85년 1월 이라크가 북부전선의 Qasr-e-shirin 지역 일부를 점령하면서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상권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전쟁은 상대방의 민간선박 및 전략목표에 대한 국지전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라크는 하르그섬에 60여회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이란은 이라크의 도시들에 공습을 강화하였다.

7. Faw 반도지역 쟁탈전 ('86.2 ~ 87.2)

이란은 '86년 2월, 이라크 남동부의 Faw 반도를 회복했으며 쿠제스탄지역에 대공세를 취했다. 이라크는 다시 대규모 작전으로 5월 Mehran 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이란은 메란지역을 재탈환할 수 있었다. '87년 1월, 이란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폭격하고 이라크는 이란의 콤시 등에 포격전을 벌였다. 그리고 양국간에 바스라시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져, 약 6만명이 사망하였다.

군사지식

8. 페르시아만의 위기 ('87.3~88.4)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 대형 지대함 미사일을 설치하여 양국간의 유조선 전쟁이 재개되었다. 원유 수송선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무력사용의 응징을 경고하여 페르시아만은 긴장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봉쇄태세를 취하자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미국에 자국기지의 사용을 허용, 이에 미국은 사우디와 오만에 군사요원을 배치하고 “중동지역 합동타격사령부”를 창설하였다.

9월에 들어와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항행하는 유조선에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자 미국은 기뢰부설 이란정을 폭격하였고, 10월 페르시아만에서 미국과 이란이 교전하여 미헬기가 격추되고 이란 쾌속정 3척이 격침되었다. '88년 초에도 이란과 이라크는 계속해서 도시폭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란은 바그다드와 바스라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라크는 이란의 콰시와 테헤란에 로켓공격을 하였다.

9. 이라크의 대공세 ('88.4~88.6)

지상군의 우세를 보인 이라크는 이란이 급진파와 온건파간의 국내적 갈등을 겪는 사이, 4월 Faw 반도의 석유항을 그리고 5월에는 Basra 항에

이르는 동부접근로를 탈환하였다. 그리고 6월에 들어와서는 이란이 점령하였던 마지막 요충지인 Majnun 군도를 탈환하였으며, 122개 이란군 대대를 궤멸시켰다.

10. UN의 협상중재 ('88.7~)

결국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이란은 7월 18일 유엔의 정전 결의안에 수락하였고, 8월 6일 이라크의 후세인이 발표한 선휴전 후협상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강대국의 대이라크 압력과 사우디 등 아랍지역의 막후 설득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8월 20일 오전 7시, 150만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란-이라크 전쟁의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에 유엔 휴전감시단이 양국 국경에 배치되었고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선박을 입항시키고 검문을 실시하였다.

IV. 전쟁전야의 전력비교

1. 군사력

전쟁개시 당시의 이란과 이라크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해군을 제외한 육군과 공군력에서 이라크가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란은 정규군의 해체



페르시아만 전역

로 28만 5천의 병력이 15만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에 비해 이라크는 20만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라크의 전투장비도 숫적으로 우세하였고 그 가동률에서도 이란을 능가했다. 이라크의 공군은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여서, 군수지원 등의 어려움으로 79년 들어와서는 소유 기수의 반만을 운용할 수 있었던 이란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보였다. 다만 해군력에서는 이란이 79년 이전의 우세를 유지할 뿐이었다.

2. 전쟁전략

이라크는 전쟁을 개시하면서 단시간 내에 공격목표를 점령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벌여 국지적 이익을 성취하는 동태적 제한전쟁의 전략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라크의 주 공격대상은 국경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군사지식

샤트 알 아랍 수로와 쿠제스탄지역 등이 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공격은 초기에 한때 단절을 가져와 이란군이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적군 섬멸과 점령지 획득에 실패하여 전략을 살리지 못하였다.

공중전을 살펴보면, 이라크는 사전정보에 미숙하여 원거리 공격밖에 못하였고, 조종사의 기량부족으로 인하여 목표물에 정확한 타격을 가하지 못하였다. 이란 역시 공중 보복활동에 주로 나섰는데 전반적 전투개념의 결여와 무모한 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그리고 양국은 통신망 미비와 전투조종사의 능력부족으로 지상과 공중의 합동작전에 실패하였다.

'81년 이라크가 육군항공부대를 창설한 후 '82년 중반 이후에는 이라크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라크는 해군력의 열세로 직접적인 해상전을 회피했는데, 이란전함이 Basra와 Faw항을 공격하는 등 주로 이란이 주도해 나갔으며, 이라크는 공군력을 이용하여 유조선 전쟁을 격화시켰다.

3. 전략 및 작전상의 문제점

이란은 파스다란(혁명 수비대)과 바니 사드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소수 비종교세력간의 패권다툼때문에

지휘계통상의 혼란이 야기되어 중앙통제가 어려웠는데 이에 반하여 이라크는 권력분쟁이 없고 혁명지도위원회가 효율적인 지휘를 하였다. 그러나 후세인의 전략결정이 엄격하여 야전지휘관의 작전이 경직되었다. 이라크는 1970년 이후, 전시보급능력을 확대하고 그 루트를 다원화시켜서 소련 외에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무기를 구입하였다. 또한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지원으로 장비를 현대화시켰다. 이라크는 '85년, 군사력을 2배로 증강시켰으나, 이란은 파스다란의 지위격상으로 기갑사단이 해체되고 단지 보병사단의 수만이 증가되었었다.

사기면에서 볼 때, 이라크는 초기의 전투정신은 드높았으나 정태적 전쟁전략으로 전환한 이후,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이에 반해 이란은 종교적인 열정에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매우 강한 편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의 초기 제한전쟁 전략은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전쟁규모, 범위, 수행방법이 소기의 국가정책의 목표에 전략이 기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V. 휴전과 종전 이후의 전망

1. 이란의 휴전안 수락의 배경

이란은 호메이니의 병세악화로 사후의 후계자 문제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84년의 경제가 '79년 이전보다 50년 이상 퇴보하는 등, 국내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빈부의 차가 극심하였다. 그리고 미국 무기체제로부터 군수물자의 보급이 제한성을 가져와 전쟁수행능력에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88년 초 이라크의 대규모 이란 격퇴로부터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연맹국의 21개국이 이라크 영토의 수호를 다짐하고 시리아만이 미온적으로 이란을 지지하는 등,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지난 7월 3일 미국의 빈센트함의 이란기격추사건이 일어나자 이란은 전쟁승리의 기대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제여론의 고립에서 벗어나 외교적으로 동정을 받게 되어, 세계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U.N의 휴전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2. 휴전협상의 난제

현재 양국은 8년간 이끌어온 이 전쟁을 종식시킬 국민을 설득할만한 명분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국경에 대한 협상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인데 그것은 샤프트 알 아랍

수로의 영유권과 또한 국경선이 애매한 북부 산악지대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Abu Musa 등의 도서의 영유권 문제들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양국이 갖고 있는 포로들(이라크는 5만, 이란은 2만 5천)에 대해서도 이란은 등수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라크는 일괄교환을 주장하여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3. 종전 후 국제정세의 변화

종전 후에 이란은 종교적으로 공산권과 가깝게 지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국의 대이란 접근이 용이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혁신적으로 체제를 개편 중인 소련 역시 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이란과의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86년 12월 이란-소련간의 경제협력회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는 세계의 1/6로 미국은 적정유가의 확보를 위하여 공급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이 종전됨에 따라 아랍-이스라엘간의 전쟁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레바논 내의 테러활동도 격화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다.

군사지식

4. 경제 변화

OPEC 국가들은 '85년도 이란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유가를 낮게 배정하였지만, 앞으로 종전 후에는 이란, 이라크로부터 50만배럴 이상이 증산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자유주의국가 내의 동결된 재산이 풀리면 경제력을 다시 소유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5. 복구사업과 한국의 참여

OCAK(Overseas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의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89~'93)에 이란이 420억불 정도를, 그리고 이라크가 290억불을 건설복구작업에 투자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중 10억~50억불을 얻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600억불에 이르는 외채때문에 복구작업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석유가가 안정되면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8월 20일, 이란과 이라크에 그룹총수를 단장으로 휴전 축하사절을 보냈으며, 해외건설협회를 통하여 주한 이란 상무관과 이라크 영사에게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다.

VI. 나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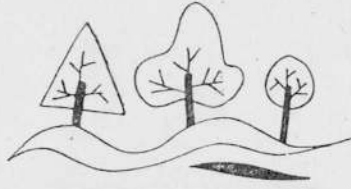
이란-이라크 전쟁은 이란민족과 아랍민족간의 뿌리깊은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직접적인 도화선은 샤프트 알 아랍 수로 등의 국경문제였다.

페르시아만을 장악하기 위한 양국의 전쟁은 그동안 팽팽한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진행되어 왔다. 이제 휴전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선은 오랫동안 조용하지만, 아직도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경문제와 페르시아만 도서들의 영유권, 그리고 포로교환과 전쟁보상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종전 후에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복구물자의 수입 및 건설복구작업 등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곳은 많은 이권을 갖은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 지역은 1973년 사우디 아라비아로의 첫 중동건설진출 이후 많은 건설기술의 축적을 이룬 우리나라로서는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의 중동정책은 그동안 중립정책으로 일관되었던 바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외교정책이 타국가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가 느끼는 한국

1. 들어서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군·공군의 순으로 한·일 정보교류회의가 있어 바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회의도 무사히 끝나고 “한숨”을 돌리고 있을 즈음 공군지 편집담당 중위님 두 분의 면담요청이 있어 만나보니 시원스런 화술이 여간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부임한 후 연세들으신 분들을 찾아뵙는 기회가 많아 긴장하고 있었던 탓도 있었겠지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초의 “올림픽 후의 한국동향에 관하여”라는 큰 제목은 솔직히 말씀드려 부임 초의 처지이고보니 거절하려 했으나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말씀에 간단히 승낙하고서는 바로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뒤 몇 주 후에 공군지 1988년 제 1호를 보내주셨는데 글들의 수준이 높고 한 분이 쓰신 매수가 많은데



大領 福山一行
(일본대사관 무관)

1946년 오카와에서 태어났다. 일본방위대학 11기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82년 C.S.C를 수료했다. 88년에 한국주재 공군, 해군 군사주재관으로 부임했다. 부인 미쓰코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있다.

놀랐으며 처음부터 이 책자를 보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었을텐데 하며 한국 공군장교들의 작전능력의 우수함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승낙드린 아상 무언가 쓰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서투른 문장이나 평상시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을 쓰고자하니 쾌히 읽어 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 전력비교시의 참고

한국은 냉엄한 군사정세하에 있으며 또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한국에서 전력비교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은 한국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분수넘치는 일이나 참고가 되신다면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경우 또는 싸울 것을 결심할 경우에는 군사력과 국민의 의지 그리고 경제력 등의 3요소가 주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사력은 당연히 군인의 수와 정예화 정도 그리고 병기의 질과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잊어버려선 안 될 것은 부대의 운용능력이며 여기에는 작전계획능력, 명령전달의 철저여하 등이 포함되며 정보, 통신 그밖의 능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지는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므로 확고히 통일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에도 표면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있으며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으로 공산주의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강제와 자유의지의면에 있어서도).

경제력에 있어서는 당사국의 능력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분쟁이

생길 경우 쌍방을 지원해주는 경제권의 능력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라의 종합력이란 것을 생각할 경우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자기편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쉽다는 점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은 자기것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있기때문에 왕왕 흠점에 주의가 집중되며, 상대편에 관해서는 전력판단을 오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때문에 가끔 상대방의 최대한의 힘까지를 생각해 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특히 오랜기간 동안 실제로 전투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단이 보다 현저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 본인이 스포츠감독으로 있었을 때 그와 같은 식이 판단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상대팀의 실력이 거의 대등하다고 느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6대 4 정도로 자기편의 능력이 높고 동시에 적이 그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7대 3 정도로 자기편이 약했었습니다. 자기편의 실력을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실력은 있는데도 겁먹어서는 안 된다고 반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과 북의 군의 실력은 잘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것이 판단 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3. 한국의 통일에 관하여

한국의 분단은 근원적으로 보면 일부는 일본에 원인이 있는 셈이어서 큰소리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 되며 또한 큰소리쳐서도 안 되나 남북 쌍방의 교섭의 경위 등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남북 쌍방이 다같이 지금까지의 교섭이 결코 성과 있는 회의라고 생각지 않으면서도 참을성있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한국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상호간의 이해와 체제가 근본적으로 틀릴 경우 의견의 일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한쪽이 대폭적으로 양보하는 수 밖에 별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쌍방이 같은 정도씩만 양보할 것 같으면 여전히 의견의 차이는 남고 말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대폭적인 양보(나라체제의 변화)를 상대편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은 일에서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큰 낚시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호간에 나라힘이 대등할 때에는 양보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판문점회의장의 깃대 높이라든가 방송탑의 높이를 놓고서도 경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력의 차가 생기게 되면 국력이 강한 쪽은 그 태도가 너그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또 형이 동생을 보듯이 사소한 장난질은 용서해주는 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올림픽은 한국이 세계무대에 서서 한국의 번영된 현상을 보이기 위하여 양보할 수 없었을런지는 모르나 차후 이와 비슷한 행사가 또 있을 때에는 북쪽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하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세계의 빛속으로 북한국민을 끌어내는 일이 먼길이기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불안이 따라 붙겠지요.

5. 한일관계에 대하여

한일관계라고 하는 큰 제목을 붙이면 상당히 고차원적이며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하시겠

제 언

지만 흔히 일반적인 가정주부들이 차를 마시면서 하는 정도의 이야기이므로 어깨힘을 빼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는 한국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외국인의 첫번째는 그것도 단연 톱이 일본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일본인들은 대부분 생각지도 않았던 옆사람에게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쇼크를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T.V의 심야프로에서 한·일학생토론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동시중계로 실시되었는데 그때 일본인 학생들의 태반이 그 데이터를 보고 「설마」하고 느꼈다는 얘기가 기억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온 교수에게 학생들이 “왜 유학지를 일본으로 택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정직하게 대답하면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20세 전후의 젊은이들 중에 어째서 반일적인 감정이 싹틔을까 하고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믿고 의심치 않는 일로서 「올림픽으로 돈을 쓰는 것은 한국이고, 돈을 버는 것은 일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연간 2~3 백만명의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수단

수백명이 더 체제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관광객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한국에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가가 비싼 일본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쓸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자체에는 흥미가 높으나 방일객들의 얘기가 화제로된 일은 없습니다. 독자에 영합하려고 보낸 기자의 원고탓도 있겠지만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상의 3가지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람과 일본사람들의 생각에는 격차도 있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사람의 자기 본위적 생각일지 모르나 일본은 패전의 상처에서 전쟁 전의 일들을 빨리 잊고 새로운 일본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반하여 한국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역사를 토대로 장래를 생각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서로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래 한국과 일본은 필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와 같이 상호불신적인 상태는 피차 마이너스가 되면 뒤틀리거나 플러스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결 론

약 2개월 전에 김포공항에 내려 자동차로 서울시내로 향하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기분이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외국에 부임하고 앞으로 3년간 이땅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외국에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비행기가 U-Turn 해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온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동경과 서울은 닮았고 언어와 간판만이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역시 한국은 틀림없는 외국이며, 일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서 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으나 오랜 역사에 기반을 두고있는 민족성은 자연히 틀리게 마련입니다. 한국사람들 중에도 한국의 척도로 일본을 판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양 국민이 다같이 자국식대로 해도 상대방이 이해해 주리라는 응석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도착한 이후 한국어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또한 한국의 풍속·습관을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례가 된 언동이 많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도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대목이 없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안전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붓을 놓습니다. 앞으로는 선배님을 비롯하여 젊은 장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한국공군의 건투를 기대합니다.



중화민국의 통일정책

이제 대륙이 함락된지 40년이 되었다. 이 40년 동안 중공은 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의 단결을 해치며 민심을 와해시켜 우리의 대륙 반격의지를 좌절시켜 우리를 장악 통제하려는 기도를 해왔다. 이 긴 4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이 위기축발의 시기 중에도 뱃길을 안내하는 신성한 사명을 지고, 온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험난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닥쳐온 국제연합 및 국제조직의 탈퇴와 수없는 국가와의 외교단절 등 현실적인 여건을 맞닥트리며 손발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의 도약에 힘써왔다.

이러한 모든 악조건은 모두 중공이 배후에서 위협과 조작을 유도한 것으로 여러 나라들은 중공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의 판단력을 유보하고 심지어는 중공의 유도하에 세계인류의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사라지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中領 吳英樟

(중화민국)

'51년 대만에서 출생했다. 중화민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조종사다. 본국에서 시험비행사 및 안전장교를 거쳤고 비행대대장을 역임했다. 현재 위탁교육생으로 공군대학에 재학중이다.

한 와중에서도 우리의 정부는 만난을 극복하고 여러 통로를 개척하여 중화민국을 태평양상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였다. 정치·경제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 역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중공은 외교의 고립, 군사적 침략, 경제적 봉쇄 등의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정부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정부는 台海 823 砲戰의 (중공의 금문도 포격사건) 빛나는 전과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강국으로 비약하였으니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자랑스러운 증거들이다.

만일 반공전쟁의 최후결전시각이 된다면 우리는 대오를 정비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적을 깨뜨리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륙의 광복”이 우리의 국가시책이며 이 국가의 시책이 언제 실현이 될지는 아직 그 시기를 정확히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등소평은 이미 시기를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은 최후결전의 시기를 말하며 1980년 1월 16일 중공 중앙간부회의 중 “눈앞의 형세와 임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발표된 것으로 대만의 조국에로의 복귀는 '80년대 3대 임무 중의 하나이며 우리의 과제들 중 정상에 놓여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이 '80년대의 말기에 들어섰으니 중공이 그 잔악한 면모와 처참한 수단을 전개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 그들은 막대한 인력·물력을 동원하고, 유형·무형의 협공을 펼침과 동시에 적극적인 무력동원을 기도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무력으로 대만을 탈취하겠다는 선포와 함께 미국의 중공옹호주의 자들과 그 동조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따르도록 책동하는 한편 비집권당분자(야당)들이 공공연히 범질서를 파괴하고 적극적으로 전국에 걸친 반대조직을 구성하며 동시에 대담하게도 우리의 중화민국을 멸망시키는 5년진도표(進度表)를 공포하여(그들은 이것을 「민주시간표」라고 부른다. 그 계획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다. 이 「민주시간표」는 소위 黨外公政會首都分會의 1986년 5월 17일 성립시 공포된 것으로 그 내용은 1987년 「新黨成立」, 1988년 「계엄해제와 헌법실행」, 1989년 「全面改選」, 1990년 「총통민선(總統民選)」, 1991년 「台海和平」인데 이것이 바로 중화민국을 소멸시키려는 5개년 진도표다. 이 계획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너무나도 등소평의 대만공략계획과 부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건테 등소평은 그 목표달성에 매우 집착하고 있는것 같다.

마치 918 사변시 일본군벌이 구상한

제 언

「중국멸망 3개월」의 계획과 같은 짐작이다. 그러나 일본군벌은 결과적으로 멸망했다. 등소평의 대만병합계획의 결과도 그러할 것이다. 대만에 존재하는 소수의 반당·반정부 인사들이 만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당을 이용하려는 뜻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오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에 의해 통일전선을 채택하기로 한 사람은 공산당에 이용을 당할 뿐이지 결코 공산당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만이 예외에 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 모두가 재능있고 포부가 원대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지혜가 결여된 애처로운 상태에 있다.

만일 그들이 일순간의 권리욕을 누르고 눈을 크게 떠서 다 함께 삼민주주의의 이상실현을 위해 분투하고 인류를 대동사회의 목표를 향해 인도해갈 수 있다면 비로소 진정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경제건설은 해왔으나 근시안적으로 보면 지난 40년 동안 평화의 안정시기에 안주하여 본토수복의 혁명정신이 부지불식간에 해이해졌고 이런 허약함이 중공에게 기회를 주어 안으로는 침투당하고, 바

깎으로는 포위를 당하는 곤경 중에 빠지게 되었다. 중공은 70년대 이후 미국식 문화를 유입하여 대중의 혁명 방향을 둔화시키게 되었고 정신무장도 약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그와 상응한 발전의 자유를 갖게 했었다. 더불어 문화대혁명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대한 파괴활동이 약간 누그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공은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일단의 무리들을 동원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사상전쟁을 장악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에게 중립적 태도를 취하게 하여 그 와중에 전면적인 최후총공격을 개시하여 그들의 「民主進度表」처럼 우리가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하여 정권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중공은 철저히 대만을 공략하고 그 정권의 영구적인 존속기초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가장 유리한 무기라 내세우는 「統戰」을 구사하고 있다. 무엇이 統戰인가. 그것은 공산당의 「統一戰線」의 약칭이다. 우리는 그것을 「聯合戰線」이라 부르며 그것은 정치작전 중의 특수한 전법으로 특수전술에 일반적인 전술을 포함한다. 그것은 공산당의 가장 예리한 戰勝 무기이며, 「敵으로써 敵을 제압하는」원

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모순을 이용하여 분화를 진행하고 분화 중에 부차적인 敵과 내일의 敵을 단결시킴으로써 자기를 강화하고 오늘의 주요敵을 고립시키며 또한 단결 중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 중에 단결을 행하여 다수를 장악하고 소수를 격파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발전시킨다. 동시에 일보 후퇴하고 이보 전진하거나 혹은 이보를 전진하고 일보 후퇴하는 방법으로 적군을 소멸시켜 양적변화를 질적변화화하는 절차를 가속시키는 것이다.

중공은 대륙을 차지한 후 전략적으로 모든 공산국가를 부추켜 미국의 우리에게 대한 저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약화된 태도를 이용, 각국의 자의적 의사에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를 연합국에서 축출시키고 미국을 우리와 단교하게 하였으며, 다른 다수의 국가들마저 뒤이어 단교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전례없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 그들은 이 전략상의 성취로서 전술상의 성취를 얻어내게 된 것이다.

중공은 미국과 외교를 수립한 후 그 위세를 타서 통일전선의 공세를 취하여 한편으론 「平等談判」, 「平和統一」 「三通四流」, 「一國兩制」, 「香港模式」 등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또한 미국의

간섭을 이용하여 統戰음모의 실현을 부추키고 다른 한편으론 統戰조직의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그 조직을 강화시켰다. 중공의 우리에게 대한 양면적 음모공세에 대해 우리가 대처한 빈틈 없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40년 동안 우리는 광복의 基地에서 三民主義를 실천하고, 국가건설을 전개하며, 자유를 공고히하고, 인권을 옹호하여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모두 충분한 생존의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륙의 광복이며, 대륙의 동포와 함께 투쟁하여 中華를 재건하고 조국의 광명을 되찾는 것이다.

蔣총통은 國父의 혁명일생을 좇아 60년의 험난한 투쟁속에서 우리를 영도하고 유언 중에는 「대륙을 광복시키라」며 최후로 우리를 격려하신 한 마디는 「우리가 대만·괭호·금문·마조의 부흥기지에서 생존을 계속하고 투쟁을 부단히 하여 발전해간다면 반드시 대륙회복의 임무를 달성할 것」이었다. 이상의 조국을 부흥시키는 신성한 임무에 의하여 우리는 세 가지 불변의 反共國策을 결정하였다.

第一 ; 우리 중화민국의 전 국민은 부흥기지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삼민주주의의 건설에 종사한다. 정치방면에

제 언

서는 민주헌정을 실천한다. 경제방면에서는 번영과 균등한 부를 추구한다. 사회방면에서는 국민에게 자유와 안정, 안전, 화해와 풍요한 복지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 전 동포가 끊임없이 분투한다.

第二 ; 우리 정부와 중국국민당의 일관된 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한 중공과의 최후까지의 투쟁이다. 중공은 중국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기에, 國共간은 영원히 타협이나 어떠한 평화담판의 가능성도 없다.

第三 ; 중화민국은 「민주진용을 고수」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영원히 자유민주의 방향에 서서 공산정권과 어떠한 왕래도 하지 않는다.

동시에 장경국선생은 우리 정부의 4개 기본국책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第一 : 중화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체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第二 : 우리는 절대로 반공광복의 최후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第三 : 우리는 시종 민주진영의 제일선에 서서 어떠한 공산정권과도 왕래하지 않는다.

第四 : 우리는 대륙을 훔쳐간 공산괴뢰정권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하여 중국을 통일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

반공시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동시에 국가건설을 가속화한다. 이것은 일종의 장기적 건설이므로 우리에게서 장기적 안목의 건설목표가 있는 것이고 이 목표는 부흥기지(대만·괭호·금문·마조)의 동포들이 모두 번영과 자유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대륙의 동포에게도 자유의 생활방식을 추구해야만이 공산당의 통치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이 정치적 규합을 이용하여 대륙의 동포를 경각시키고 공산정권에 반항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서 최종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삼민주의의 실행과 중국의 통일, 자유, 평등의 강대한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중화민국은 비상시기에 처해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륙을 점거하고 있는 중공은 한시도 대만을 침범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고 큰 적이 눈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국방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강해야 한다. 게다가 중공은 이미 「國務院」 안에 「對台工作小組」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침투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 더 매 순간마다 敵이 진행하고 있는 침투·

분화·파괴와 전복의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국가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정세가 이러하므로 우리는 민주헌정을 이룩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순간도 해이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대만지구의 각 민의대표와 지방수장의 정기선거를 해 오으로써 이미 인민의 민권행사는 민주풍속을 양성하였다.

우리가 험난 중에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대륙의 공산정권을 전복시키고 통일민주중국을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정치목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내부는 지극히 단결되어 정부와 민중은 고락을 함께 하며, 공동분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진 후 제로(0)상태의 경제를 오늘의 규모로 발전시켰으며 이로써 우리의 정치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안정은 또한 강력한 국방에 힘입은 바 크다 할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 우리의 경제가 오늘의 단계로 계속 성장해 온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차와 3차산업이 1차산업을 대신하게 되었고, 경공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포화상태까지 발전되어 중화학공업과 자본 또는 기술집약산업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대외무역의 구조 또

한 전환되어 수출과 수입의 형태가 모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모든 현상이 우리가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요한 것은 10條項建設의 완성 이후에 경제성장은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相關산업의 발전, 대량의 국민취업은 경제의 심각한 정체를 해소시켰다. 10條項建設로부터의 경제발전을 보면 국가경제만 급속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10項의 공정이 우리들에게 자신감과 시련, 지혜와 경험을 주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중국문제」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 중국, 유일한 중국은 國父 中山孫文선생이 창도한 중화민국, 단 한 개의 합법정부이며 國民大會가 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이 선거하여 만든 중화민국정부이다. 중화민국의 체제와 法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국가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일체의 도전을 배격해야 한다. 중화민국은 민주를 존중하고 法治를 이행하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정책을 취하며 憲政제도를 옹호하며 그것을 전 중국에 실시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정세는 삼민주주의의 영향아래 대륙동포의 각성으로 일천백만평방킬로

제 언

미터의 토지는 이미 중공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하며 10억의 동포 또한 중공정부가 철저히 억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의 혈육이고 감정이 통하는 대륙동포에게 알리고자 한다. 중공정부는 우리의 공통의 적이고 유일한 적이므로 우리는 시종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유지하여야 하며, 우리와 중공정부는 절대로 어떠한 타협담판의 여지도 없으며, 우리의 부흥의지는 진지하며 순결하고 전원이 단결하여 대륙광복과 통일·부흥을 위한 투쟁을 고수하며, 어떠한 독립수호관념의 이견도 없다.

우리 중화민국정부와 중공의 사이는 일개인의 사사로운 다툼이나 권력다툼이 아닌 근본적인 신념이 다른 것이다. 중공은 중화문화를 소멸시키려 기도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로 중국인의 자유와 평화애호정신, 전통생활방식을 변질시키고 있으며 또한 고압적인 수단으로 대륙인민을 박해하고 있다. 중공과의 교섭은 자살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중공정권과 어떠한 왕래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교섭은 공산국가가 적을 패배시키는데 사용해 온 일종의 수단으로 우리는 과거에 속은 경험을 잊

을 수가 없다. 대륙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중공과 담판을 벌인 적이 있었으나 결과는 한 차례의 담판은 한 차례의 실패였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곤란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다시는 중공과 담판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중공이 철저히 공산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자유경제를 수립하며 민주주의제도를 회복함으로써 삼민주의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을 수 있을 때에만 중국은 통일의 大道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총괄하여 다시 한번 천명하자면, 오늘날 소위 「대만문제」라는 것은 없고 다만 「중국문제」만이 있을 따름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국민의 혁명은 민족부흥, 민주憲政, 민생건설의 혁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이 민족부흥, 민주헌정, 민생건설의 대업완성이 바로 「중국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다. 중국인이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하여 仁을 이루고 義를 취하며 희생·투쟁하고 흔들림없이 우뚝 서 있는 것은 단지 국가의 독립, 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 정의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대만, 팽호, 금문, 마조를 부흥기지로 삼고 우리의 혈육인

10억 동포와 천이백만평방킬로미터의 국토를 위한 투쟁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미래의 대만과 대륙의 관계는 대개 다음의 몇가지 요소로 결정될 것이다.

一. 만일 중공이 끝내 무력위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만과 대륙 사이에 장차 어떠한 개선도 있기 어려울 것이다.

二. 만일 중공이 그 「4개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대륙 인민의 정치·경제·사회와 생활방식 각 방면은 영원히 진정한 자유민주의 희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와의

거리 또한 좁힐 수 없을 것이다.

三. 중공이 기만적인 「一國兩制」를 버리고 자유민주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대만과 중공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해협兩岸 모든 중국인의 공통바람이다. 만일 중국인이 평화적, 장기적으로 두 가지의 명백히 다른 정치·경제제도를 비교하고 체험한다면 그들은 양자 중에서 중국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적합한 한가지를 선택할 것이다. 그 길은 확실히 자유와 민주, 번영과 평등한 富를 보장하는 탄탄대로를 택하게 될 것이다.



원貨切上과 우리의 對應戰略

1. 원貨切上の 本格化

올들어 美달러貨에 대한 우리나라 원貨의 切上率이 10%線을 넘어섰다. 지난 1987年末 換率인 1달러당 792원 30전에 비해 9月末 現在 718원 40전으로 告示돼 73원 90전이 切上되었다.

우리나라 원貨의 年間切上率이 10%線을 넘어선 것은 現行 變動換率方式을 導入한 '80年 以來 처음이다.

우리나라 원貨는 지난 '85년까지만 해도 계속 切下趨勢를 보이다가 先進 5個國들이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換率調整을 위한 G5會談을 開催한 이듬해인 1986년부터 切上趨勢로 反轉, 6월부터 本格的으로 切上되기 시작해 '86년에 切上率이 3.34%에 達하였고, '87년에는 11月初에 800원線이 붕괴되면서 700원帶로 進入하여 切上의 加速化를 豫告하면서 年末까지 8.72%가 切上되었다. 事實上 원貨의 切上이 시작된 것은 '85年 9月 G5財

朴 昌 一 理事

(한국산업개발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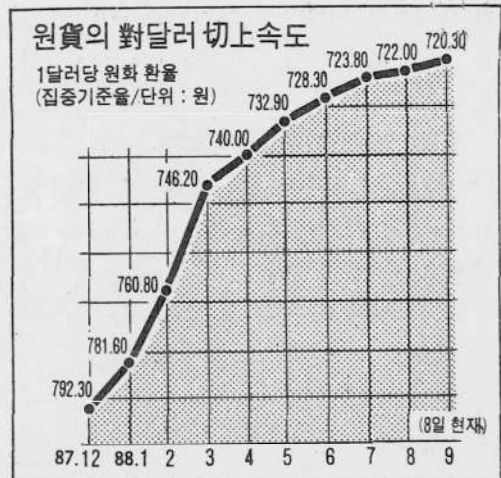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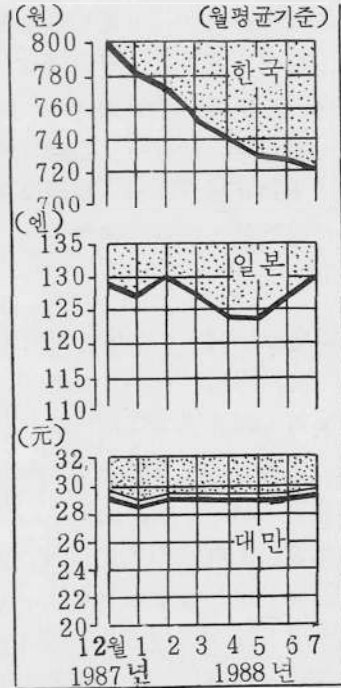
1940년 전북정읍에서 출생했다. 고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중앙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석탄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연구 등 다수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산업개발 연구원 이사로 재직중이다.

務長官會議時 美國이 달러貨에 대한 評價切下를 선언하고부터이며, 이후 우리나라가 對美貿易黑字를 크게 기록하자 美國이 원貨의 實質價値에 대한 低評價에 불만을 表示하고부터 本格化되기 시작하였다. 금년 2月 大統領 慶祝使節로 來韓했던 「베이커」 美財務長官을 비롯한 主要人士들이 우리에게 원貨切上率이 15~20%는 되어야 한다고 強力히 주장하고 壓力을 계속 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IMF 評價團도 우리經濟를 10% 以上 成長하고 經常收支 黑字도 100 億 달러에 達할 것으로 展望하고 對美달러貨에 대한 元貨價値는 보다 切上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바도 있다. 狀況이 이처럼 艱박해지자 財務部 등 外換當局이 美國의 切上壓力을 의식, 年初부터 계속 換率을 낮추어 왔고, 最近의 國際金融市長에서 달러貨가 下落함으로써 元貨의 切上速度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趨勢로 나가면 年末頃에는 當初 美國政府가 要求한 15%線도 돌파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元貨의 切上은 우리의 國力이 그만큼 커졌다는 事實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元貨의 切上에 우려를 나타내는 理由는 元貨는 經濟實勢와 무관하게 先進國의 壓力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切上速度가 빠르게 進展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日本・台灣・西獨 등 우리와의 競爭相對國들의 換率은 安定趨勢를 보이고 있는데 反해 우리나라의 元貨만 크게 切上되고 있다는 점이다. 台灣은 금년 들어 換率이 安定勢를 보이고 있고, 日本과 西獨은 오히려 달러貨의 弱勢로 通貨價値가 떨어졌었

〈韓國・日本・台灣의 換率變動推移〉



논 단

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競爭國의 通貨는 우리나라 원貨보다 큰 幅으로 切上되어 우리가 競爭國들에 비해 有利한 立場에 놓였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부터 狀況이 顛倒되어 원貨切上이 本格化됨으로써 輸出競爭力이 弱化되고, 여전히 우리 經濟에 不安을 고조시키고 있다.

2. 원貨切上이 企業에 미치는 影響

貿易協會가 國內 342個 輸出業체를 對象으로 實施한 원貨切上에 따른 影響을 調査한 結果 輸出企業의 損益分岐點 換率은 平均 718원 83전으로 나타나 금년 중 換率引上幅이 10% 이상 切上될 경우 輸出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도 원貨切上率이 10% 以內인 720원일 경우 輸出減少率은 7.6% 程度가 될 것으로 豫想되나, 切上率이 15% 이상일 경우 輸出減少率은 더욱 커져 17.2%에 達할 것으로 나타나 損益分岐點換率이 720원帶임을 反映했다.

業種別로는 1次產品 및 重化學工業의 損益分岐點換率이 輕工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들 業種이 원貨切上의 影響을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또 最近의 急速한 원貨切上下에서 全体業種의 51.2% 以上이 切上幅을 감안해 오퍼를 提示하고 있으나 契約 체결이 어렵다고 應答, 輸出契約 및 相談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輸出둔화현상이 深化될 것으로 豫見하고 있다. 원貨切上이 加速될 경우 1次產品, 纖維, 輕工業製品 등 加工度가 낮은 勞動集約産業의 輸出減少幅이 클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리고 輸出業界의 원貨切上 흡수방법으로는 短期 또는 早期輸出을 하고 있는 業체가 86.5%를 차지하고 있어, 換差損을 줄이기 위해 早期船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貨切上에 따른 貧擔을 6.5%만이 바이어에 전가시키고, 52%는 일부를 전가시켜 輸出價格引上이 反映되지 않고 있다.

한편, 商工부가 纖維·電子 등 21個 業種 214個 企業을 對象으로 調査分析한 「원貨切上 및 貨金上昇이 産業에 미치는 影響」에 따르면,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大部分이 損益分岐點換率은 720~700원帶로 잡고 있고, 輸出포기換率은 700~650원帶로 應答하고 있다.

또 원貨가 15% 以上 切上되어 달러당 680원에 進入하고, 貨金이 15% 上昇할 경우 全体企業의 절반가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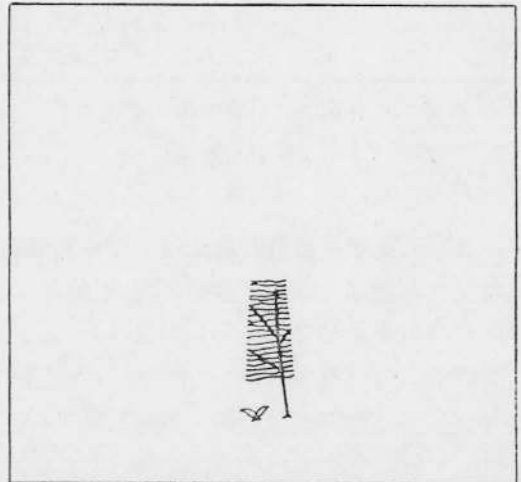
操業短縮 또는 操業중단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雇傭減少는 15.1%에 達할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損益分岐點換率을 초과하더라도, 企業이 輸出을 실제로 포기하는 時點은 赤字누적이 深化된 4~11個月 후이며, 勞動集約적이고 小企業일수록 期間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元貨가 680 원까지 切上될 경우 輸出減少率은 平均 13%로 豫想되며, 賣出額對比 經常利益率은 '87年의 4.5%보다 낮은 3.2%에 達할 것으로 나타났다. 調査對象企業의 90%가 이같은 「코스트푸시」 要因을 生産性 向上 및 原價節減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다른 한편 韓國銀行이 調査分析한 「元貨切上이 企業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金년말 元貨換率을 달러당 120 엔을 가정하고, 元貨의 對美달러換率이 달러당 700 원까지 떨어질 경우 (元貨價値 13.2% 切上) 製造業 全體의 賣出額經常利益率은 1.73%에 이를 것으로 豫測되었다. 이는 지난해 製造業 賣出額經常利益率 3.58%에 비해 1.85% 포인트가 떨어진 水準이다. 또한 金년말까지 元貨가 15% (달러당 688 원 96 전)까지 切上될

경우에는 賣出額經常利益率이 1.69%로 當年對比 1.89% 포인트 下落할 展望이다. 元貨切上에 따른 製造業 全體의 收益性이 下落하는 가운데 로컬輸出을 포함한 輸出比重이 50% 이상인 輸出産業에서의 收益性 下落幅은 더욱 두드러지는 데 비해 原資材의 海外依存도가 높은 內需産業은 原料費減少, 換差益 增大 등으로 收益性이 好轉될 것으로 보인다.

業種別로 보면 衣服, 신발, 纖維, 電氣·電子, 自動車 등 輸出比重이 높은 業種은 赤字로 돌아서거나 收益性이 惡化되는 反面, 木材 및 나무, 石油精製, 시멘트 등 內需比重이 높은 業種은 收益性이 오히려 好轉되는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논 단

〈업종별 매출액경상이익률〉

(단위 : %)

	'86년	'87년	'88년		수출비중(로 컬수출포함)	15%절상시 수지효과
			1 안	2 안		
(제조업)	3.63	3.58	1.73	1.69	42.92	1.89
음·식료품	2.54	2.61	2.54	2.55	8.69	0.06
섬유	4.73	6.55	2.46	2.33	72.12	4.22
의복	3.56	2.87	△3.15	△3.38	84.07	6.25
신발	2.48	1.19	△4.19	△4.40	75.62	5.59
목재 및 나무	△0.31	3.58	4.29	4.32	11.62	0.74
산업용 화학	6.16	6.72	5.61	5.59	32.93	1.13
석유 정제	2.78	2.87	6.17	6.33	14.83	3.46
타이어	7.06	4.36	1.24	1.18	67.21	3.18
시멘트	6.10	6.29	6.45	6.47	8.01	0.18
철강	5.37	4.16	3.35	3.48	41.86	0.68
기계	0.78	0.73	△0.39	△0.42	28.13	1.15
전기·전자	3.90	3.04	0.11	0.02	60.93	3.02
선박	3.11	△3.08	△6.90	△7.05	59.44	3.97
자동차	3.98	3.83	1.78	1.76	50.51	2.07

※ 註 : 1안은 원貨換率 700원(13.2% 절상)

2안은 원貨換率 689원(15% 절상)

3. 美國 綜合貿易法의 換率協商義務化 條項에 대한 意味

保護貿易主義를 줄곧 반대해 오던 美國의 레이건大統領은 지난 '88년 8월 23일 「綜合貿易法」案에 署名하였다. 이 綜合貿易法案에 대한 레이건

大統領의 署名은 大統領選舉를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現在 美國이 當面하고 있는 만성적인 財政赤字와 貿易收支赤字를 解決하기에는 별다른 對策이 없었기 때문이다.

美國의 綜合貿易法案은 交易相對國과

의 貿易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해 制定되었으나, 이 綜合貿易法案에 換率協商에 대한 義務化 條項을 넣은 것은 원貨切上이 加速化되고 美國과의 貿易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로서는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換率協商 義務化 條項을 通商專門家들은 毒素條項으로 評價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原貨切上壓力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더욱 關心이 集中되고 있으며, 앞으로 對美通商問題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關係되는 것은, 日本·西獨 등 소위 「빅 7」이 아니라 해도 對美貿易黑字를 많이 내는 나라는 雙務協商을 통해 換率調整 등을 하도록 規定한 것이다. 美國은 「빅 7」에서 얻어 낸 換率등의 양보호과를 韓國·台灣·싱가폴 등 NICs 國家들이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補完措置를 해 둔 것이다. 또한 換率協商義務化 條項으로 인해 우리에게 換率調整壓力이 더욱 表面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소위 「빅 7」은 國際通貨國들이어서 國際外換市場에서 操作을 통해 換率을 調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國際通貨國이 아니기 때문에 美國이 市場에서 換率操作을 통한 실행력을 할 수 없고 우리의 協助를 얻어야만 可能하므로, 그 壓力은 直接的이

고 強力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美國과 資本去來가 制限되어 있고 去來規模도 작아 美國經濟에 큰 影響을 주지 않지만, 日本엔貨는 必要以上으로 올라가면 美國經濟가 흔들리므로 그 壓力이 조심스러운 것과 對照를 이룬다. 그리고 換率調整은 쇠고기輸入開放과 같이 特定産業分野에 대한 可視的 制裁措置가 아니고 露出이 적으면서 우리 經濟全般에 影響을 주는 巨視的 接近方法인 동시에, 効果도 包括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方法을 選好할 可能性이 높다. 뿐만 아니라, 報復措置도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換率協商義務化 條項에는 換率調整進展狀況을 議會에 每年 9月 15日과 그로부터 6個月 후 財務部長官이 報告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議會가 報告를 받겠다는 뜻은 行政府에 그 實行을 착실히 하라는 要請이기도 하지만, 만일 協商이 잘 안되는 나라엔 議會에서 議決을 거쳐 報復措置도 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日本과 協商進行이 안될 때마다 美議會가 特別立法을 하여 報復措置를 취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經驗한바 있다. 따라서 美國이 綜合貿易法案에

논 단

換率協商義務化 條項을 新設한 背景이 易不均衡이 是正되지 않으면 換率調整
나 흐름을 보면, 對美貿易黑字國에 대 壓力을 계속 強化해 나가겠다는 意志
해서 美國이 납득할 만한 선까지 貨 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환율협상의무화 조항 〉

대통령 對外특별무역협상권한 제 2 항.

1124 조 대통령은 무역협상과정에서 그 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는 사실을 재무장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재무장관에게 그 국가
와 환율협상을 신속하게 벌이도록 해야 한다.

환율 및 경제정책에 관한 국제협상.

3004 조 A. 재무장관은 매년 외국의 환율정책을 IMF와 협의·분석
하고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對달러환율
을 조작하는 국가를 가려내 조사를 해야 한다.

B. 재무장관은 ①국제무역수지가 흑자이고 ②對美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는 국가 중 경쟁력을 갖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판
단될 때는 IMF를 통해서나, 또는 두 나라 쌍방 간에 협상을 열고 그 국
가가 즉각 또는 정기적으로 환율을 공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C. 재무장관은 매년 9월 15일 이전에 上·下 양원 금융재정분과위원회
에 환율동향을 보고하고 보고 후 6개월 간의 진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야 되며,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석증언을 해야 한다.

4. 向後 經濟環境變化 및 換率展 望

올림픽開催 以後의 우리나라의 經濟
環境變化 및 元貨切上壓力에 대한 展
望을 豫測해 보면, 一般的으로 對內外
의인 環境變化 영향에 따라 經濟의
與件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開催에 따른 영향은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이 모두 相存하고
있으나, 對內外與件의 變化와 이에 대
한 效果的인 對應여부가 關鍵이 되고
있다.

우선 肯定的인 面을 보면, 올림픽開
催로 우리나라의 政治·經濟·文化 등
諸分野에 대한 면모를 世界各國에 알
릴 수 있어 커다란 弘報效果를 거둘

主要國의 올림픽開催 前後의 輸出伸張率

(前年比, %)

	올림픽년도	D - 2년	D - 1년	D 년	D + 1년	D + 2년
일 본	1964	16.1	10.9	22.4	26.6	15.7
서 독	1972	18.6	14.1	19.6	44.6	32.3
멕시코	1968	7.1	-5.3	10.4	14.0	-1.9
캐나다	1976	31.0	-1.3	19.1	7.3	11.2

수 있었다. 이러한 弘報效果로 인해 韓國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이 부각시킬 수 있었고, 韓國商品에 대한 既存의 이미지가 改善됨으로써 輸出伸張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보인다.

過去 올림픽開催國의 경우를 보면, 工產品輸出國인 日本과 西獨은 輸出伸張率이 커진 反面에 1次產品輸出國인 멕시코, 캐나다는 輸出이 늘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工產品 輸出比重이 높기 때문에 日本·西獨의 경우와 같이 輸出이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肯定的인 側面은 未修交國과의 交易基盤을 다짐으로써 이들 國家와의 交易이 擴大돼 輸出入市場의 多變化를 進展시킴은 물론, 交易規模의 擴大效果와 더불어 輸出入構造의 改善效果도 거둘 것으로 期待된다. 反面에, 올림픽開催로 우리나라 經濟發展의 成果가 世界에 可視化됨으로써 先進國과의 通商摩擦이 더욱 深化되고 世界

經濟에 대한 韓國의 役割分擔의 要求가 보다 強化되는 한편, 開途國으로부터의 심한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한편, 올림픽以後 對內外的인 環境變化에 대한 展望과 우리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해 보면 결코 樂觀할 수 없다고 보겠다.

첫째, 世界景氣의 後退 및 이에 따른 世界交易伸張率의 둔화가 豫想된다. 今年 中 世界景氣가 好調勢를 보였으나, 國際原資材價格의 上昇으로 인플레이壓力이 加重됨에 따라 主要國들이 金融緊縮基調를 強化하고 金利를 引上시키고 있어 來年度의 世界景氣는 다소 後退할 것으로 豫想된다. 世界交易伸張率도 景氣後退와 先進國들의 保護貿易主義 強化로 둔화될 展望이다. 특히 美國의 財政收支 및 貿易收支의 누적적자가 擴大됨으로써 保護貿易主義가 더욱 強化될 조짐이다.

논 단

세계경제성장률 및 교역량 전망

(%)

	1986	1987	1988	1989
세계경제성장률	3.1	2.9	3.2	2.6
선진국	2.8	3.1	3.5	2.4
미국	3.1	3.2	3.9	2.2
서독	2.6	1.8	2.1	1.4
일본	2.4	3.9	5.0	3.9
개도국	3.2	2.6	2.7	3.0
세계교역신장률	4.6	4.9	5.5	4.3

주 : 경제성장률은 GDP 기준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1988.7)

IMF, // (1988.4)

둘째,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 強化 및 市場開放壓力이 더욱 高潮될 展望이다. 各種 貿易障壁의 除去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推進에도 불구하고,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는 더욱 팽배하고 強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最近에 美國의 綜合貿易法案 立法化에서도 나타나듯이 美國의 保護貿易主義 경향은 더욱 強化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對 EC輸出이 急増함에 따라 EC의 緊急輸入制限 및 反덤핑提訴가 늘어나고 있어 先進國의 保護主義가 날로 強化되고 있다. 先進國의 이러한 保護貿易主義를 타개하기 위해 現地進出한

企業에 대해서 自國의 部品使用을 擴大해 줄 것을 要求하고, 이를 어길 경우 輸入部品에 대한 反덤핑關稅부과를 檢討하는 등 制裁措置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 開催된 OECD 閣僚理事會 등 수차례에 걸쳐 美國 및 EC代表들이 NICs에 대해 「經濟發展에 상응하는 役割遂行 및 世界經濟에 대한 責任論」을 主長함으로써 이미 加速化되고 있는 美國으로부터의 元貨切上 및 市場開放壓力과 함께, NICs 各國에 대한 견제움직임이 더욱 擴散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을 契機로 우리經濟의 高度

成長 및 輸出擴大에 의한 貿易收支增大가 弘報될 경우, 先進國은 물론 各國으로부터의 견제가 더욱 深化될 우려가 있다.

세제, 向後 달러貨에 대한 원貨의 切上壓力은 持續될 展望이다. 最近 달러貨는 美國의 經濟活況, 貿易收支赤字의 점차縮小,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美聯準의 金融緊縮 등에 따라 강한 回復勢를 보여 왔다. 또한 그동안의 換率調整으로 인해 主要國間 換率이어느 정도 均衡水準에 이르렀고, 달러貨價値의 急落에 따른 인플레이再然 우려, 金利引上 등의 要因이 크게 作用할 것으로 보여 달러貨는 당분간 現水準을 維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國의 貿易赤字가 다시 擴

大되고, 財政赤字의 누적문제도 뚜렷한 해결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달러貨는 다시 弱勢로 反轉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最近 2~3年間 經常收支黑字를 持續하고 있고, 對美貿易收支面에서 큰 幅이 黑字를 보여 왔기 때문에 美國으로부터 市場開放壓力의 표적이 되어 왔으며, 그 結果 各產業部內에 대한 市場開放壓力이 加重되고, 원貨의 實質價値評價切上이 이루어졌다.

금년도 들어 벌써 원貨切上率은 10%를 넘어서고, 年末까지는 15%의 切上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되어 원貨의 切上은 加速化 되고 있다.

美國은 交易相對國의 不公正한 貿易慣行을 시정하고자 綜合貿易法案까지

主要通貨換率 展望

(年末基準)

	1987 (A)	'88.8.31 (B)	1988 (C)	1989 (D)	절 상 륜 (%)		
					A/B	A/C	C/D
¥/\$	121.0	136.5	111.0	108.0	-11.4	9.0	2.8
DM/\$	1.570	1.877	1.550	1.500	-16.4	1.3	3.3
NT\$/ \$	28.55	28.78	25.35*	25.06*	- 0.8	8.3	5.1
W/\$	792.3	722.0	720.30 (9月)	-	9.7	-	-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1988.7)

* 12월중 平均換率

金問題는 來年에도 企業의 生産코스트를 壓迫하는 主要要因으로 등장할 것이다.

제조업의 명목임금 및 노동생산성 상승 추이

(平均基準, %)

	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 향상률
1984	8.1	10.5
'85	9.9	7.1
'86	9.2	13.6
'87	11.6	11.8
'88.1~4	19.5*	-

* : 전년동기비

자료 : 노동부, 생산성본부

5. 원貨切上和 對應戰略

現在와 같이 急激한 원貨切上速度와 豫測不可能한 切上水準을 감안할 때, 向後 우리經濟에 미칠 영향과 波及效果를 考慮하여 우리 政府와 企業이 이에 적절히 對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원貨切上에 따른 對應策에 대한 基本方向으로는 먼저, 지나치게 높은 對外依存度를 낮추고 內需市場을 活性化하여야 하며, 地域別 貿易不均衡을 是正하고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積極推進해 나감으로써 貿易摩擦素地를 根本的

으로 解消해 원貨切上壓力을 완화하도록 도모해 나가야 한다. 政府의 換率政策은 國內外事情에 의한 원貨의 切上壓力이 強化되더라도 貿易動向 및 國際收支推移, 生産 및 雇傭事情, 競爭國의 換率運用 등을 감안하여 可能한 國內經濟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完만한 切上速度를 維持해 나가는 方向으로 運用되어야 한다.

또한 원貨切上이 계속되는 期間中에는 이에 따른 景氣變動 및 沈滯問題에 주의깊게 對處하는 한편, 원貨切上을 契機로 産業構造調整을 成功的으로 推進해 나감으로써 經濟體質을 더욱 強化하고, 強勢通貨時期의 어려움을 사전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企業이 適應해 나갈 수 있도록 切上速度와 幅을 調節하는 동시에, 企業의 對應能力을 促進할 수 있도록 政策的인 支援이 배려되어야 한다. 政府의 支援對策은 品質高級化, 生産性向上, 新製品開發의 전제가 되는 技術開發努力을 促進시키는 데 主案點이 두어져야 한다. 이외에 投機性資金의 流入을 防止하기 위한 金利引下와 通貨信用政策의 탄력적 運用, 外換市場의 育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細部對應戰略으로서의 첫째, 換

논 단

率切上壓力的 緩和를 위해 對美貿易收支의 不均衡을 점차 是正해 나가는 한편,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通해 美國으로부터의 切上壓력을 緩和해 나가야 한다.

둘째, 物量爲主의 輸出増大를 止揚하고 市場開放을 通해 國際協調體制의 助成에 同參하며, 貿易의 擴大均衡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經常收支黑字規模를 適正水準에서 管理함으로써 不必要한 對外摩擦과 切上壓력을 解消해 나가야 한다.

셋째, 元高와 高賃金時代に 對備한 長期的인 政策課題로서 産業構造調整을 通한 産業合理化의 원활한 推進이다. 元貨切上은 그 自体로도 經濟構造面의 不均衡是正 및 體質強化의 效果를 갖고 있다. 元貨切上으로 輸出産業의 採算性이 惡化되는 反面, 內需産業部門은 改善이 可能하므로 經濟構造面의 不均衡 是正에 寄與한다. 아울러, 輸出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비롯하여 産業間, 輸出內需産業間 不均衡을 解消해 나가야 한다. 또한 競爭力이 弱한 部門의 合理化推進과 長期的으로 成長産業部門의 開發이 促進되어야 한다.

産業構造調整效果를 増大시키기 위해서는 産業合理化의 積極적인 推進에 의해 競爭力이나 收益性이 높은 有望

産業部門으로 資本과 勞動의 원활한 移動을 도모하여야 하고,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해 投資를 促進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競爭力을 상실했거나 조만간 상실할 것으로 豫想되는 限界業種은 점진적으로 後發開途國에 移轉해 나가야 할 것이다. 構造調整을 위한 合理化는 확일적이고 인위적인 基準에 의한 調整보다는 高附加價値化産業分野로 自然스럽게 移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 輸出企業의 競爭力弱화 및 採算性惡化에 對備하여 海外投資의 擴大 및 進出을 促進해 나가야 한다. 이를 通해 우리企業의 國際化進展 및 促進의 契機를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對外交易條件의 改善效果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元貨切上을 契機로 우리輸出品의 제값 받기 위한 努力을 強化해야 한다. 換率引上에 대한 負擔을 輸出價格에 전가하여 低價品の 덤핑輸出 汚名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日本·台灣 등은 이미 輸出單價를 상당폭 引上하여 왔으므로 與件面에서 매우 有利하다.

다른 한편, 元貨切上에 대한 企業의 對應戰略으로서는 元貨切上으로 인한 外貨表示輸出價格의 引上要因을 價格轉嫁, Cost-Down 등 價格調整으로 對

應하는 方法과 品質向上, A/S強化 등을 통한 非價格競爭力을 強化시키는 方法이 있고, 海外市場의 與件不利를 內需市場에 主力하는 經營戰略을 세우는 등 多樣하게 對處해 나갈 必要性이 있다. 基本的인 方向의 모색은 원貨切上이 수반하는 經濟構造調整, 制度變化를 豫見하고 積極적인 자세로 對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競爭力強化를 위해 生産性向上, 原價節減 등 自體的인 努力도 경주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經濟의 開放化, 外換리스크의 擴大 등 對外的인 위험에 슬기롭게 對處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 나가며, 새로운 經營戰略을 樹立하여 企業變身을 꾀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또한 收益性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經營合理化로 原貨切上效果를 흡수하는 한편

高附加價值化 및 高級化, 技術力提高를 위한 R & D 投資의 增大 등으로 經營戰略을 轉換해 나가야 한다. 한편 長期的 對應方案으로서의 強勢通貨圈으로의 輸出市場多邊化, 弱勢通貨圈으로의 輸入先 轉換에 努力하는 동시에 內需擴大에 따른 國內市場의 開發 및 企業의 國際化, Global化趨勢에 副應한 新商品開發 및 新事業參與方案을 신중히 檢討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企業에서는 原貨切上에 따른 어려운 經營與件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長·短期的 對應戰略을 樹立하여 効率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政府와 企業이 惽心하여 圓高現象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우리經濟가 安定成長을 維持해 나갈 수 있고, 先進圈經濟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소련에 다가가야 할것인가?



I. 序 論

1986년 열린 제 27 차 소련공산당대회를 계기로 고르바초프는 196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던 “당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대외정책의 초점을 미국에 맞추고 평화적 이니셔티브를 획득하기 위해 동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선언을 하게 된다.

한편 소련은 1970년대 말 극동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련의 북한과의 이러한 관계강화는 최근 미그-29, 수호이-25기의 도입으로 그 절정에 이르지 않았나하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김학준교수는 동북아지역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정책의 의도와 목표를 다음 세가지의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¹⁾

첫째, 소련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방



중위 이상선
(공군사관학교)

'6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외국어대학원 동구지역연구원을 졸업했고 사후 82기로 임관하여 공사정훈처에 근무하고 있다.

어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소련은 우선 이 지역이 자신에 대한 공격전초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입장이며,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이러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입장이다. 즉 이런 관점으로 소련의 동북아정책을 파악하는 학자들은 소련은 북한의 대남 군사모험주의를 견제하면서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

아의 현상을 유지한다고 본다.

둘째, 소련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풀이하는 이른바 공격학파의 견해이다. 피터 듀그난(Peter Duignan)은 동북아시아의 미국 군사력이 소련 군사력보다 “열등”하다고 전제한 다음, 소련의 군사교리는 방어가 아니라 “지속적이며 무자비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련의 군사력은 제 3세계 전체를 통해 혁명세력을 강화해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²⁾

즉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거시키려는데 일차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형성된 미·중·일 “3각동맹” 또는 “협력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북한을 교사하여 한반도에서 “제 2의 6·25”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세째는 앞의 두가지 입장의 절충형인 절충학파로 소련의 의도와 관계없이 미·소태탕트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즉 미·소태탕트가 악화되어 두 국가 사이에 전쟁위기가 조성된다면 소련은 북한을 통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미·소태탕트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 글은 새로이 태평양세력임을 자칭하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선언”의 내용을 살펴 본 다음 동북아시아의 한반도가 소련의 동북아정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 봄으로써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소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소련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김학준교수의 3가지 시각 중 세번째인 절충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소련의 동북아정책을 분석해보려 했음을 밝혀둔다. 항상 그렇듯이 일국의 정책은 단순화된 논리에 의한 변화없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수행 중 나타나는 장애물과 여건에 따라 신속성있게 변화되기 마련이다. 앞의 2가지 시각은 마치 흑·백논리처럼 그 사고 자체가 이론의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복합적인 원인과 다각적인 반응으로 살펴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II. 本 論

1.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
제 27 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당시 침체된 경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논 단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³⁾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그의 이러한 관심은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선언”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된다.

가. 소비에트 극동지역의 개발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면서 군사적 각도에서는 물론 이 지역의 개발계획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 지역이 “고도로 발달된 경제 콤플렉스”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의하면서 종합개발방향 및 잠재력을 지적하였다.

이미 국내외의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베리아개발은 소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업력의 중추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국내적으로는 당과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종합적 정책수립을 지적하고 “하나로 통일된 국가의 지역개발정책 아래 장기적인 극동지역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종합적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것을 제의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극동(시베리아)개발은 미국과 일본 등 서구세력의 경제협력증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비교적 산업이

발전된 歐러시아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 건설자재, 소비재수송의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부구조적 설비가 뒤따라야 한다. 시베리아개발은 이러한 자본 및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소련 국내산업 생산력은 기술의 후진성과 장비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국내자본도 거의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이래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시베리아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 및 기타 시베리아 자원을 개발·수출하여 과중한 투자비를 충당하고 있다. 실제 1976~'80년 기간 중 매년 수입장비 비용은 50~60억불에 이르렀고 주요 수입장비로는 건설용 중장비 채유 및 채광장비와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기술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이기택교수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미국이나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시베리아 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 소련의 극동정책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시베리아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를 시베리아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역시 고르바초

프의 새로운 극동정책요인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⁵⁾

이미 소련과 일본은 1966년 2월 일·소 경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운행차관형식으로 이태리로부터 10% 예치와 6% 이자의 10년 상환조건으로 3억불, 독일로부터 3억 4천 5백만불을, 프랑스로부터는 12년 기간의 6% 이자조건으로 8억불을 차관하여 시베리아 개발에 투자했다.⁶⁾

소련이 이처럼 소비에트 극동지역의 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위한 서구 및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증대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소련의 국제관계, 특히 소련의 동아시아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 지역적 양자관계의 중시

블라디보스톡선언 이전 소련의 대외 정책은 거의 대미외교에 집착되어 있으며 타국과의 관계는 소련의 대미관계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은 소련외교가 미국 이외 1 국가와의 관계는 대미관계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학준교수의 표현을 빌면 대미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대미관계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중요한 관계를 대미관계와 분리하여 발전시켜나간다는 뜻⁷⁾을 나타냈다.

이러한 의도의 일환으로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가 이미 제시한 “아시아 집단 안보체제”를 변형한 “아시아 안보회의” 구상을 1985년 제안했다. 이 안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제안했는데 이는 다국적 지역 협력체제의 형성을 통해 아시아 문제에 포괄적으로 협조해 간다는 구성이다. 김학준교수는 이를 “체제적 협조방법”이라 했다.⁸⁾ 한편으로 소련은 아시아의 각국과 개발접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즉 태평양지역의 국가—중공,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들과 일대일의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런 각국의 관계를 합쳐 태평양지역 내 전체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과거보다는 많이 퇴조하였지만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선언 중 “미국의 참여없이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만한 협조와 해결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논 단

다. 반핵 평화운동의 강조

소련은 앞의 두가지 점을 중요시하여 스스로 아시아, 태평양국가임을 자처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즉 자국이 이 지역 내 국가임을 강조하여 기타 다른 나라로부터 주목을 끌음과 동시에 지역 내 문제와 관심의 근거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축 및 반핵운동을 강조하였다. 이미 이 지역 내에는 미·소 세력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핵무기가 배외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중공도 많은 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핵보유 잠재성이 있는 나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 내 존재하는 핵무기와 그로 인한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핵전쟁과 핵참화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이 점은 특히 미국과 일본 및 남한의 “3각 군사동맹”에 의해 두드러지고 있다”고 공격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대규모 군축과 반핵운동 전개를 주장하였다.

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

앞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고르바초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했다. 첫째,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한민족의 민족적 문제를 해결할 길을 향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안한 신중한 대화를 피하는 것은 한민족의 이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남한에 분단과 대화단절의 책임을 몰아붙이던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완곡하고 피상적인 남북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면서 고르바초프는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어서 핵무기가 확산되고 쌓이는 길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정하라는 북한의 제안이 실현되면 중대한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제외하고 북한이 제안한 그 어떤 다른 제안 - 남북한, 미국의 3자회담,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주한 미군 철수 및 북한 - 미국 평화협정 체결안 -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북한의 3자회담에 대한 소련의 시각을 김유남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⁹⁾

“소련은 북한이 경제혼란으로 더 많은 서방의 물자와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모스크바는 미국에게 추파를 보내는 김일성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미군철수에 있고, 그럼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기회확보와 한국의 군사력 약화를 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일본 및 서유럽과의 경제적 유대를 서서히, 그러나 견실하게 증대시켜 나아갈 경우, 소련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3자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소련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고삐를 놓쳐 버리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은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 명백하며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한반도 정책에 임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 소련의 동북아정책에 있어 한반도의 위치

가. 소련의 한반도觀

소련의 한반도정책은 별개의 지엽적인 정책이 아니라 동북아전략의 틀 속에서 전개되며 그런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즉 소련의 한반도정책은 미·소의 세계전략적 측면 그리고 중·소 및 중·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지고 있다.¹⁰⁾

그러나 비록 한반도가 소련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한 부분집합으로 존재하지만 그 중요성은 소련의 동북아시아 정책을 결정짓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변화는 소련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드미트리신(Basil Dmytryshyn)교수는 소련의 동북아시아 정책속에서의 한반도의 구체적 의미를 다음 다섯가지로 보았다. 첫째, 소련이 한반도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경우 소련은 만주방면으로부터 중공을 “협박”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다. 둘째, 소련은 자신의 한반도 “지배”를 통해 아시아대륙으로부터 미군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일본이

논 단

동북아시아에서 소련의 의도에 맞춰 행동하게끔 일본을 강압하는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심리적 지렛대를 제공한다. 네째, 한반도가 소련에 장악되는 경우 한반도는 소련함대에게 많은 “뛰어난 부동항”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련은 북태평양에서 거의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된다. 다섯째, 소련의 한반도장악은 한반도를 포함한 소련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산재한 풍부한 인적 및 자연적 자원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¹¹⁾

나. 한반도에서의 소련의 정책 전망

앞에서의 분석으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당분간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김학준교수는 1980년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정책을 다음 세가지로 분석하고 있다.¹²⁾ 첫째 “소련이 동북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로 일차적으로 미국과 중공이 제휴하여 반소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미 1979년 우리가 주장했던 “태평양정상회담안”¹³⁾ 1972년 일본이 주장한 전아시아회의, 1973년의 아시아 제국(諸國)연맹(Union of Asian Countries)¹⁴⁾ 등을 소련은 자국에 대항하는 아시아국가들의 연합체 구상

이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즉 미·중공국교정상화, 중·일 국교정상화 등을 발판으로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일본, 한국이 주축이 되어 소련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대항, 일·중·한국을 위시로 강력한 반소블록을 형성하려 한다는 것이 소련측 주장이다. 따라서 소련은 일본의 재무장과 이를 통한 미·중공세력의 결합을 막고 나아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자신의 그것과 대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¹⁵⁾ 둘째, “소련은 한반도의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존재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 전쟁속으로 끌어들여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소련은 북한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기 위한 한반도의 긴장관계 유지는 어느 정도 바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째, 소련은 1980년대 말, 또는 1990년대 초까지도 한국을 승인하거나 공식관계를 세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친서방관계를 유지하고 소련의 시각에서 공공연히 한국을 “극동에서 가장 맹종하는 미국의 위성국”이라고 보

는 이상 소련의 정책변화가 자신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한편 한국에 대한 소련의 승인은 북한과 중공과의 관계를 밀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Ⅲ. 結 論

- '80년대 한국의 대소접근방향

적대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이 일순간에 친교관계로 돌아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보았듯이 양국이 친선관계 성립을 바라면서도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를 보았던 것이다. 아마도 소련과 한국의 관계가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성급한 방향전환이나 관계개선노력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르므로 서서히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양국의 공통관심사 및 이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과 소련의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은 크게 북한이라는 장애요인, 이데올로기적 차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정권수립때부터 소련의 영향권하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

근 소련과 북한관계가 밀착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최근 남·북간의 통일방법과 수많은 선언속에서 소련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북간의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소련이 북한이 반대하는 대한국정책을 취할리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이데올로기적 차이이다. 아직도 우리는 반공국가의 일선임을 자처하고 있는 입장이고 6·25를 통하여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비극을 맛본 우리로써는 공산주의를 인정한다던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비록 최근 국제정세가 탈이데올로기적, 즉 국가이익 우선주의로 흐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련과 한국이 서로 상대방의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관계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이다. 이 문제는 동북아를 둘러싼 4대강국의 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의 관계를 살펴 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현상의 유지를 바라는 입장이며 그런 맥락에서 강대국간의 타협과 협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변화가

논 단

일어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소련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평화정착을 위해서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지름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면에서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외교적인 면이다. 현재 양국간의 공식적인 외교관리의 상호방문은 없었지만 제 3국에서나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접촉할 때마다 우리의 관계개선 의지와 입장을 설명하며 정부 고위층의 상호 방문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문화적인 면이다. 이미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과거에도 양국간에 존재해왔던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가 공식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위 민간차원의 외교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힘으로써 사회적으로 소련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을 점

진적으로 추구하고 그를 통한 지속적인 접촉을 모색해야 하겠다.

셋째, 경제적인 면이다. 현재 소련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놓여 있다. 고르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 “페르스트로이카”가 이러한 소련의 경제상황에서 발상되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소련이 계속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베리아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이 지역 개발에 필요한 하부구조 건설 및 소비재, 개발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참여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만큼 미국이나 일본 기업과의 공동협력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현재 일본이나 서구국가가 수주한 플랜트에 우리의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직교역의 확대를 통한 소비재 품목의 확대 수출과 원료 수입을 위한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註 解 —

- 1)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서울 : 박영사) pp. 472 ~ 473.
- 2) Peter Duignan, “The World Wide Threat of Soviet Communism” i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No. 2, (Fall-Winter,

1982) pp. 234~259.

- 3) 제 27차 소련공산당대회의 자세한 내용과 분석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 신승권 “소련 제 27차 당대회와 대내외정책”, 「국책연구」(1986년 여름) pp. 196~212.
 - Yong-Chool Ha, “The 27th Congress of the CPSU”,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Fall 1986), pp. 529~549.
- 4) Hunter Holland(ed),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 1978~1985(Boulder : Westview Press, 1978) p. 22.
- 5) 이기택, “소련의 아시아전략 변화에 따른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좌표”, 「월간 사회발전연구소 소식」 제 2권, 제 8호(1986년 8월). p. 2.
- 6) 김수희 “시베리아 개발과 한·소 협력 가능성 연구” “대소 접근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서울 : 한국 외국어대학교 소련 및 동구문제 연구소, 1982). p. 75.
- 7) 김학준 전개서 p. 504.
- 8) 김학준 상개서 p. 505.
- 9) 김유남 “북한 - 소련과의 관계변화” 이흥구, 스칼라피노(공저) 「북한과 오늘의 세계 : '80년대의 대외적응」(서울 : 법문사, 1986) p. 177.
- 10) 이러한 분석은 Ralph N. Clough의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in Zagoria(ed), Soviet Policy in East Asia(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한반도가 소련과 접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코리아에 있어서 소련의 근본적 이해관계는 소련의 국경이 접해있는 반도의 위치에서 파생하는 전략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앞의 책 pp. 175~176).
- 11) Basil Dmytryshin. “Soviet Perceptions of South Korea “in Park and Ha (eds)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Seoul : The Institute fo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84), p. 164.
- 12) 김학준, 전개서, p. 493.
- 13) 자세한 내용은 박재규, 정태동, 염홍철(공저) 「아시아·태평양문제 기초연구 :

논 단

지역협력체 구상을 위한 방법론적 시안」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3). 제 6 장 “한국과 태평양지역 협력체 구상”을 참조할 것.

- 14) Morinosuke Kajima, The Road to Pan-Asia(Tokyo : The Japan Times 1973).
- 15) R. J. Rummel, “Soviet Strategy and Northeast Asia”, Korea & World Affairs, Vol.2, No.1, (Spring, 1978), p. 3.





Site 지역에서의 정신전력과 종교와의 관계

I. 序 論

정신전력이 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버린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또한 심각하게 급변하는 이념과 공산권과의 태도변화 등에서 군은 그 정체성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정신전력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며 분명한 전력의 확보가 요청될 때가 온 것이다. 정신전력은 군의 사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 체면을 유지하고 장병들의 사고요인을 제거하는 정도나 이념교육을 통해 사회 곳곳에 확산되는 좌경세력의 이념을 견제하는 정도의 미약한 교육으로 끝나서는 아니되는 사실상의 중요한 전력이다.

이 정신전력은 군의 기능 가운데 특별히 고생하는 특수부서에만 한정된



대위 강선정
(제 8386부대)

'6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공사 31기로 임관했고 대전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군종목사로 근무중이며 사관학교를 졸업한 목사답게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사목활동을 펼치고 있다.

것이 아니라 사무적 기능을 가진 부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원인 것이다. 공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군의 기본기능인 군기와 인간관계 보다는 항공기의 운영과 공중감시, 정밀기술작업 등에만 관심을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

논 단

간을 다루는 모든 일에 조금은 미숙하고 약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성원 각자가 그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복합성을 가진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Site란 곳은 공중감시의 최첨단 지역이며 공군에서 가장 많은 수고와 땀과 인내가 요청되어지는 곳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정신전력은 무슨 의미를 가지며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와의 관계를 나름대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무형적인 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글의 취지를 좀더 깊이있게 하기 위하여 이곳 8386 부대의 장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글이 다루는 Site적 특성은 8386 부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II. 本 論

1. 정신전력의 필요성

대한민국이란 특수상황 속에서 누구나 20대에 군을 거쳐야 하는 의무복무란 제도 안에서 군집단은 임시적

집단의 특성을 지닌다.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병과 고급인력인 장교들 가운데서 소수의 장기자를 제외하면 군조직의 구성원들은 1년~5년의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임시적 집단이란 의미는 곧 자기자신을 성취하거나 결론적인 이익을 대변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크게 가질 수 없으며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특성을 못 갖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소극적이며 자기방어적인 요소를 많이 갖는 집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특성은 곧이어 군집단이 생산을 위주로 하는 창의적인 집단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관리하고 소비하면서 전쟁방지라는 견지의 임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소수의 지도자적 Elite를 제외한 구성원들은 창의적인 사고나 탄력있는 조직운영에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적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정신전력의 극대화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신전력의 극대화는 각 구성원의 의식을 Dynamic하고 탄력있게 교정함으로써 적극적이며 자발적이고 주인의식을 갖는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

정신전력은 군 어느곳이든지 요청되어 지며, 전쟁수행이라는 외형적인 힘을 구성하는 내면적인 바탕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조종사의 경우에 외형적인 힘은 바로 Decisive force이다. 즉 공중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파괴력이다. 이 파괴력에 예를 들어 공대공 작전능력과 공대지 작전능력이 있다고 보았을 때 조종사는 적기와의 Dog Fight에서 우세한 위치확보와 적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G-Force를 감당해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힘을 받았을 때 이를 포기한다면 곧 그것은 생명을 포기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공군의 선진들 속에서 임택순씨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고통을 싸워 이기려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체력인가? 훈련인가? 모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정신력에서 좌우된다. 이기려는 의식과 인내의 정신력 등이 바로 무형의 힘이며, 이것이 외형적인 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 정신전력은 단순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합적인 근원을 가지

고 있다. 이 힘을 구성하는 정신력은 그가 살아온 환경과 교육, 인생관, 종교, 가치관 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전력이란 단어가 단기간의 교육이나 강화(Inforcement)작업으로서 가능한 작업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성을 띤 구체적인 노력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2. Site의 특성과 정신전력

우선 Site지역이라는 특수성에는 다음 몇가지의 고충을 전제로 한다.

- 가. 고산지형에 상주해야 하는 자연환경의 애로점
- 나. 문화, 교육, 환경의 제한성
- 다. 구성원의 잦은 교체와 이동
- 라. 적은 인원에게 부과된 업무량과다

이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다 8386 부대의 경우 추가하여 1시간 30분의 출근거리와 혹독한 추위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오는 무력감, 도로공사에 투자되는 시간 등등 인내하고 싸워야 할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하여 Site지역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요소들은 무관심, 자기포기, 실속만 차리는 근무태도, 외출휴가의 지나친 기대, 메마른 정감,

논 단

피해의식 등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는 최전방의 공중감시와 요격관계의 임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벽고지일수록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과 수고가 요청되어진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시한 정신전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을 이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Site지역에서의 종교활동은 다양한 것을 제공받을 수 없는 집단에게 개방되어진 유일한 창구일지 모른다. 그래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무엇을 통해 정신전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종교에 29%의 긍정적인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이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부서로서 정훈을 들 수가 있다. 오히려 부대원들은 정신전력을 증대시키는 부서로서 정훈, 군중, 자기소속부서(40%, 30%, 27%)기타(3%)를 꼽고 있다.

정훈의 일반적인 역량은 정신전력의 객관적인 파수꾼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으며 군중에서 제한받는 계반교육, 예술·문화 전반에 걸쳐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한다.

Site의 정신전력을 좌우하는 커다란 특성으로서 또한 지휘관과 정신전력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지휘관과 정신전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묻는 질문에 53%의 응답자가 관계가 깊다고 대답하며 그저 그렇다(29%), 없다(11%), 기타(7%)의 응답을 하고 있다.

지휘관의 관계가 큰 이유 중의 하나는 Site에서의 지휘관은 그 부대의 성격과 진로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정신전력에서 모든 일반업무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성격이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종교를 가지고 다양한 정서를 지닌 사람일 경우 그 부대의 정신전력과 사기는 고무적이고, 분위기 역시 만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면에 메말라 버리고 오직 사역과 부대환경개선의 욕구를 실현하려는 지나친 욕심을 가질 경우 그 부대의 정신전력은 최악의 경우가 되며, 타성과 불만 속에 조직의 사기는 최하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Site의 지휘관은 지휘능력에 정신적인 배경 등이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고려가 정신전력의 숨은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Site에 근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자기시간 부족(44%), 자연환경의 고통(33%), 수면부족(19%), 성적인 억제(4%)라고 응답했으나 많은 응답자들이 전체항목에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Site의 어려움이 복합적이며,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Site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서 그 가운데 정신전력을 살펴 보았다.

하나의 단위정신전력을 생산하려면 수많은 복합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은 특수한 분야에서만 주도해서도 가능한 작업은 되지 않는다.

단지 모든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자기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살아가는 길이 곧 국방의 길이며 자신의 발전이 정신전력의 발전임을 깨닫게 하는데 정신전력의 효과적인 슬기가 모아져야 하는 것이다.

3. 종교와 정신전력

종교와 정신전력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이 질문에 응답자의 67%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만큼 종교는 정신전력의 커다란 함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종교가 먼저

나 정신전력이 먼저냐 하는 관계를 점점해 보아야 한다. 흔히들 종교는 정신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즉 종교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정신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으로 종교와 정신전력과의 접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종교는 정신세계의 악세서리가 아니고 주체가 되는 것이다. 종교는 신비의 능력을 빌어 부대의 안전을 기원해 주고, 지휘관에게 복을 주며, 소수의 신자들을 위해 편안하게 예배를 제공해 주는 군의 한 부서 정도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신앙의 힘이란 것은 신앙하는 자 모두에게 더 이상 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신적인 공급을 통한 본질적인 가능성과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한 현실적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강력한 능력인 것이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것을 이해시켜 보고자 한다.

Site 지역에서 사병이나 단기병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조직이나 지휘력만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여기에 상담활동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논 단

제거하며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해 주는 신앙적 가치관의 기초 위에서 대화할 때 대부분의 문제사범들은 만족하고 해결받는다.

어느날 단기병 한 명이 찾아왔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우선 이곳에 배속받은 후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초보적 상태에서 목사와 대화하고 싶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부대의 특수한 사정으로 그가 근무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평소 앓아오던 허리 Disk가 도진 것이다. 그는 복잡한 근무환경의 변화와 병든몸 때문에 근무에 짜증스럽고 도피하고 싶다고 고백을 한다. 결국 그의 문제점은 허리의 통증과 근무조건의 불안 등이 주요 이유가 된다. 나는 이 악조건을 극복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일깨워주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 삶의 고통과 세상의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난과 연단의 수고가 신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성서를 통해(벧전 4:17~19) 설명하고 그의 현실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다. 아울러 그의 허리통증은 부대 군의관과 상의하여 치료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신앙의 능력으로 치료하고자 하여 또한 그에게 안수기도를 행하게 되었다.

그에게 정신과 육체에 동시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의 빛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적인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그 친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대 구성원 누구에게든지 신앙의 손길과 관심 등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전력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신전력이다 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정신전력은 이미 산산조각나며 사라져 버린다.

정신전력의 증대는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자기노력이 52%, 종교 20%, 정훈활동 11%, 부대 교육 5%, 기타 12%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정신전력이란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기발전과 정신전력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질문에 71%가 관계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종교를 갖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62%가 그

령다는 반응을 또 26%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결국 자기자신의 의미있는 발전이 정신전력을 증대시키며 이 개인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종교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깊이있게 개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종교는 정신전력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특히 Site 지역에서의 종교활동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부대에서의 어머니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신전력을 관리해 낼 수가 있다.

종교가 정신전력의 증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은 자기자신의 발전을 가치로 여기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자아의 가치를 발견케 하며 그 자아의 원만한 사회적 성숙을 도우며 성숙된 종교적 자아가 그 조직내에서 자신과 조직과 국가를 위한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종교활동은 장려되어야 하며 활발한 종교활동은 성공적인 정신전력 증대의 열쇠가 된다.

III. 結 論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군의 정신전력은 한 차원 도약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요청되는 군의 엄연한 현실이며 더 이상 무분별한 군의 단순함을 벗어나야 하는 자기탈각의 고통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Site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정신전력을 다루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엄살을 피우는 내용이 다루어진 것 같아 부끄럽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을 통해 당연히 생각되어 지는 것들이 한번 더 생각되어야 하며, 자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돌이켜 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Site에서 젊음과 평생을 바쳐야 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하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그들의 보람에 더 큰 기쁨을 선사할 노력도 공군의 지도자들간에 논의되어야 한다.

성서에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한다. 그때 젊은이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시험을 물리친다.

인간! 과연 떡이 없이 생존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공군에 이제 정신전력지도부라

논 단

는 전문적인 기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군의 장래를 위해 고무적
인 일이며, 일시적 방편이 아닌 미래
를 겨냥한 장기적 안목의 기관이 되
기를 기대한다. 뛰어들면 더 깊어지

는 정신전력의 심정을 향해 늘 연구
하고 생각하면 공군의 가족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막대한 정신전력의 구
성원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날이 올
것이다.





괴테의 파우스트

독일 문학의 대부격인 괴테의 전생애의 예술화라 할까, 혹은 그의 사상과 예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파우스트를 음미해 보면서 괴테의 인생철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괴테의 「Faust」는 2부로 되어 있으며, 1부는 1808년에 2부는 1832년에 공간되었다. 그러나 그가 소년시대부터 중세기의 Faust 전설이나, 인형극 Faust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Faust를 작품화하고 싶은 의욕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의 1768년작 「동죄자」에 파우스트박사의 이름이 나타나 있으며, 「Faust」의 초고인 「Urfaust」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773년이다.

이와 같이 「Faust」의 완성에 실로 60년 가까운 세월을 요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의 Goethe의 전체 경험과 전 사상의 결정이며 집대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Goethe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엑커만(Eckermann)에게 「이제 나의 여생은 순수한 선물이다」라고 만족해



중령 신표근
(공군사관학교)

'47년 전북 부안에서 출생했다. 공사 18기로 임관했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했다. 현재 공사 인문학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였으며, 그후 그는 겨우 반 년 밖에 살지 못했던 것이다.

「파우스트」의 제1부는 최초에 「헌시」와 「무대의 전곡」이 있고, 그다음에 「천국의 서곡」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전체의 윤곽이 암시된다.

즉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는 천상의 신과 내기를 하여 기어코 파우스트를 유혹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거기에 대해서 신은 파우스트가 결국은 올바른 길을 찾아

갈 것을 확신하지만, 그에게 시련을 주기 위하여 메피스토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을 허락한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은 방황하는 것이다.」(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하지만 신은 동시에 「선량한 인간은 설혹 컴컴한 충동을 받더라도 역시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Ein guter Mensch, in seinem dunklen Drange ist sich des rechten Weges wohl bewupt.) 하고 메피스토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메피스토는 관능적 향락과 욕망의 충족으로 인간을 유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만은 신과의 내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괴테 (슈티일러화, 1828)

본곡에 들어가서, 제 1부의 막이 열리면 50여 세의 노교수 파우스트가 중세의 고딕식 연구실 속의 책에 파묻혀 혼자 앉아 있다. 그는 우주일체의 가장 깊은 진리의 본질을 구명하고자 철학, 법학, 의학, 신학 등 인간의 지혜가 미칠 수 있는 모든 학문에 통달하였으나, 목적하던 우주의 본체와 창조의 원리는 조금도 해명할 수 없다고 탄식한다. 아무리 발돋움을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써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일찌기 배워 두었던 영술을 사용하여 초인간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나 역시 실패한다. 그래서 그는 구차스러운 육신에 얽매었기 때문에 드높은 자신의 이상을 따를 수 없음을 통감하고, 인간이라는 탈을 벗어나서 영들의 세계로 하늘높이 비약하려는 결심을 한다.

그는 사방의 벽에 가득한 서적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고 고요한 밤중에 홀로 독배를 마시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부활절의 새벽종소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노래하는 합창소리가 들려 온다. 그 희망에 넘치는 맑은 목소리는 그의 굳어붙은 마음을 다시금 아득한 옛날의 생의 환희로 일깨워 주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들었던 독배를 떨어뜨린다. 그가 필생의 학구와 해박한 지식과 정신력으로서 얻지 못하였던 다른 하나의 생의 의의를 그 소박한 인간의 근원에 있는 자연성으로써 다시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부활절에는 오래간만에 거리에 나가기로 하고, 민중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하면서 한낱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향락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것으로써 지금까지 도달치 못했던 진리를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산책길에서 돌아올 때 그는 한 마리의 강아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변신이었다.

다시 서재로 들어온 파우스트는 새로운 의욕으로써 신약의 요한복음을 사랑하는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우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말씀」 Logos 를 독일어로 「말」 das Wort 라 해 놓고 벌써 막혀 버렸다. 「말」 das Wort 를 그렇게 까지 높은 뜻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뜻」 der Sinn 이라고 고쳐 본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이어서 또 다시 「힘」 die Kraft 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방

향을 잡을 수 없어서 결국 「행위」 die Tat 라고 하여 「태초에 행위가 계시느니라」고 해 놓고 일단 안심할 수가 있었다. 즉 우주의 근원에 존재하여 만물을 조성하는 본체를 「행위」라고 한 것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이념과 상통하는 사상이기도 한 것이다.

한편 파우스트를 따라온 강아지(사실은 메피스토)는 학생의 모습으로 변하여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고, 이어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계약은 성립되었다.



연극 「파우스트」의 한 장면

내가 어느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는 정말로 아름답다!
소리칠 땐, 네 마음대로 결박하려무
나.
나는 즐거이 멸망할 것이고,
죽음의 종소리가 울릴 것이다.

Werd' ich zum Augenblicke
sagen :
Verweile doch, Du bist so
schön!
Dann magst du mich in Fesseln
schlagen,
Dann will ich gern zu Grunde
gehen!
Dann mag die Totenglocke
schallen!

그리하여 메피스토는 현세에서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 인간사회의 모든 향락과 부귀를 누리는데 협력을 하지만, 대신 내세에 가서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만약 파우스트가 향락과 유혹에 빠져서, 어디까지나 향상노력하는 그의 기상을 잃어 버린다면 _____ 즉 어느 한 찰나에 향락의 극치를 맛보고 거기에 탐닉하여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_____ 자기는

멸망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파우스트를 타락시키고 그의 영혼을 탈취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려는 악마 메피스토와 오히려 그 악마를 노예처럼 부리며 그의 재주를 이용하여 넓은 세계의 모든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심오한 학구로써 얻지 못했던 인간과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해 내려는 파우스트는 함께 인생수업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은 아우어바하(Auerbach)의 학생술집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무례도하고 난잡한 음주와 소란이 노련한 파우스트에게 별 흥미가 없었다.

그 후 메피스토는 그를 관능과 성욕의 방법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마녀의 굴로 이끌고 갔다. 거기서 그는 마약의 힘으로써 그를 20대의 청년으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어떠한 여자하고도 정욕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악마에 의해 모든 준비는 다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젊은 파우스트가 최초로 만난 여인은 마침 지극히 순결하고 귀여운 그레트헨이라는 처녀였다. 과연 메피스토의 계획대로 파우스트는 그 소녀에게 단번에 반했지만, 그것은 예상외로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젊은 남녀의 사랑은 메피스토의 마술의 힘도 개입되어서 끝내 넘지 못할 선을 넘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해서 예기치 않았던 죄과까지를 저지르고 말게 되었다. 순결하고 천진난만하던 처녀 그레트헨도 어느새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남을 향한 일편단심에 마음이 팔려 실수로 자기 어머니를 죽였을 뿐 아니라, 순박한 오빠까지 죽게 하고, 급기야 사생아를 낳아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정신이상 상태에 빠져 영아살인의 무서운 결과를 빚어 냈다. 한편,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의 유혹과 계략에 빠져서 환락경 「발푸르기스의 밤」에 참석하고 있었으나, 자기의 애인 그레트헨이 그러한 고난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즉시 메피스토를 강요하여 그녀에게로 달려간다.

파우스트는 환락과 도취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뿌린 죄의 씨를 회피함이 없이 달게 받으려는 각오가 있었던 것이다. 그레트헨은 이제 완전히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애인 파우스트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운 사형을 눈앞에 그리면서도 구원하러 달려온 그와 함께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에, 차라리 형을 달게 받음으로써 자기의 육신을 신께 바쳐 신의 심판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그녀는 함께 도망치자는 파우스트에게 오히려 「당신이 무섭다」고 말한다.

그 때 메피스토는 그 광경을 보고 「저 여자는 처벌되었다」(Sie ist gerichtet)고 말하지만, 동시에 찬상에서는 「구원되었다」(Sie ist gerettet)하는 소리가 들려 내려왔다.

인간의 어떠한 죄과도 진실한 인간성과 양심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괴테의 독특한 기독교 정신이 나타나 있는 자리이다.

제2부에 들어가면, 파우스트가 미를 추구하여서 생의 의의를 파악하려 한다. 제1부가 악마의 힘으로써 현세의 향락과 체험을 얻어 우주의 본체를 구명하려다 비극으로 끝남에 비해, 2부는 고전미의 전형으로서 희랍미녀 헬레나를 따라가서 그녀와 결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므로 헬레나의 비극이라 칭한다. 이것으로써 괴테의 청년기에 집필한 제1부와 고전기에 집필된 제2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더러 전체를 통해 볼 때 괴테의 이념이 인류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그의 만년기의 소

신을 나타내려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1부의 끝에서 파우스트는 그가 겪은 그 비참한 체험으로 정신과 육체에 타격을 받고 쓰러져 버렸으나, 이제 다시 자연의 위대한 소생력으로써 새로운 갱생과 용기를 가지고 깨어나는 장면으로써 제 2부의 시초가 이루어져 있다.

메피스토는 그를 이번에는 「대세계」로 안내한다. 그는 제 1부에서 그를 「소세계」, 즉 도시민의 세계이며 인간의 개인생활의 근본을 체득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으나,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보다 상류의 공공적 성질을 띤 곳으로 데려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제국의 궁전에 들어간다. 거기서 그는 지하의 보물을 담보로 지폐를 남발하여 재정난을 구한다. 그 공으로 파우스트는 중용되었고, 그 재주로 황제 앞에 세계의 고금을 통한 미남과 미녀인 파리스 및 헬레나를 불러내 보라는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메피스토의 마술을 가지고도 이미 지나간 고대 그리스의 인인물을 살려내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메피스토한테서 얻은 열쇠를 가지고 시공을 초월한 「어머니들」의 나

라로 건너가서, 거기서 헬레나의 형태를 빌어온다. 파우스트는 거기서 마의 열쇠의 자력으로 3각의 향로를 이끌어 왔으며, 그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파리스와 헬레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본체가 없고 그저 형태뿐인 환상이었는데,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파우스트는 그것을 껴안으려고 하였다. 그 때 그 열쇠가 그녀에게 접촉되면서 폭발하고, 파우스트는 기절하였다.

제 2막에서는 기절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에 운반되어 예전 파우스트의 연구실에 누어져 있다. 예전의 조수였던 바그너가 이제는 명교수가 되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조인간 호뮴쿨루스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조그마한 유리병 속의 소인간은 매우 총명하여 지금 잠자는 파우스트의 꿈을 투시한다. 그 때 파우스트는 헬레나 출생의 아름다운 정경을 꿈꾸는데, 그것을 인조인간이 투시하고 그를 미의 고전의 나라 그리스로 데리고가서 잠깨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그를 비행망토에 태워서 그리스로 운반해 간다. 그리스의 텃살리아에서 잠이 깨어 파우스트는 헬레나를 찾아서 헤매었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한편, 호뮴쿨루스는 정신뿐인 존재이어서 육

체를 갈망하였고, 사랑의 여신 가라테아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다가 드디어 유리병이 깨져서 불꽃이 되어 흘러가 버렸다.

제 3막에서는, 트로야로부터 왕비 헬레나가 희랍군에 탈취되어 스파르타로 돌아온다. 그녀는 변장한 메피스토의 안내로 게르만의 침입군의 수령에게로 인도되어 가서 결혼하게 된다. 그 수령이 바로 파우스트이었다.

중세 게르만의 영웅과 희랍미인의 결합은 복구의 생명력과 남구의 형식미와의 조화를 의미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이פור리온은 영국의 천재시인 바이런을 암시하고 있다.

조속한 천재 오이פור리온은 경쾌하고 개성적이며 투쟁적이다. 그는 그리스의 독립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양팔을 날개처럼 펼치고 언덕에서 대담한 비약을 하여 거꾸로 떨어져 그 아름다운 육체를 없애 버렸다. 헬레나는 그 뒤를 따라 지승으로 갔고, 이제 파우스트에게는 그녀의 걸옷만이 남아 있었다. 즉, 여기서 고전주의의 껍데기인 형식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주의적 세계의 방문으로 사상이 풍부해져서 돌아본 파우스트는 미적 향락으로 이루지 못한 만족을

인류사회의 공익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 노력으로 얻으려 한다. 그는 광대한 해안지대의 간척지를 개간하여 만인을 위한 육도를 형성하려는 큰 계획을 세웠다. 그러기 위하여 황제의 강적을 격파하고, 그 보상으로 토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상을 꿈꾸고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비로소 마음의 행복을 얻었다. 연령이 백세에 도달하여 메피스토가 불러낸 「근심」의 요녀가 땀을 입김으로 눈까지 먼 그는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 의의를 발견하고, 「멈추어라 순간이여,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다!」하는 소리를 하였다. 그래서 메피스토는 약속대로 그의 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의 유혹에 빠져 향락이나 물질적 욕심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가 내기의 조건에는 졌을 망정 그 내용에 있어서는 최후의 시련에까지 훌륭히 이겨 낸 것이나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의 영혼은 구원될 자격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 단순히 자력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천상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괴테의 종교관이었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하고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마귀들로부터 빼앗아 구출하지만, 그것이 천국에까지 오르기에는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거기에 속죄의 여인이 하나로서 옛 애인이었던 그레트헨이 나타나 성모에게 그의 영혼을 위한 은총을 빌었다.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천국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Das Ewig-Weibliche
Zieht uns hinan.

이것이 이 대작의 마지막 귀절인데, 하나의 여성 그레트헨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여성적인 힘과 합쳐서 비로소 그를 무한의 높은 곳까지 인도하여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괴테가 여러 여성의 힘으로써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 보다도 게르만이 고대로부터 독일남성이 항상 여성을 통하여 정화되고 향상되었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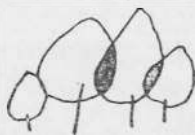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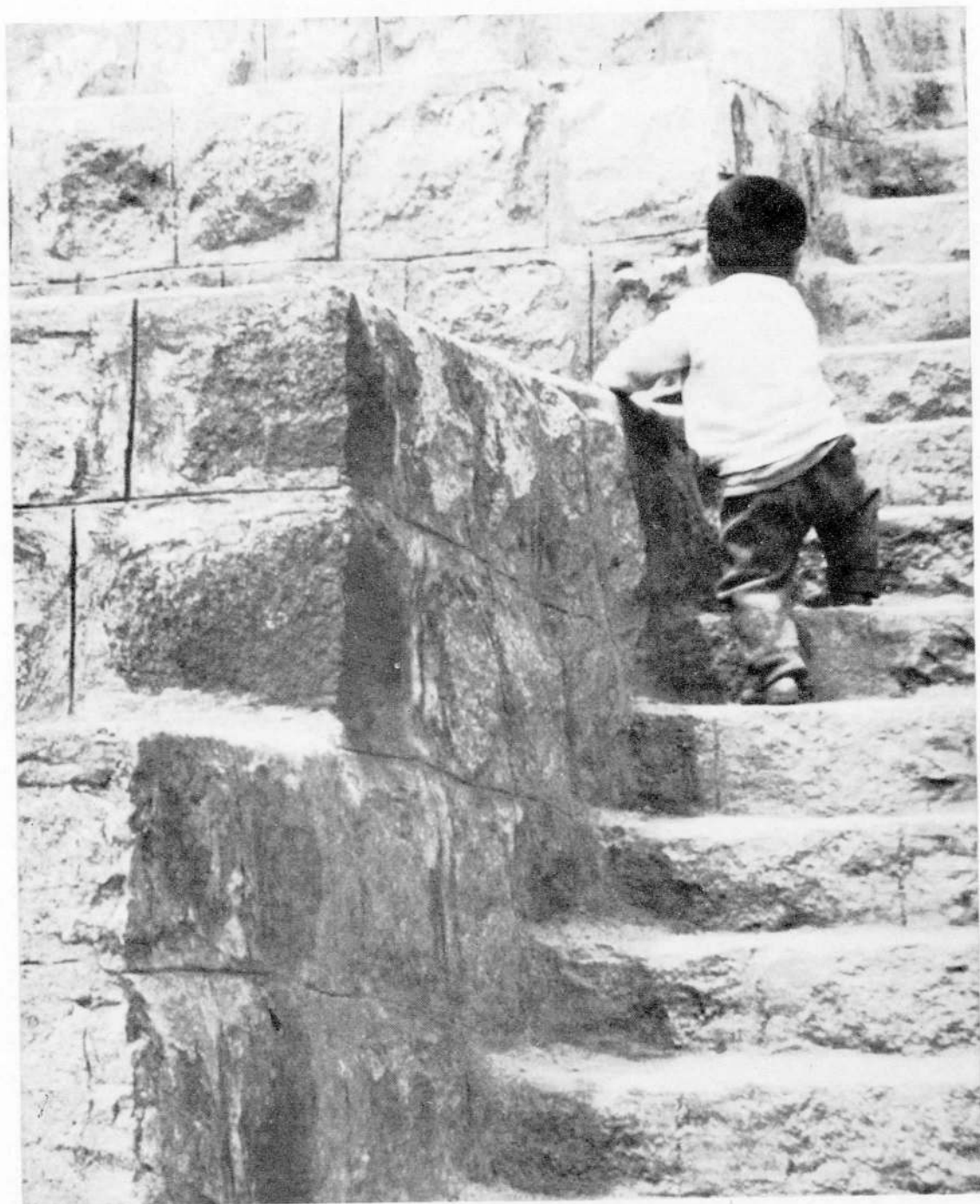


PHOTO ESSAY

인 생



작은팔 작은다리로 오르려 했던 커다란 계단들.....

PHOTO E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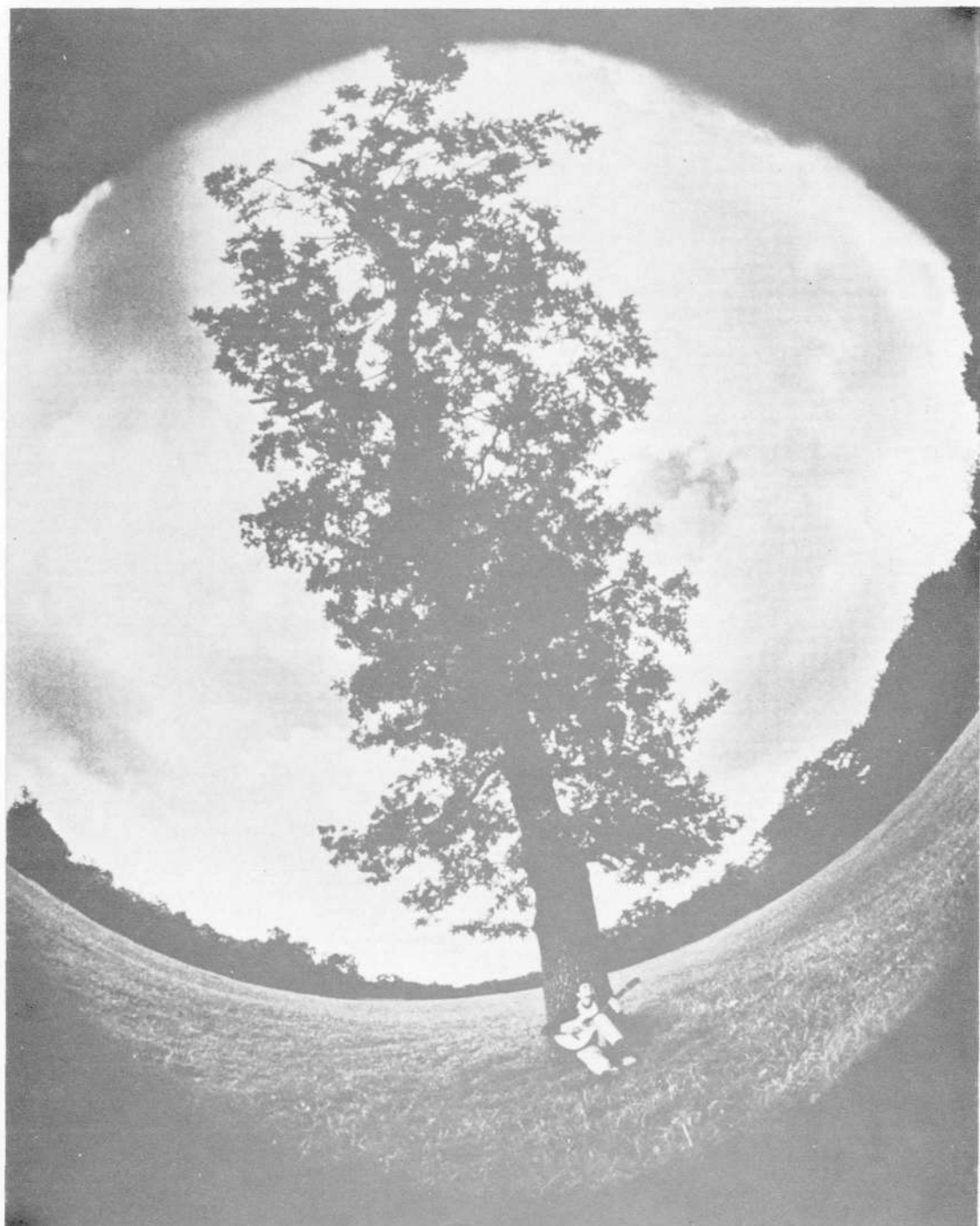
인 생



소유라는 개념은 만족과 희열을 주었지만,

PHOTO ESSAY

인 생



높은 하늘과 동그란땅 사이에서의 나란 존재는
작은 기타현의 울림 마냥
가녀림도 알았다.

PHOTO E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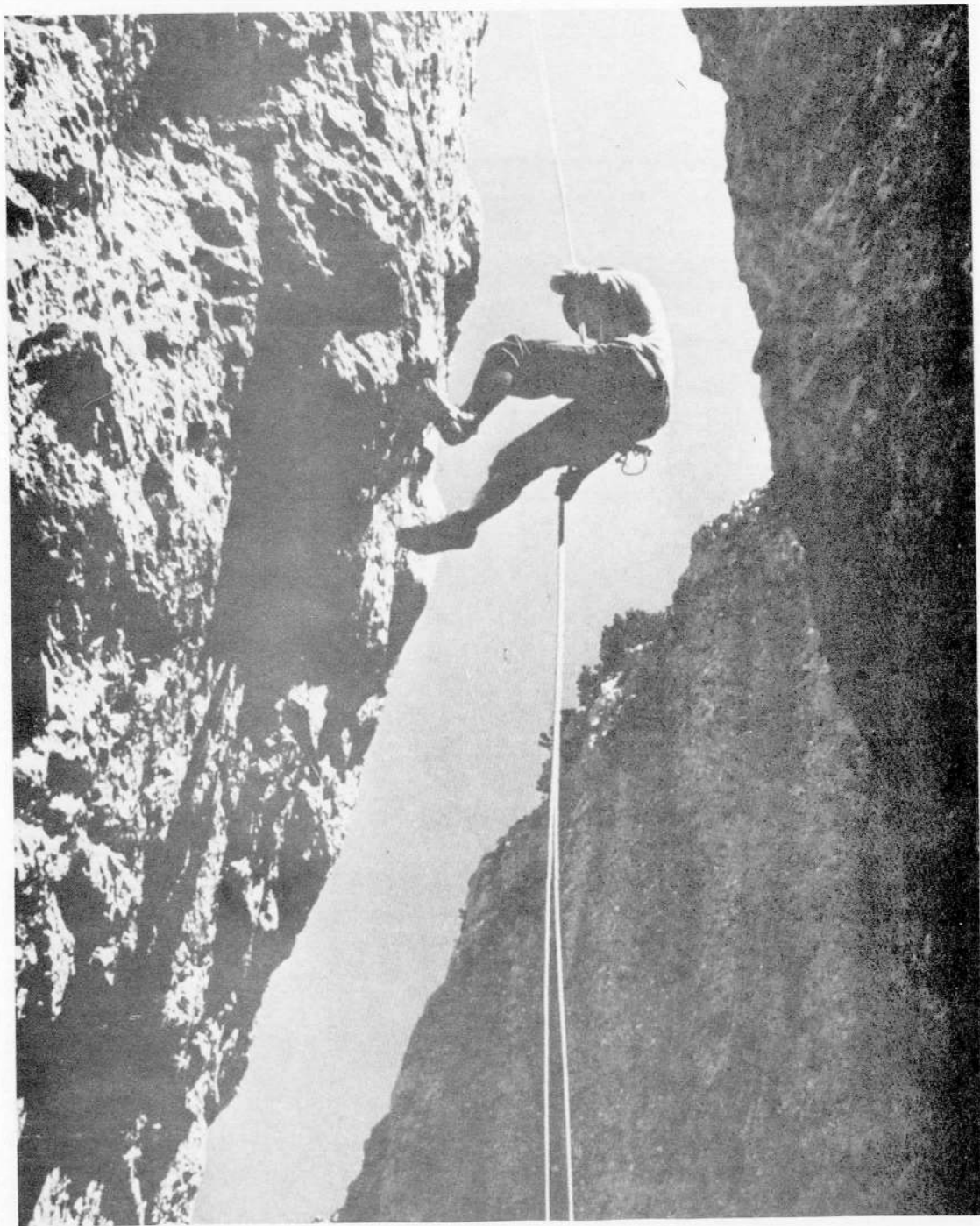
인 생



그러나 이길은 하늘로 달아 있을것 같기에
고개를 돌리면 내리막 길임을 알면서도
오르고 싶었다.

PHOTO ESSAY

인 생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
내안에 산이 있음을 알까
산이 나임을 알까.

PHOTO ESSAY

인 생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생명없는 권위의
초라함을 알려줄 때

PHOTO ESSAY

인 생



옛 榮華를 뒤돌아보며
우린, 지푸라기처럼 초라해지기 보다

PHOTO ESSAY

인 생



반쯤 열린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고목으로
남고 싶은거다.

■ 글 : 강성구
■ 사진 : 분도출판사 제공



미래의 컴퓨터

21년의

국내 컴퓨터 역사상 국내 최초로 도입된 슈퍼컴퓨터는 미국 CRAY사의 CRAY 2S/4-128로서, 이 컴퓨터는 이전의 컴퓨터와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과학과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몇몇 대학 및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차원에서 무기설계, 워게임(War game), 전투기 설계, 기상분석 등 많은 분야의 응용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슈퍼컴퓨터의 이해를 돕고자 최근 3월말의 TIME지가 커버스토리로 다룬 "FAST AND SMART"를 중심으로 슈퍼컴퓨터의 현상황 발전추세 및 응용분야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일리노이대학의 컴퓨터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현상의 재현을 꾀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십 억년 전 우주의 대폭발 후에 재창조되는 모습으로서 이 컴퓨터는 양자나 전자같은 자신의 중력에 끌리는 미세한 입자들



중위 정찬기
(공군본부)

'61년 광주에서 출생했다.

'86년 공사 34기로 임관했으며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현재 전산장교로 전산처에 근무하고 있다.

의 아주 커다란 구름덩이(수십 억년 전의 우주의 무질서한 모습)를 원격 화면에 표시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그 모양은 선명한 빨간색, 녹색, 청색으로 아름다울뿐 아니라, 우주의 진공속에 태초의 무질서로부터 생긴 거대한 구조의 다양한 밀도를 표시한다.

MIT의 또다른 컴퓨터('인공지능'은 이미 세살된 어린애가 알고 컴과 반침접시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한다.

즉, 컴퓨터 처리절차를 보면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을 컴퓨터는

단지 한번에 한 단계씩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인식한다. 먼저 사물의 개념, 즉 모서리와 표면에 의해 그 물체의 공간으로부터 구별되는 물리적인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손잡이 밑이 막힌 둥그런 구멍, 안정된 바닥(접을 의미한다)과 같은 찻종의 특성을 알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컵과 같이 단열성이 매우 좋아 손잡이가 필요없는 예외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처럼 인간이 한번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도는 오늘날의 컴퓨터과학의 핵심으로서 인공지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는 사실 지적능력도, 눈도 없는 말뚱하는 피조물이다. 물론 인간과 같은 사고력의 초기의 희미한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컴퓨터이었으나, 아주 제한적인 인간의 모방이었다. 40년 동안 과학자들은 컴퓨터 연구의 이 두 미개척분야(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즉, 슈퍼컴퓨터로 알려진 아주 빠른 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연구한 한 팀은 항상 좀 더 빠른 속도, 처리능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인공지능의 근간을 제시한 프로그램을 만든 다른 한 팀은 인간사고(인공두뇌)를 컴퓨터에 이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엄청난 연구비를 들이고, 당대의 가장 우수한 재원들로 구성된 이 두 가지 거대한 과학계획은 컴퓨터계의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광범위한 컴퓨터 연구의 두 부류는 수렴되어질 조짐이고, 오늘날의 가장 진보된 컴퓨터(인공지능)는 언젠가는 단지 아주 빠르고 스마트하지는 않지만 전자두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연구는 많은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산업생산성(자동차모델, 반도체칩 Layout 등), 과학연구(태풍, 홍수예보, 지진연구, 기상 등) 등 잠재적인 보상이 참여를 부채질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처음 상업적인 계획은 개발시작 5년이 되기 전에 등장했고, 지금은 폭넓은 응용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4반세기 동안 정부연구소나 정보부서에 고속의 프로세서(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를 내보내는 장치)를 공급해 오고 있는 슈퍼컴퓨터 제조업은 대부분의 낙관적인 산업지도자들도

놀랄 정도로 성장을 이룩했고, 한 대에 5백만\$~2천5백만\$ 가격의 장비(슈퍼컴퓨터) 판매는 연 25%씩 과거 10년부터 증가해 왔고, 1988년에 처음으로 10억\$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지의 약 300대의 슈퍼컴퓨터는 이제 석유탐사, 근육구조 분석(그림 2 참조),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위해 특수효과를 창출해 내는 것 등의 다양한 작업을 처리한다.

슈퍼컴퓨터는 네트워크 보급과 함께 고속의 계산능력을 개인용컴퓨터와 전화망 연결로써 어떤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다.

Princeton의 Neumann National Computer Center의 소장인 Doyle Knigh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는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다. 곧 모든 산업, 과학 및 삶의 추구가 초고속계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떤 방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보통의 다른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구별하는 기준은 속도와 처리능력이다. 슈퍼컴퓨터란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컴퓨터 중 처리속도가 가장 빠르고 기억용량이 큰 컴퓨터를 말한다. 오늘날 일반적인 슈퍼컴퓨터의 기준은

연산능력이 1백~1천3백 MFLOPS 연산, Word 길이가 64 Bit이며, 주 기억용량이 1백만 Word 이상의 성능을 지닌 컴퓨터로 정의한다. 컴퓨터 초기의 속도는 초당 수천 FLOPS로 측정되었지만, 요즘 슈퍼컴퓨터는 GIGA(10^9 으로 10억을 나타내는 단위) FLOPS, 즉 초당 수십억 연산 수행속도를 갖는다. 앞으로 슈퍼컴퓨터는 TERA(10^{12} 으로 1조를 나타내는 단위) FLOPS, 즉 초당 조단위의 연산수행속도를 가질 것이다.

TERA FLOPS 속도로 수행되는 하나의 슈퍼컴퓨터는 완전 가동한 1,000만 대의 Personal Computer의 작업능력을 가질 것이다.

슈퍼컴은 그들의 회로상에서 전자 신호의 빠른 흐름으로 많은 열이 발생하여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크기의 냉각장치가 필요하며, 미네소타대학의 슈퍼컴퓨터 방출열은 차고의 히터로 이용할 정도로 많다.

슈퍼컴퓨터 시대에 가장 강력한 컴퓨터 시장은 Minneapolis의 Cray Research라는 한 회사가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슈퍼컴퓨터시장은(그림 3) 미국과 일본의 몇개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판도는 과거 20년 동안

슈퍼컴퓨터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놀랄 만한 새로운 슈퍼컴퓨터 주자인 IBM의 등장으로 곧 뒤바뀌게 될 것이며, 지난 12월 세상에서 가장 큰 컴퓨터업체인 IBM사(1987년 매출액 : 540.2억달러)는 최고의 슈퍼컴퓨터 설계자인 Steve Chen(중국인)과 협력할 것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미 지난 9월 Cray사의 부사장 직책에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컴퓨터업계에 큰 충격을 일으켰었다.

IBM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Chen은, 현재 시장에 나온 슈퍼컴보다 100배 이상 빠른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공장을 설립했다.

“사람들은 이제 막 IBM이 한 발을 슈퍼컴시장에 들여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한다. IBM의 부사장인 Irdving Wladdwsky Berger는 “그러나 우리는 대양의 중앙에 있다.”라고 말했다. IBM은 도약을 했고 위신도 세웠으며, 과거부터 극적인 변환을 제시해 온 IBM은 급변하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이래 대부분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하나의 고속 Processor에 입·출력시킴으로써 한번에 한 Step씩 처리하도록 설계해

왔으며, IBM의 후원하에 제작하고 있는 Chen 컴퓨터는 하나의 프로세서가 아닌 64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고, 동시에 병렬로 모든 Processor를 운영하여 계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이다. 병렬처리 슈퍼컴퓨터 Project를 시도하는 IBM의 결정은 기술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미국의 많은 슈퍼컴퓨터 설계자들은 수 백 또는 수천 Processor에서 작업을 분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제작 중이다.

미국정부는 많은 초고속계산 연구에 예산투자를 했고, 국방과 정보 양쪽에서 사용을 위해 처리능력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며, 지난해 미국 방성은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노력에 수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초고속기능의 특별한 필요성을 가진 미국정부의 계획 중 하나는, 음속의 25배로 군 및 민간수송을 하려고 하는 고공의 국제우주선 설계이며, 이에 대해 굉장한 항공속도를(그림 4 참조)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풍동실험장치가 없어서 초음속비행기(Hypersonic Plane)는 슈퍼컴퓨터 상에서 실험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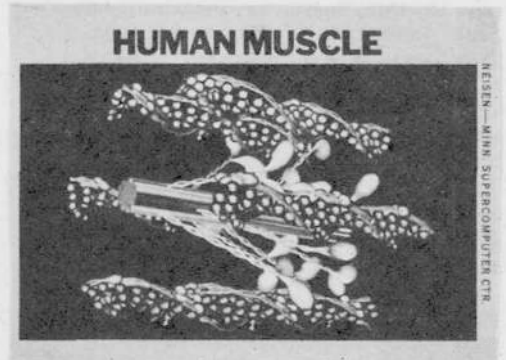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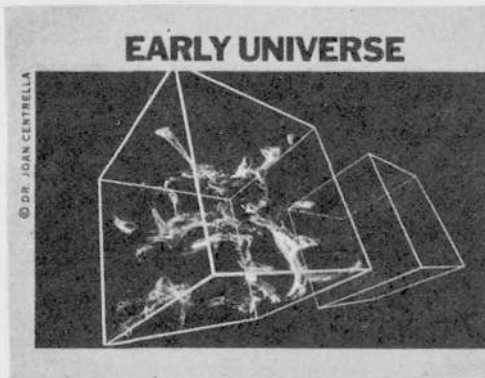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델과 비슷하게 여러번 기계상에서 시뮬레이션 되어야 한다.

백악관 과학담당고문인 William Graham이 1990년 중반까지 Tera FLOPS 속도의 병렬처리 슈퍼컴퓨터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7억 달러의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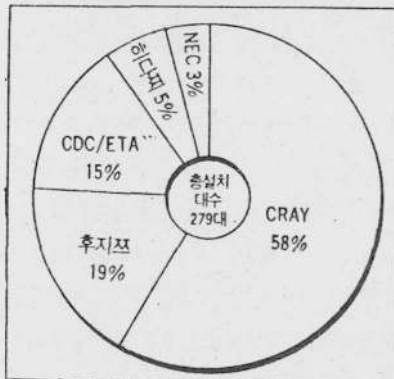
미국은 슈퍼컴퓨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발한 슈퍼컴은 Virus처럼 다양하게 여러 산업에 파고 들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의 응용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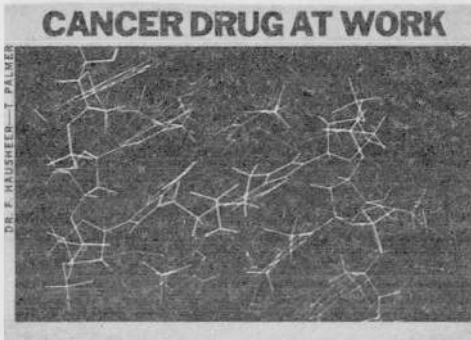
반도체 생산업체는 평방센티미터칩에 더 많은 Transister를 집적시키는



◇ 슈퍼컴퓨터 세계시장점유율



방법을 디자인하는데 슈퍼컴을 이용하며, 금융고문들은 현기증 날 정도의 복잡한 투자전략을 창출해 내는데, 생화학자들은 새로운 약품개발에 필요한 분자의(그림 5 참조) 분석 및 예상을 위해 슈퍼컴을 이용한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차, 제트엔진, 전구, 보트, 냉장고, 그리고 인공수족을 설계하는 데도 이 슈퍼컴을 이용한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는 과학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극소의 세계와 극대의 세계 전부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것을 사용하여 의학분야, 원자과학분야, 기상학 및 은하 중간의 블랙홀까지 연구의 분야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50 광년 거리까지 관찰할 수 있었으나 슈퍼컴퓨터를 사

용한 천체물리학자는 과거와 미래까지 수십억 광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가 기적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아직도 불만이다.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의 Norman Morse는 자신이 쓸 수 있는 11대의 슈퍼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일하는 Weapon Designer나 다른 과학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100배 정도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더 빠른 슈퍼컴퓨터 제작에 대한 경쟁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의 수십 개의 연구소가 수백만 달러의 자금과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슈퍼컴퓨터사인 Cray Research사의 Seymour Cray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듯이 슈퍼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Control Data와 합작했으나, 나중에는 자기 회사 단독으로 경이의 고성능컴퓨터 시리즈를 계속 발표했는데, 이것은 CDC 1604(1960), CDC 6600(1964), CDC 7600(1969), Cray-1(1976),

Cray-2(1985) 등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로 불리우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다음의 슈퍼컴퓨터인 Cray-3 계획을 완성했는데 이것은 1989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또 Cray-4를 Cray-3의 후속컴퓨터로 개발할 예정이다. Cray-3에서는 16개의 Processor를 사용한 것에 반해, Cray-4에서는 64개의 Processor를 사용하는 최신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Cray사의 유명한 슈퍼컴퓨터 디자이너였던 Steve Chen(44)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Cray Research사에 대하여 제시한 야심적인 새 컴퓨터 제작이 회사측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때 Cray Research사를 떠난 사람이며, 그 회사를 그만둘 때에 그는 슈퍼컴퓨터계에서는 이미 스타였고, 중국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자라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 Villanova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Campaign/Urbana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간부들은 Cray사의 후계자로 지목할 정도였다.

그는 Cray-1을 개조하여 Cray-X-mp를 제작했고, 슈퍼컴퓨터 중 가장 많이 팔렸으며 120대 이상이 설치되었다.

Chen은 또 Cray-Y-mp로 소개되는 새로운 컴퓨터를 설계하였는데, 이것은 전자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시키지 않고 광케이블을 사용, 빛의 다발에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등 혁신적 기술체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사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시도에 대한 총돌로 Cray를 떠났으며, Cray에서 Chen과 함께 연구하던 인원 중 45명이 Chen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IBM으로부터 대략 1억 불에서 4억 5천만 불까지의 재정상 협조를 얻길받고 새로운 컴퓨터에 도전하고 있다.

IBM에서는 Chen이 슈퍼컴퓨터의 어떤 벽을 허물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Chen은 지금부터 5년 이내에 1,000억 GIGA FLOPS를 이룩할 것이며, 그때에는 해결하는데 3개월이 걸리던 문제가 단 하루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IBM은 주 Project로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6종류의 다른 슈퍼컴퓨터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IBM의 가장 야심작의 하나는 슈퍼컴퓨터 TF-1이며, TF-1은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짐승과 유사하여 4,000마일의 내부회선과 33,000여 개의 고

속 Processing Unit와 80ft의 지름을 갖는 고속컴퓨터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보다 2,000배의 빠른 처리속도를 갖게 된다.

슈퍼컴퓨터시장에서 IBM이 갖는 진정한 관심은 Cray Research가 아니라 Hitachi, Fujitsu, NEC 이다. 이들은 슈퍼컴퓨터의 첫번째 세대로서 지금까지 미국에 비해 25년 열세를 단번에 만회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슈퍼컴퓨터는 미국에서 제작된 슈퍼컴퓨터와 흔히 비교되는데, 최신의 Single-Processor인 Hitachi S-820-80은 Two-Processor인 Cray X-mp와 비교 평가하여 10:1의 우세를 보였다.

일본인들이 Processing Chip의 처리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결과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Powerful 한 Single Processor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개의 Processor를 결합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병렬처리는 미국만이 지니고 있는 첨단 기술이다.

그러나 병렬처리의 기술적 발판은 소프트웨어로서, 연간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슈퍼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연구에 장애가 되는 큰 문제는 각각 세분화하여 여러 연구소에 분담되어 동시에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병렬처리에 관한 소독은 슈퍼컴퓨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컴퓨터과학 연구분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AI : 인공지능)이다.

MIT의 AI연구소에서는 65,536개의 Processor를 집결시켜 가장 진보된 병렬처리 컴퓨터의 견본을 만들었다.

31살의 기술자 W. Daniel Hillis는 “슈퍼컴퓨터는 AI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기 설계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없으면 불가능하듯이, 좀 더 빠른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AI의 제작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파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은, 1990년대 이후까지 그들이 슈퍼컴퓨터와 AI 분야를 주도하며 경제성과 기술개발을 계속 진행시키는 일이며, 유전공학에서 분자물리학까지, 그리고 자동생산시스템에서 우주탐험까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

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지평을 여는 날에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 - 즉 인간의 심리까지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의 슈퍼컴퓨터 도입에 대한 거론은 '85년 초부터 있었으나, 예산문제 등 여러 번의 난항 끝에 과거 주관하에 시스템공학센터 주도로 금년초 Cray 사의 슈퍼컴퓨터(성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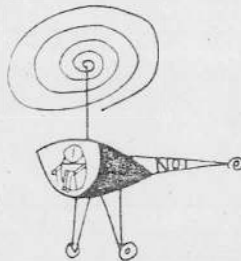
이용방안)가 낙찰, 금년 8월에 시스템공학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그의 몇몇 대학 및 연구소에서도 슈퍼컴퓨터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슈퍼컴퓨터 도입으로 한국의 경제 및 과학 등 전반에 비약의 발전을 기대하며, 우리도 서서히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갈 컴퓨터체제 개발에 가일층 노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식축적으로 슈퍼컴퓨터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국내도입 Cray-2S 슈퍼컴의 성능비교 및 이용방안

		기존 대형컴퓨터	슈퍼컴퓨터
성 능	연산속도	5 MIPS	500 MIPS
	Processor 수	1 개	4 개
	처리방식	직 렬	병 렬
	주기억용량	32MW ~ 64MW	128MW
	처리능력	1 일기상분석 : 4 일	2 시간

이 용 방 안	첨단기술개발	자동차모델, 반도체칩 Layout, 항공기제작, 무기제작
	고도연구분야	대규모 프로그램, 대형연구과제의 신속한 해결
	기 타	지질학, 해양학, 태풍예보, 홍수예보, 지진연구, 천문, 물리학, 유전공학

- MIPS : 초당 지시문의 처리속도로서, 100만 개의 지시문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나타냄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 MW : $\frac{10 \text{ Word}}{\text{Mega Word}}$ (여기서는 Full Word를 나타냄)



몰인정 + 고지식함 = 범조인 (?)



대위 정진영

(제 3659 부대)

“여보, 제발 그 사람 좀 봐줄 수 없어요?”

“안돼. 그런 사람은 따끔하게 처벌받아야 우리나라도 교통질서가 바로 잡힐 거야.”

“그 한 사람 처벌받게 한다고 해서 교통질서가 바로 잡힐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 사람도 몇 푼 안되는 수입으로 처자식 먹여살리는 불쌍한 사람인데 좀 봐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봐줘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가 된 것이라구. 안돼!”

“난 당신이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하려고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되는 아내가 나의 출근길에 언성을 높인다. 어젯저녁, 함께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가 어쩌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내가 참지 못하고, ‘당신, 방금 신호위반·과속·차선위반을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고는, 적은 수입으로 처자식

’61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했다.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5회로 법문에 입문했다. 현재 검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들을 먹여살려야 하니 한 번만 봐달라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딱잘라 거절하고 돌아왔더니 아내는 아침내내 그것이 불만인 것이다.

아직 범조인으로서의 경험이 얼마 안되는 내가 이처럼 아내로부터 몰인정한 인간으로 비난받는 것도 속상하는 일인데, 내가 감수해야 하는 비난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은 않는다.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인데, 법이 그를 편들 수 없는 사안에 이르면 나는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로 부터 법밖에 모르는 불합리한 외통수로 취급되고 만다.

이러한 비난들은 나로 하여금,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인즉 사람을 잘 이해하고 나서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만,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실, 나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들을 보기와는 달리 '냉'의 일변도가 아니라 냉·온의 사이에서 항상 변민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그 변민의 모습을 드러내 놓을 수 없을 뿐이다.

'법'이라는 것은 분쟁해결의 최후방안이다. 그러다 보니, 법이 사용하는 수단은 따뜻한 설득이 아니라 고통일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재산, 신체의 자유, 급기야는 생명의 박탈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을 늘상 사용하는 법조인들도 새디스트가 아닌 정상적인 인간인 다음에야,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이 어찌 괴롭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매 사건마다 법의 수단을 꼭 사용하여야 할지, 굳이 사용하여야 한다면 보다 가벼운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법조인은 같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함에서 오는 인간적 변민을 숨긴 채 숙명적으로 냉혹함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그리고, 법조인이 법을 다룰 때 예외를 인정함직한 경우에조차 굳이 법을 고집함으로써 세상의 눈으로 보아 착한 사람을 편들지 아니하는 것도, 법조인의 예외를 인정할 줄 모르는 고지식함 때문이기보다는 가급적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법의 속성 때문이다. 법은 장래에 일어날 인간만사에 세세히 대비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때로는 법의 적용이 우리사회의 다른 기준, 즉 경제성, 합리성, 도덕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닐 때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예측할 수 없는 애매한 기준에 의하여 혹은 적용되기도 하고, 혹은 적용되지 아니하기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막연한 기준만 남겨두고 모든 법을 없애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물론 법조인은 이럴 때도 쉽게 구체적 타당성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는다. 법의 해석이 사회의 상식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

력을 다 기울여 본 후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지키느라 부득이 현실의 타당성을 약간 양보하게 될 뿐인 것이다.

이처럼 법이라는 차갑고 차가워야 하는 물건을 다룰 때, 그 차가움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두터운 장갑으로 손의 온기를 가렸다고 하여, 혹은 법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른 기준에 의한 선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물인정한 인간이라거나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외통수라고 비난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법조인이 인기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가족들로부터, 혹은 조금 더 욕심내면 주위사람들로부터 나의 직분에 충실한 행위에 대하여 억울한 평가절하를 당하고 싶지는 않다. 더우기, 법의 속성과 법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비난이

주변사람의 구설수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이익집단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표현되거나 매스컴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비판으로까지 비화되고 나면, 그 법조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사회 전체도 법에서 얻고자 하는 본질적인 기대를 놓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관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조인을 헐박하거나 폭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에 대한 비난은 신중히 할 일이다. 법조인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여야 하기에 독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도 심지어는 아내의 가벼운 비난에서조차 고통을 느끼는 민감한 인간인 것이기 때문이다.



체조를 아십니까?

체조 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Gymnastik, 영어로는 Gymnastics 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고대 그리스 Gymnos (裸體體操)란 어원으로부터 변천되어 나온 뜻으로, 원시인의 자연생활 운동과 생활표현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사체육의 도구로 변한 후, 단결과 건전한 생활 및 육구 운동으로 변화였다.

현재와 같은 조직적인 체조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엽(1777~1847)에 독일의 얀(F.L.Jahn), 스웨덴의 링(P.H.Ling), 덴마크의 나하테갈(F. Nachte Gall) 등에 의해 창안되었다.

일찌기 우리나라에는 화랑도들이 심신을 단련키 위해서 체조의 원시적인 형태로 실시되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며, 또한 퇴계 이황 선생의 활인 심방의 도인법(체조)을 창안하여 널리 보급시켰으며, 이 체조는 오늘날의 의료체조의 일종이라 하겠다.

그러나, 소위 신식체조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연대와 내용은 확실치 않으나 1895년(고종 23년) 교육조서를



강경여 강사

'62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이화여대 및 동대학원에 체육학을 전공했으며 경원전문대 강사로 재직 중이다.

발표, 이후 각급학교의 설치령과 더불어 체조는 정식 교과과목으로 되었다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체조는 다른 종목과는 달리 지도보급과정에 있어서 일반단체가 관여하지 않고 국가의 교육시책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각급 학교에서 교과과목으로 가르쳐 왔으며, 그 발달이 학교발달사와 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체조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에서 비롯되어 지금까지 번창되었지만, 체조계에 크게 기여를 한 모임의 하



리듬체조

나인 소콜(Sokol) 체조도 빼놓을 수 없다. 소콜체조는 제 2 차 세계대전 전부터 있었는데, 올림픽대회의 체조경기 와 더불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6 년에 1 회씩 거행된다. 올림픽체조가 세계 적인 대회로 발전되었는데, 그 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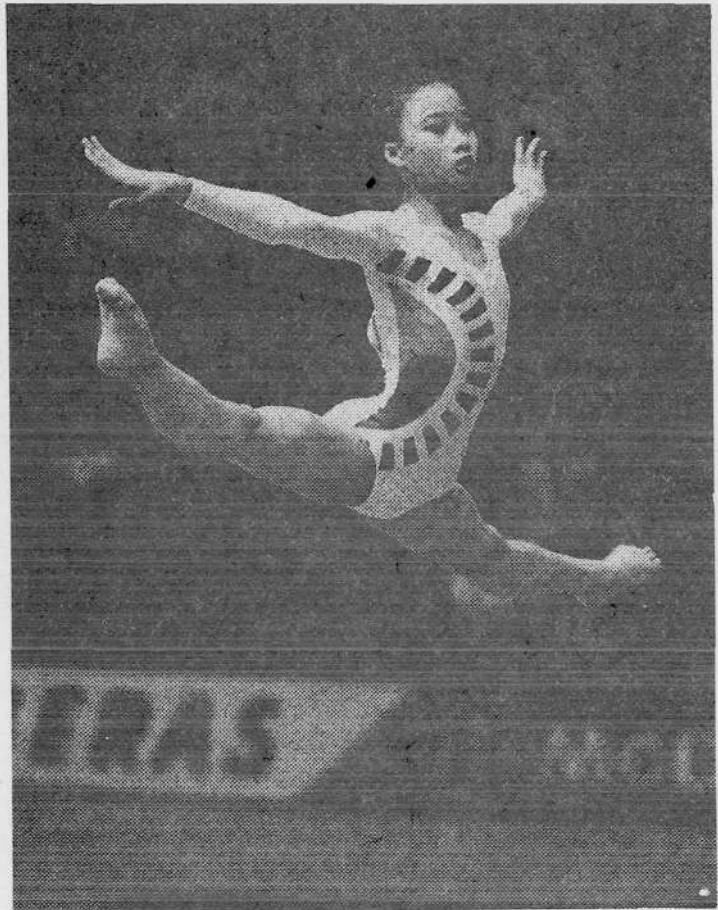
웅대함이 세계체조계의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조가 유명해진 것도 이 소콜대회 때문이다.

이 대회는 거국적인 행사로서, 참가 하는 전국에 산재하는 소콜의 지부에서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선

발·파견하고, 외국에 가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인들도 이 대회에 본국으로 대표자를 보냈다. 소콜체조는 보는 스포츠로서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있어 때에 따라서는 너무 진보되어 있다고 까지 느끼게 된다. 체조의 연기에 관

해 연구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동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체조경기는, 바로 올림픽경기의 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조경기장은 언제나 많은 관람객이 모이며, 특히 여자체조경기는 그 어느 경기보다



마루운동

도 인기가 높다. 특히 24회 올림픽이 열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림픽종목 입장권이 판매되자마자 1시간도 채 못되어 여자체조경기 입장권이 매진되는 경우를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 세계무대를 주름잡는 선수들의 연령이 대부분 10代로 낮아져, 소련의 벨리 킴, 슈슈노바, 루마니아의 세계의 요정 코마네치, 도브레, 실리바스같은 세계적인 10代선수가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체조는 세밀하고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운동이므로 과학적인 오랜 훈련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유럽 선수들이 상위입상수준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자체조는 20여년 간 세계체조를 주름잡던 일본이 지금은 중공, 소련이 표면화됨으로써 현재 일본, 소련, 중공 및 동부유럽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결코 체조는 동양인의 체격에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세계체패를 위해서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계획된 훈련방법을 도입하여 그들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릴 때까지 문교부, 체육부, 체육회의 강력한 육성정책이 요망되는

바 큰 것이다.

체조는 현재 맨손체조, 기계체조, 리듬체조로 분류한다. 각 체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맨손체조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화는 인간의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생명에 대응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바람을 가지고 발생되었다 할 수 있다.

가. 운동의 형식과 종류

(1) 다리운동: 굽혀펴기, 흔들기, 흔들어들기, 들기, 휘둘리기, 뽀뽀기, 벌리기, 비틀기

(2) 팔운동: 굽혀펴기, 들어펴기, 들기, 흔들기, 흔들어들기, 비틀기, 벌리기

(3) 목운동: 굽히기, 돌리기, 휘둘리기

(4) 가슴운동: 젓히기, 굽히기, 펴기

(5) 옆구리운동: 눕히기, 굽히기

(6) 배운동: 눕히기, 굽히기

(7) 몸통운동: 돌리기, 휘둘리기

나. 운동방법상의 변화: 시간적인 변화, 위치의 변화, 교차적인 변화,

방향의 변화, 이동운동, 율동적인 변화, 모방의 변화

다. 활동영역

(1) 작업에의 활용: 준비체조, 정리체조, 보상체조, 보강체조

(2) 보건의에 활용: 국민보건체조, 특수자(허약자, 임산부, 기형아) 체조

(3) 미용에의 활용: 교정체조, 미용체조

(4) 매스게임에의 활용: 시위체조, 집단체조

(5) 레크레이션에의 활용: 피로회복체조, 기분전환을 위한 체조, 체조놀이

(6) 체력증강에의 활용: 단련체조, 교정체조, 체력증진법

2. 기계체조

가. 성취여부가 확실하여 자아발견에 도움이 되고, 정서의 안정을 갖게 된다.

나. 용기, 과감성 등의 의지가 함양된다.

다. 운동의 가동범위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라. 고도의 기술로 인한 신체, 지배능력의 함양으로 안전교육에 도움이 된다.

철봉운동(Horizontal Bar), 평행봉운동(Parallel Bar), 뿔뜰운동(跳馬: Long Horse), 링운동(Ring), 안마운동(Side Horse), 마루운동(Floor Exercise), 평균대운동, 여자평행봉이 있다.

3. 리듬체조(기구체조)

리본, 공, 곤봉, 환(링), 줄넘기 등 기구를 가지고 연기하는 체조로서 신체부위 움직임이 음악과 관계가 깊다. *종래의 맨손체조의 단점인 형식에 구애되어 흥미가 없고 지루하던 것이, 음악을 수반하고 리듬을 통해 움직임이 다양하고 흥미로와 청소년과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체조이다.

4. 집단체조

체조경기가 개인의 미를 겨루는 스포츠라고 한다면, 단체체조는 집단체조 미를 겨루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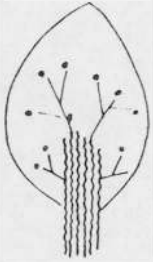
한 팀이 6명으로 구성되고, 남자·여자 다 함께 규정연기와 자유연기를 하여 그 합계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2m 4방에 구획된 마루 또는 매트 위에서 남자는 힘세고 기백이 넘치는 운동을, 여자는 리드미컬하고 우아한 운동을 전개하여 팀워크가 잘 짜여진 집단의 미를 겨룬다.

특히, 이 집단체조는 모양의 변화, 대형변화, 체조형식(맨손체조, 리듬체조)을 복합하여 전체의 미와 균형을 잡는 체조로서,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생활자신감(물구나무서기를 했을 때의 순간에)과 생활의 의욕, 정서의 안정을 추구하여 교묘한 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

현대인의 건강관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나이를 더할수록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과 질병문제도 그 변화의 하나이다. 먼저 건강관리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관리의 중요문제는 환경위생이었다. 영양결핍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강제성이 요구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리고, 한편으로는 개인위생에 관한 계몽, 교육 등이 강력히 전개되었었다. 그러나 환경위생문제는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문제에서 멀어져 가고, 영양문제는 오히려 영양과다로 변해 음식조절이 시행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준다.

〈현대인의 질병은 살아가는 방식, 퍼서넬리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문제를 생각해 보자. 질병양상도 크게 달라



이태준 박사
(가톨릭의대
교수)

'24년 경남산청에서 출생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공군장교 각종 2기로 입관한 예비역 소령이다. 현재 가톨릭의대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가정의학 보급에 전념하고 있다.

졌다. 과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망질환은 주로 세균성전염성 질환이었으나, 이들 질환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최근 사망질환통계에서 으뜸가는 질환은 심장질환, 중추신경계의 혈관질환, 그리고 악성종양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눈부신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들 질환들은 아직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질환 외에 최근 발병빈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질환, 예컨대 고혈압, 당뇨병, 류머티스, 정신질환, 불면증, 알콜중독, 니코틴중독, 마약중독, 비만증 등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질환 외에도 원인모르는 고통 또는 동통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수없이 많다. 병원을 찾아도 '신경성'으로 돌리고 대증요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 원인불명의 질환의 특색은 쉽게 치유되지도 않고, 환자가 쉽게 사망하지도 않는다. 환자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근래에는 질환에 대한 흥미있는 조사자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질환의 발병이 살아 가는 방식, 생활사건, 퍼서널리티(개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행동양식과 이들 질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이들 현대적 만성질환들은 병을 일으키는 어떠한 병인이 외부에 있어서 그것이 개체에 침입되어 발병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영위하는 중에 개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어떠한 이상이 생겨 발병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살아 가는 방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적응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1946년 시카고대학에서, 인간행동의 일반법칙을 발견할 학문영역의 발족을 위하여 많은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및 인문과학자들이 모였었다. 이 때 행동과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때까지 각 학문영역별로 인간행동이 연구되던 것이 각 학문영역의 장벽을 초월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건강과 의료에 관련되는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었다.

< 모든 가족구성원의 질병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가정의학전문의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한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자공학이 눈부시게 발달을 했는데, 이러한 계기로써 신체내부 여러 장기의 작용·기능이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심장박동, 근육긴장도, 피부온도, 혈압 등은 불수의(不隨意) 작용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 기계들을 사용하여 수의(隨意) 적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음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원인모르는 질환들 중 이런 불수의적 생리기능을 수의적 노력(행동요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많은 질환들의 치료, 증상경감의 보고책자들이 나오고 있다. 1950년대 행동요법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정한 환경에서 그릇된 적응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건강장해를 행동을 바꿈으로써 치료하는 방식이다.

이상 언급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에 현대적 질환의 이해에는 행동과학과 임상의학의 통합된 지식과 숙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건강관리의 주안점은 환경위생을 다루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개체의 육체와 정신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행동과학과 생물과학으로 다루는 것이다.

〈담당의사는 가정단위의 특수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건강관리는, 행동과학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진료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의사, 즉 가정의학전문의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간의 행동양식 형성의 장(場)은 가정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양육기간이 대단히 길다. 부모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더욱, 가족들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오랫동안 같은 환경에서 같이 생활하므로 사고와 행동에 공통점이 많다. 그러므로 담당의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단위의 건강문제의 일반적인 면과 그 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 가정의 살아 가는 방식, 생활사건, 구성원들의 성격 등 가정의 생물학적 및 경제적 배경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또, 그 가정의 모든 가족구성원의 질환문제는 어느 수준까지는 담당가정이가 해결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의 건강문제의 특수성도 이해될 것이다.

〈가정단위로 가정의학전문의에게 건강관리를 위임하여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자.〉

이들 현대적 만성질환이 두려운 것은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고, 일단 병에 걸리면 치유가 거의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 보건과 관련되는 내면적 생활과 일상행동 등이 소상히 담당의사의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들 조사자료와 검사성적에 기반을 두어 예방적, 치료적 처방이 나올 것

이다. 건강상태에 따라 기호품, 식사에서부터 생활행동에 이르는 여러 처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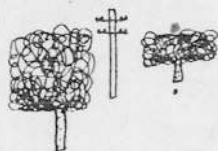
건강관리의 한 방법으로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사람이 많다. 질병 조기발견의 한 방법이겠지만, 검진결과에서 병명이 나타난 경우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기능의 용량이 큰 장기 등에서는 대상성(代償性) 기능이 커,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은 한 검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건강관리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선택적 항목으로써 더욱 세밀

한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건강관리를 위임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의사는 가정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이다. 가정 단위로 가입하면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건강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자료 분석에 따라 기능검사항목이 설정된다. 보다 앞선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이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가족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검사항목들을 주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탐방취재



슈바이처의 숨결을

- 편집실 -



8386부대 최환석 대위부부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며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선서의 첫 구절이다. 젊은 의학도들이 길고 어려웠던 배움의 시간을 마치고 자신의 생애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길에 쓰여짐을 평생의 명예로 생각하며 바치는 서약이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그 모든 길에 애환이 서려 있지만 신이 주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의 길은 우

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로운 여건과 안락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처럼 타오르는 순수성과 인류봉사에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불태우려는 그들의 주위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의사들의 상징적인 존재인 슈바이처박사의 생명경외정신을 굳건히 지키려는 우리의 전우 최환석대위같은 인물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자랑스러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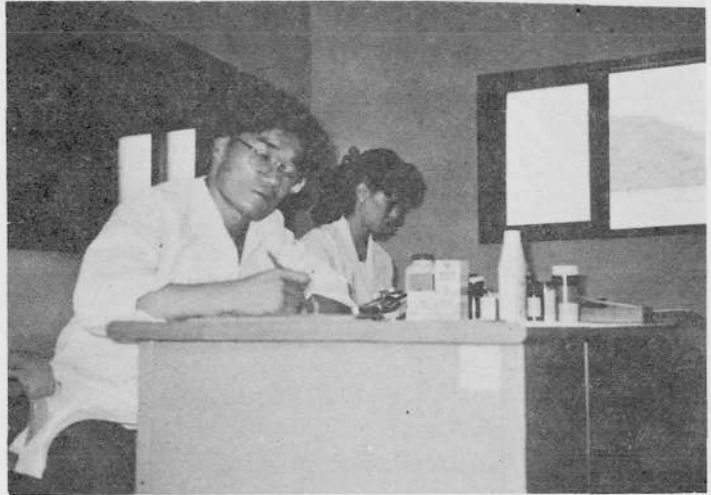
남자나이 삼십이면 결코 젊다거나 한 참때라는 말로 사족을 붙이기엔 좀 늦은 연령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의



진료전 약품분류 중인 최대위

탐방취재

그는 어느 환자에게나
신중한 처방을 내린다.



관들은 그 나이에 군문에 발을 들여 놓는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병원과 대학의 연구실을 떠나 군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십중팔구 어색하기 마련이다.

물론 최대위도 예외는 아니다. 「패기찬 구대장들에게 강도있는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다른 초임장교에 비해 두 개나 많은 다이아몬드를 어깨에 달고 땅보다 하늘이 가까와 보이는 8386부대에 부임한 그의 모습은 훈련소 구석에 놓여있는 커다란 블루백처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좌우간 그의 출현은 며칠 지나지 않아 부대와 인근마을인 화악리에 보석 같이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되었다. 환

자를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가정의(家庭醫) 특유의 치료법으로 부대 내에서는 물론, 화악리 주민들에게 베푸는 대민진료에서도 그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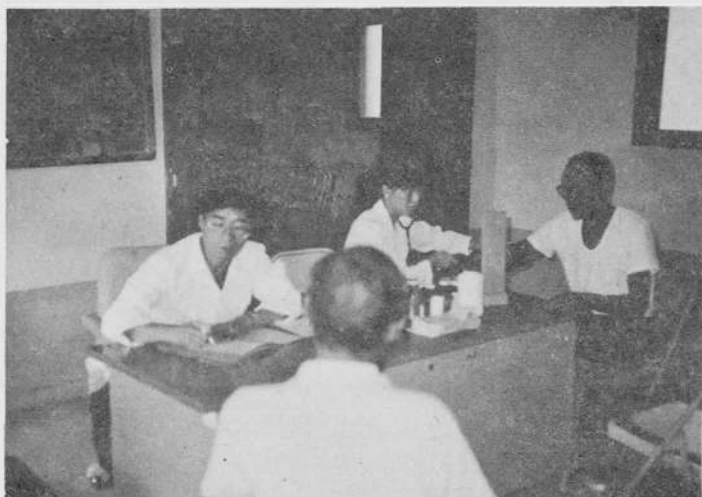
한나절에 한번씩 운행되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화악리주민들은 논과 밭을 일구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힘든 농사일에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장기화된 지병들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군대의 위생업무만을 담당하는 군의관인 최대위로서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인술이라는 고귀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들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는 없었다. 그들처럼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그의 존재를 근거지우는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실제로 접한 최대위는 이후로 성모병원의 간호원으로 있는 부인과 함께 매주 한 차례씩 그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처음엔

나는 주민들에게 최대위부부는 너무나 고마운 손님들이다.

이제 이들 부부는 치료와 더불어 마을의 어려운 일과 주민들 개인 신상의 고민거리도 같이 상담해주는 가족이 되었다. 「제대 후에도 아내와 더불어 농촌에 자리잡고 어려운 사람들

지병을 갖고 있는 고정환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호기심과 경원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던 주민들도 몇달이 흘러도 지속되는 두 부부의 정성어린 봉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풍족한 돈도 없는데다가 농번기까지 겹치게 되면 만성화된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면서도 멀리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갈 엄두를 못

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인술을 베풀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최대위야말로 물질만능주의로 의술과 돈이 맞바뀌지는 세대에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의료인이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공군의 명예를 높인 자랑스런 우리의 전우라고 생각된다.



철조망 앞에서

전망대에서 바라본 철원평야 일대는 무성한 신록에 덮인 채 고즈넉한 적막이 감돌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결코 평화로워 보이지는 않는, 무언가 억눌린 듯한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감시경에 물려들어 좀 더 잘 구경해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비록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 역시 조국수호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난 5월 우연히 기회에 요즘 한창 안보관광단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철원 일대를 다녀왔다. 10여명의 사람들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거나 우리의 분단현실, 안보현실을 물리적으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실감해 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역시 친목도모가 주목적이고 철원등은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러보자는 정도였다. 간밤을 술로 지새우고 떠나는 아침엔 몸도 정신도 피로하여 무슨 “구경”이나 제대로 할까 싶었지만, 제 2땅굴, 전망대, 월정역,



중위 김현수
(공군본부)

'6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고 사후 81기로 임관했다. 현재 부관으로 근무중이다.

구 철원시가 등을 거치면서 피로, 호기심 따위의 기분은 사라지고 몇 가지 분명한 느낌들이 가슴 가득히 자리하게 되었다. 나 자신의 군인이라는 현재위치에 대한 무의식적 자각이나 순간의 감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의 느낌은 무척이나 생생하고 예리한 것이었다.

2중 철책을 따라 휴먼지를 피워 올리며 도착한 제 2땅굴 입구는 흔히 연상되는 뻑뻑한 긴장감을 주고 있지는 않았다. 주차장변에 설치된 휴식용

의자와 파라솔, 대형버스로 단체관광은 사람들의 들뜬 분위기 등은 오히려 어느 관광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나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 구경이나 해 보자는 생각에 들뜨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을 진정시켜 주었던 것은 땅굴 입구 우측에 세워진 추모비였다. 땅굴 발굴작업을 하다 북한측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숨진 8인의 장병을 기리는 그 추모비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관념적 슬픔에 더하여 한 민족이 서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다는 비극적 현실을 실감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거대한 화강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제 2땅굴은 그 자체만으로는 영화의 세트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폭발용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이나 발전기 설치용 콘크리트 구조물, 또 여덟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현장의 짐계 그을린 벽과 천정은 그러한 착각에 빠져있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이 땅굴의 존재는 가장 동질적이었던 하나의 민족의 이질적 분단현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의 도움으로 영화를 누렸던 철원. 지금은 후고구려

이후 번성했던 자취조차 찾을 수 없는 채 무성한 잡초에 덮여있는 철원.

그 철원을 둘러싸고 있는 능선들도 전쟁을 겪으면서 옛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한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회의 격전을 치루면서 그 때마다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고 전투 속에 쓰러진 피아 사상자들의 피가 냇물처럼 흘렀다는 '피의 능선', 피아의 포격으로 고지의 흙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흘러내려 버렸다는 '아이스크림 고지' 등 그 이름만으로도 전쟁의 참상을 몸서리치게 전해주는 능선, 고지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숨져갔을 것인가. 6·25 당시 격전지 중의 하나였다는 설악산에는 지금도 큰 비가 내린 후면 이름없는 호국용사의 백골이 드러난다고 하거니와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의 과거 격전지들에는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거뒀어지지 못한 채 무성한 잡초에 덮여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과거의 비극의 흔적들은 파편에 찢겨진 미군용 알미늄제 식기, 구멍뚫린 철모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고 경원선이 끊겨버린 옛 월정역내 선로변에 폭격을 맞아 부서진 채 방치되어 별경게 녹슬어버린 북괴의 군용

여행기

열차에도 남아있었다. 구철원 시가내에 총탄자국 가득한 뼈대만 앙상하게 서있는 옛 노동당사 건물에도 비극의 흔적은 역력하였다. 땅굴이 현재의 비극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지역 일대에 무수히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은 과거의 비극을 조용히 말해 주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땅 철원. 자랑스런 전통이나 번영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아픈 상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철원. 그 통한의 자국들이 가슴깊이 새겨지는 것은 이 비극의 상태가 현재에 와서도 끝맺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분단의 현실이 더 이상 미래에까지 연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 결론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물론 분단이 종식된 그 순간 이후에도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

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싸운 선배들의 호국정신이다. 그것은 말로 하기 쉬운 추상적 애국심도 아니요,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구적 소영웅주의도 아니었다. 오직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가장 원초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다. '어쩔 수 없는 의무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이 참 안 되 보인다'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잘못 보셨군요. 저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직 의무감때문은 아닙니다. 저 튼튼한 가슴속에는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애국혼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답변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인생은 추월할 일이 아니다.



중령 표문재
(공군사관학교)

연전 의 일이다.
중학교 선배로부터 낡은 차를 한 대 불하받은 나는 생전처음 가져본 자가용에 온통 마음을 빼겨서 매일같이 닦고 이것저것 붙이고, 어지간히도 낡은 K-303을 물고 다녔다.

그러면서 점차 운전경력도 붙어 마치 택시기사들이 꼭예운전을 하듯 이 차저차 사이를 빠져 날쌔게 뚫고 다니면서 운전기술과 차를 은근히 뽐내고 다니고 있었다.

정신전력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의 일이다. 퇴근길에 중앙청 앞을 지나서 집으로 향하는데 그 앞에 오면 왜 그리도 좋은 차가 많았던지... 종합청사, 중앙청 등지에서 나오는 새까맣고 길다란 고급승용차와 스칠 때면 내 차가 겉모양은 이래도 엔진은 싱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괜스레 더욱 속력을 내면서 추월을 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막 로열승용차를 추

월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무엇인가가 내 차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쳐다보니 제기랄, 겨우 50cc 짜리 오토바이가 죽자사자 내 차를 추월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겨우 50cc 짜리 오토바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슬그머니 악셀을 놓고 그 오토바이를 추월시켜 주었다. 왜 그리도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는지 느긋한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르고 말았다.

아차 내가 고급승용차를 추월했을 때 그 차를 탄 사람들도 지금 내마음같이 앓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50cc 오토바이를 비켜주었듯이 그들도 나를 비켜줬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그만 나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갑자기 차에서 덜덜거리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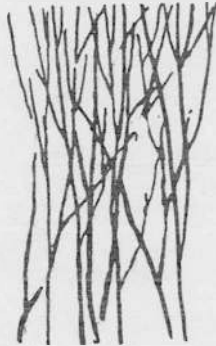
그날 이후 나는 절대 고급승용차를 추월하지 않았다. 아니 추월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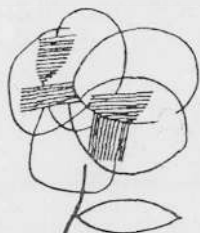
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았으니까.

요즘도 그때 생각을 하면 슬그머니 웃음이 떠오르곤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가지리라. 후자는 오토바이라도 악착같이 추월을 해야된다고도 하겠지만 오히려 여유를 갖고, 죽자사자 쫓아오는 자는 비켜주면서, 비웃어가면서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나는 고급승용차라는 자부심을 갖고.....





할아버지의 유산

소위 김해룡

(제 5672 부대)

- 하나 -

언덕 위의 종소리 평화롭던 새벽하늘로 치솟던 무서운 불기둥에
잠깐 아기의 울음도 멈추고

爆發音에 익숙치 않은 놀란 山河는 혼란속으로 곤두박질치던 날

모두들 피난보따리를 이고 지고

無癡視의 북녘하늘을 원망하며 선잠자는 누렁이를 내몰았다.

죽어도 못떠난다며 돌아왔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문고리를 부여잡는 悲絶한 여운만을 남긴 채

“니놈만은 무신 일이 있어도 살아야 혀. 니놈은 우리 家門의 三代獨子인 게
로.”

할아버지의 시야로 녹아드는 血緣에의 끈끈함과 함께.

가는 곳마다

만신창이가 된 里程表 앞에서 흔들리는 無價値한 生命들을

새끼줄로 겹겹이 엮은 채로 뒷꿈무늬에 따라뿔는 대포소리를 들으며

달구지에 보릿자루를 베고 누워

텅빈 하늘로 실타래를 풀어가며

갓 아홉의 가너린 삶은

南으로 南으로 따발총에 쫓기다.

“나는 죽어도 이 집을 떠날 수가 없다. 집걱정일랑 말고 어서 떠나거라.”

시

成熟되지않은 어린 判斷力은 도무지 큰 뜻을 알 수 없었고
생생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밤마다 정한수 한그릇으로
運命을 도박하는 냇나간 어머니의 群像 그리고 哭.

- 둘 -

서로를 外面당하고
이리저리 찢긴 채로
낮과 밤을 포탄의 그늘에 寄生하면서
촛불같은 불안으로 작은 가슴을 웅크린 채
불규칙한 호흡을 몰아쉬며 유난히도 큰 겁먹은 눈만 焦點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처 母國語를 배우기도 전에 알아버린 혀꼬부라진 몇마디로,
굶주림에 허우적거리며 달려들던 코쟁이 병사에게서 느끼는 갈기갈기 찢겨진
자존심은 색이 트기도 전에 짓뭇개져 버리고……
그놈의 초콜렛, 초콜렛.

共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내의 서글픈 生涯의 희망찬 太初의 빛은 발악하듯
부대껴 외치면서도
바람한점 없던 그 나날들이 길게도 뜨겁게도 무기력하게 엉겨붙으며
죽어 넘어진 屍身위로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젖은 입술로 눈물을 흠치기도
전에
또 다른 嗚咽을 토하게 하는
이런 처절한 神의 심판이 사방으로 덮쳐오고 있었다.

결국은
전정기관의 감각마저 상실해버린 채
매되어 돌아오는 季節들을 온통 가위눌림으로 땀범벅이 되어 쓰러져 잠들곤 하
였다.

수도 이전, 한강 저지선 붕괴, 물밑듯 南下…….
 등의 찢어져 빛바래진 철자가 거리를 나뒹굴고
 諦念과 한숨에 익숙해져버린 무언의 시선들은 자꾸만 남쪽 끝,
 끝으로 향했다.

- 셋 -

다 닳아버린 바가지로 퍼올리는 낙동강물에 퍼비린내가 배어오고
 전선으로 간 내이웃의 生存, 아니 우리들의 存在는 어디로 떼물려 달음박질치고
 있는 것인가?

찌들어 내팽개쳐진 허수아비의 퇴색한 옷자락 사이로 깃드는 햇살보다도 더 침
 묵을 강요당하며 짓눌리는, 이 뻗치는 生命力으로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길거리에 흩어져 날리는 주인없는 備忘錄의 슬픈 사연들 위로 흐느적 비가
 내리고

人間의 本質的 意味마저 망각해버린 채
 살아있는 자들이 외치는 當爲性의 외침마저 이유없는 주검앞에 설득력을 잃고
 수없는 총성과 난도질 앞에 갈수록 잘록해져가는 우리의 韓半島는
 숨죽인 통곡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쳐쓰러져 일어날 줄을 몰랐다.

- 넷 -

몇번인가의 季節이 서로 앞다투어 지나가고
 아침나절 뒷걸에서 울어제길 까치 울음소리와 함께
 옛 先祖들의 북만주를 호령하던 우렁찬 氣概소리가 밤새 꿈자리에 살아숨쉬더니
 또 다시 생생해지는
 할아버지의 얼굴

幼年の 절정을 지나는 나의 찢긴 內臟으로, 포연과 금속음이 설새없이 밀려오고

시

겨우 한조각 땅가진 이 거대한 地球에서
허리질러 내려가며 죽어 신음하는 이 半島를 南과 北, 北과 南
도대체 어떻게들 하겠다는 것인가?

仁川上陸作戰 成功, 北進 압록강까지……
흥분에 들뜬 음성이 빛사이를 헤집고
힘찬 軍歌소리와 함께 三千里에 메아리치던 날
깨어지면 깨어지고 찢어지면 찢긴 채로 우리의 호흡과 고난을 함께 한 피멍
든 山河는 그래도 우리의 피붙박이었다.
北進, 統一, 가자 故郷으로

— 다섯 —

故郷에 돌아와
동구밖 어귀에 핀 들국화의 향기는 제삿향보다도 짙어
주인없는 빈집 감나무엔 굼주린 까마귀만 季節없이 더욱 지쳐 울게 하고
할아버지의 시커먼 고무신 한짝만이 덩그러니 댕돌 위에 놓여있던 그날
천지가 찢어지는 울분과 통곡소리를 쏟아들으며
밤하늘로 수없는 節望과 傷失들이 비되어 쏟아졌다.

“니놈만은 무신 일이 있어도 살아야 혀. 니놈은 우리 家門의 三代獨子인게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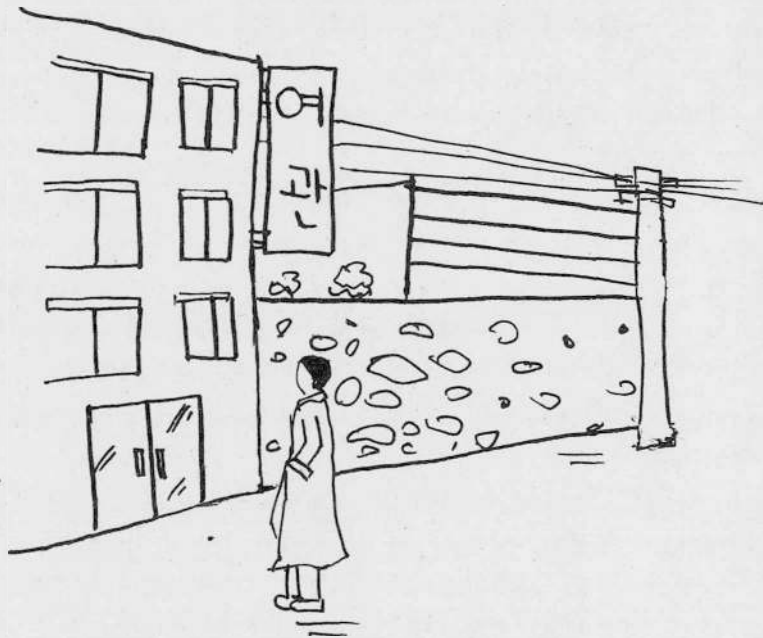
오늘도 굵혀 얼룩진 내 양심에 울타리를 치고
마음속 깊은 破片을 뽑으며
어디인가에 버려져있을 반쪽의 고무신을 향한 熱情으로
잃어버린 聽覺을 붙잡고 별도 없는 밤을 할아버지를 찾는다.

또 다른 슬픈 遺産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剝製되어 숨쉬는 까막 고무신을
꼬옥 껴안고 쉬임없는 물빛 꿈을 그린다.

소 설

夏 村 日 記

조 미 경



하촌일기

「순임아, 순임아」

돼지 멧따는 소리로 나를 부르는 건 우리 엄마였다. 나는 못들은 척 고개를 박은 채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내 뒤에서 말뚝을 박고 있던 용식이 고개를 빼고 나를 톡 쳤다.

「야, 니네 옥쟁이 엄마가 부르잖어. 빨리 가봐. 또 저번처럼 우리까지 벼락맞게 하지 말고」

그제야 나도 얼굴을 쓱 들고 보니 엄마는 벌써 가까이 와 있었다.

「야 이년아 그렇게 놀기만 좋아하다간 평생 쪽박차기 딱 맞다고 얼마나 귀청이 뚫어지게 애길들어야 하겠니 영?」

엄마는 씩씩거리며 그 뚱뚱한 몸으로 다가왔다. 나는 짐싸게 짐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카운터에 꼭 지키고 앉아 늑어 죽을께. 그럼 됐지, 어이 씨팔.」

「아니 저년이 뭐 어찌고 어찌? 누구보고 놀리는 주둥아리냐? 아이구 너 이년 잡히기만 해봐라. 그 따위 지랄맞은 주둥이를 확 찌르고 말테니.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 그 따위냐. 학교는 그런 말 배울라고 다니냐. 다리 몽맹일 분질러 후년부터는 학교에 다시 얼씬도 못하게 할테니 두고 봐라.」

매일 이맘때마다 엄마는 운동네가 찌렁찌렁 울리게 똑같은 소리를 씨부렁거리지만 난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가 옥을 잘하는 건 다 엄마 덕분이고, 학교에 가기 싫어서 죽을 지경인 나를 매일 떠밀어 보내는 건 엄마였으니까. 학교에는 가봤자 애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장난만 치니까 교실 뒤에서 팔들고 서 있는 날이 더 많았다. 게다가 변소청소가 맨날 내 차지이기 때문에 기집애들 골려주고 씹하는 것 말고는 학교갈 맛이 도통없다. 학교같은 건 뭣하러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우리 담임도 내가 학교에 안 오면 더 좋겠다고 말할 정도다. 새침떼기 담임은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으면서 뭘 안다고 「아유 그 동네 애들은 못써요. 맨날 보고 배우는게 그렇고 그런걸요 뭐」 그 따위로 아무나 붙잡고 말한다. 그렇고 그런게 뭔데?

내 자랑같지만 난 이제 겨우 국민학교 3학년이라도 굉장히 조숙하기 때문에

우리 또래 “얼아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내 또래 기집애들이 없기 때문에 난 어려서부터 사내애들하고만 놀았다. 학교에 가도 여자애들과는 안 논다. 기집애들은 간살맛아 밥맛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사내애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냉큼 여관집으로 들어와버리니까 엄마는 더 쫓아오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다.

세상에서 제일 심심한 건 겨울에 여관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도 손님이 없을진 뻔하다. 그런데도 엄마는 재미있게 노는 나를 괜히 불러 가게를 지키라고 매일 성화다. 내가 조금만 더 놀다가 간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까 구슬치기에서 많이 잃은 걸 도로 찾아와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낸다.

「아유-신경질 나」

여관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속이 좀 시원해졌다. 그래도 심심하다.

해가 끝까닥 저버렸다. 우리 동네는 산동네라서 밤이 빨리 온다. 애들은 벌써 다 저녁먹으러 집에 갔을 거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요샌 저녁먹고는 밖에 안나온다. 나도 그렇지만 딱지치기나 여우놀이보다 텔레비전 보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에서는 별별 게 다 나온다. 우리 언니보다 예쁜 여자도 수두룩하다. 나도 이 다음에 탈렌트가 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세대나 있다. 그렇지만 전부 흑백이고 칼라는 한 대도 없다. 또 그건 전부 손님방에 있기 때문에 손님이 없는 겨울에는 실컷보지만 여름에는 잘 못본다. 그치만 여름에는 텔레비전 말고도 좋은 일이 많다. 우리 동네에는 집이 전부 합해 열여덟이 있는데 전부 장사하는 집이다. 산채정식, 산채비빔밥이라고 써붙인 음식점, 여관, 기념품 가게, 잡화점, 술집-맨 가게다. 우리 동네는 관광촌이기 때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손님이 오기는 하지만 제곡에 오는 사람은 여름에 제일 많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름을 제일 좋아한다. 나도 그때는 손님들 심부름 해주고 팁을 받기 때문에 부자다. 그런데 지금은 따분한 겨울이다. 우리 마을은 죽은 사람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텔레비도 시작하려면 멀었다. 나는 되게 심심하다. 그래서 오빠가 읽던 “선

하촌일기

데이 서울”을 또 읽기 시작했다. 벌써 몇달이나 지난 책이기 때문에 난 열 번도 넘겨 살살이 읽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학교책 빼고는 이 책 밖에 없어서 또 읽는다. 내가 책을 한참 읽고 있는데 문을 삐걱하고 여는 소리가 났다. 키가 크고 살갗이 거무튀튀한 남자가 쑥 들어왔다.

「애, 방있니?」

「네 방은 있는데요. 한 사람 뿐이에요?」

나는 그 손님을 찬찬히 뜯어봤다. 왜냐하면 이런 겨울에 혼자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 사람을 받았다가는 초상치기 싶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난 그 아저씨가 죽을 사람인가 아닌가 한참 살펴봤는데 나를 계속 쳐다봐서 기분이 잡치기는 했지만 죽을 사람에서 빼주기로 했다.

「어른은 안계시냐?」

「우리 엄만 지금 밤해요.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요 잘거면 숙박부쓰고 돈 내세요」

「얼마지?」

「여름엔 부르는 게 값이지만 요샌 싸게 해드려요. 팔천원만 내세요.」

손님은 선선히 돈을 냈다. 난 깍자고 하면 천원쯤 빼주려고 했는데 혹시 그사람이 가짜 주소를 쓸까봐 소눈처럼 크게 뜨고 숙박부 쓰는 걸 봤다. 옷은 좀 깔렁하게 입었지만 자세히 보니 생긴 건 참 잘 생겼다. 주소는 인천 어디였다.

「방은 따뜻하니?」

「그럼요」

난 거짓말을 했다. 우리 여인숙은 이 동네에서 제일 더럽고 방도 춥다고 소문난 집이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아저씨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손님을 미리 불을 때놓은 1호 실로 데리고 갔다.

「이 방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면 돼요. 저녁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동넨 식당 많은데.」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돌아서 나오려는데 아저씨가 다시 불렀다.

「왜요? 뭐 시킬 거 있으세요? 세수는 이 옆 목욕탕에서 하세요.」

「아니, 저 이 동네에 혹시 김순영이라고 살고 있니? 이 동네라고 해서 오긴했는데 다들 비슷비슷해서.」

「김순영이요? 우리 언니데요. 난 순임이구요. 아저씨가 우리 언닐 어떻게 알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 언닐 찾는 게 이상했다. 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시집을 가 지금은 대전에 산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언니다. 언니는 젊을 때 엄마모습을 빼다 박았다고 하는데 엄마보단 훨씬 예쁘다. 설날같은 때 올 때는 맛있는 거나 내 옷을 사온다. 나를 참 예뻐한다. 그리고 갈 때는 나랑 떨어지기 싫다고 어른이 짙짙 운다. 그러면 나도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한다. 우리 언닐 마음이 참 착하다. 그래서 난 엄마보다 언니를 더 좋아한다.

「응. 난 네 언니 친구다. 언니, 여기에 안 사니?」

「피, 남자가 여자친구래. 무슨 친구가 그래요? 올 언닐 옛날에 시집가서 대전에 사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때 엄마가 쪽문을 열고 안채에서 나왔다.

「아이구 손님이 오셨구나. 넌 가서 밥먹어.」

그리고나서 손님을 본 엄마는 로봇트같이 뻗뻗이 서버렸다. 이마에선 땀이 빠적빠적 흘렀다. 올 엄만 하도 똥똥해서 원래 땀을 많이 흘리지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땀을 주책맞게 많이도 흘린다. 아마 이 아저씨 빛쟁이일거다.

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다. 그때도 엄마가 돈을 떼먹고 도망쳤던 건데 빛쟁이가 찾아온 걸 보고 꼭 이런 얼굴이었다.

「자, 자네가 웬일인가.」

엄마는 간신히 말을 했다. 빛쟁이 아저씨는 화가 나는지 아무 말도 안하고 엄마를 노려보기만 했다.

「들어가세. 순임이 넌 어서 가서 밥먹고.」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아주 슬펐다.

「그리고 이 근처엔 얼씬도 말아. 안 그랬다가는 다리 몽땅이가 분질러질테니.」

하촌일기

엄만 목소리에도 힘이 쪽 빠져있었다. 저번처럼 머리끄덩이를 휘둘리고 두들겨 맞는 걸 안보여주고 싶어서 그럴거다.

안방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난 걱정이 되서 좋아하는 계란찜도 잘 먹히지 않았다. 이런 때 오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빠는 씬을 잘한다. 주먹이 이 근처에서 제일 세다는 말도 했다. 울 오빠는 원래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댔다.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두 가수가 될 거라고 했다. 요새 노래도 잘하고, 옛날노래나 미국노래도 잘한다. 그런데도 아직 가수는 아니다. 가수된다고 오빠는 엄마돈도 많이 훔쳐갔다. 몇달씩 소식이 없다가 돈 떨어지면 집에 온다. 오빠때문에 엄마는 괜히 나만 더 들들볶는다.

철새같은 놈의 새끼. 널 모레가 서른인데도 철이 안 나니 아이구 깨진 쪽 박같은 이 신세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제삿상받긴 글렀네. 순임이 네년 덕보기도 썩이 노랗다. 네년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콧 죽어버리겠구만 가로듯게 웬 새끼복은 터졌누.

맨날 똑같은 타령만 한다. 오빠는 어디 있을까. 돈이 없으면 돌아올거다. 늦어도 울 여름에는, 지금은 오빠가 없다. 어떻게 하나.

난 밥하고 반찬을 대충 입에 넣고 살짝 바깥채로 나갔다. 살금살금 방문 앞에 기어가 귀를 댔다. 내 생각대로 엄마는 평평 울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글세 이제와서 이러면 어찌겠다는 건가. 누가 고맙달 줄 아는가. 그냥 가게.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 만들지 말고 그냥 돌아가 주게.」

엄마는 막 빌고 있었다. 내가 뭘 사달라기만 하면 돈도 없는데 철딱서니없는 소리한다고 맨날 돈타령만 하는 울 엄마한테 빗갚을 돈이 어디 있담. 명칭이 아저씨 돈은 다 받았다. 행.

「순영일 너무 원망은 말게. 버티는 걸 내가 떼밀어 보냈네. 자네하고 동갑이니 올해 나이가 벌써 스물 여덟 아년가. 설마 아직까지 혼자 살거라고 기대는 안 했을 걸세.」

「그래도 후시나 했습니다. 달포 전에 한동네 살던 먼식이를 만나 순영이한테 동생이 있다는 얘기며 여기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도 풍문으로만 들

어 순영이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더군요.]

빛쟁이가 아닌가?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 엄마는 울긴 해도 돈 땀에는 아닌 것 같고 아저씨도 빛받으러 온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큰일날 소릴세. 잘사는 아이 공연히 휘젓지 말게. 벌써 거기서 애가 둘이네.」

웁아, 언니 얘기다. 참, 언니 친구라고 했다. 내가 빛쟁이에 대한 공포에서 좀 토졌더니 금새 뭐가 뭔지 알 것 같았다. 그건 뻔하다. 난 테레비랑 책에서 맨날 그런 거 알아맞추는데 도사니까. 아마 아저씨랑 언니는 애인 사이였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나보다. 화가 난 아저씨는 멀리 떠나 돈도 벌고 성공을 해서 다시 언니를 찾아온 게 틀림없다. 그런데 언니 그 새를 못참고 시집을 가 형부랑 행복하게 산다. 불쌍한 아저씨.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하니까 엄마가 답답한지 한숨을 쉬더니 또 뭐라고 한다.

「자네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 보게. 대갈뼈기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그런 불장난을 저질러 놓고도 할 말이나 있다. 내뺄 때는 언제고. 십년이나 그걸 건사하느라고 내 오장육부 썩어 문드러진 거는 다 말 못하네. 손가락질과 입방아는 좀 받았는 줄 아는가. 이렇게 아는 사람 만날까 전전공공하며 숨어사는 것도 ……」

엄마의 코푸는 소리가 들렸다.

「면목없습니다. 그뻔 없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너무 어렸고요.」

「너무 늦었었네. 또 그년이 버렸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아, 그럼 아저씨가 화가 나서 동네에 불을 지르고 내뺐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감옥에 있느라고 언니를 못찾아 온거야. 틀림없어. 그러니까 웃도 그렇게 후지게 입었지.

난 좀 더 잘들으려고 귀를 바짝 붙였다. 에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재채기가 났다. 겨울 내내 설매타느라 감기가 떠날 날이 없더니 결국 된통 당하게 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덜 노는건데. 난 깜짝 놀라 숨을 딱 멈췄는데. 벌써 엄마가 문짝이 부서지게 문을 열어 제쳐버렸다.

「이 거지 발사개같은 년. 야 이 ××할년아. 여긴 뭐한다고 기어 나와?」

하촌일기

밥 처먹었으면 설것이나 할 것이지 죽일년 같으니라구.]

엄마는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막 흔들어댔다. 머리맡이 연탄불 없어 놓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눈물이 쭉 빠졌다.

「그만 하십시오. 절 봐서라도 그만 하십시오.」

아저씨가 엄마를 말렸다. 나는 더 말려달라는 표시로 소리를 뻑뻑 지르며 울었다. 엄마는 내 머리채를 놓고 이번에는 마루바닥을 치면서 막 울었다. 나도 더 크게 따라 울었다.

「순임인 그만 울고 들어가서 자라. 착하지? 엄만 괜찮아.」

아저씨가 계속 나를 달랬지만 난 엄마 눈치를 보며 언제까지 울어야 하는지를 살피었다.

「그래. 어서 들어가서 자. 내 곧 갈테니.」

엄마가 눈물을 훔치고 코가 멍멍한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난 그만 울었다. 안채로 건너 와서도 괜히 얻어맞고 텔레비도 못보고 한 게 억울하고 속이 상해 훌쩍거렸다. 많이 울어도 엄마는 오지 않고 나만 그냥 울다가 잤다. 나는 한 번 잠이 들면 자다가 오줌을 싸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 들지 않았다. 난 꿈도 꾸지 않는데 -가끔 쫓기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은 꾸다. 엄마는 내 키가 크느라고 그런다고 했다.-오늘은 꿈도 꿔다. 누군가가 쫓아왔다. 난 다람쥐처럼 쪼르르 바위 틈으로 뛰어 도망쳤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뒤를 돌아봤다. 그 아저씨다. 아니다. 점점 빨이 달리고 불꽃같은 혀를 가진 도깨비로 변하는 아저씨다. 몸을 뒤척였다.

누군가 가늘게 울고 있었다. 눈을 가늘게 떴다. 몇시나 됐나. 아직도 방에는 불이 환희 켜져 있었다. 엄마는 안 자고 있었다. 웃목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다.

「미친놈의 새끼. 일편단심이라구. 헛소리, 참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엄마는 한숨을 토해내고 계속 잘 들리지 않는 입속말을 웅얼거렸다. 오줌이 마려웠지만 난 깰 척 하지 않았다.

변소엘 갔다. 벽에는 여자의 발가벗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사내애들이 변소창으로 고개를 디밀었다.

난 깜짝 놀라서 옷을 내리다가 눈을 떴다. 정신이 번쩍 났다. 꿈에 오줌을 누면 아침엔 키스고 소금얼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불은 꺼지고 깜깜했지만 엄마 입에서는 들적지근한 소주냄새가 났다. 가늘게 숨을 몰아쉬는 엄마는 지금 꿈을 꾸나보다 입이 반쯤 열려있다. 어둠 속을 기어 겨우 요강을 찾았다. 사타구니에 닿은 사기요강이 얼음칼같이 시려웁다.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렸다. 오줌을 다 누고 꿈속에서 나를 쫓아오던 아저씨가 정말 도깨비로 변했는가 보려고 몰래 방에서 나왔다. 조금 많이 무서웠다.

1호실 앞에 가서 장지문을 살며시 열었더니 아저씨는 소주병이랑 함께 뒹굴며 자고 있었다. 노란 장판 위에는 담배꽂초가 막 널려 있고 방 가득히 어지럼증이 날만큼 노란빛이 차있었다. 체한 것처럼 가슴끝이 울렁거렸다. 아저씨 이불을 덮어줘도 모르고 잤다. 아저씨랑 우리 형부를 비교해 봤다. 우리 형부도 참 좋다. 저번에 올 때는 연필깎기도 사다 줬다. 예쁜 그림이 그려진 자동차계였는데 전기만 넣으면 웅하고 연필을 척척 깎는다. 한번 집어넣으면 새연필이 반이나 달아나기 때문에 지금은 안쓰고 그냥 책상에 얹어뒀지만, 형부랑 언니는 장사를 하는데 요샌 바빠서 본지도 오래됐다.

불을 끄고 방으로 나왔다. 산이 밤새도록 썩썩 울어대고 창문도 따라 우우하고 울었다. 온 몸에 소름이 쏘삭쏘삭 돌았다. 오늘은 전부 다 울기만하는 날이다.

엄마는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 차가운 손을 가슴에 쑥 밀어넣고 엄마 젖을 만져도 몰랐다. 난 기분이 좋아서 금방 잠이 들었다.

아침엔 늦잠을 잤다. 엄마가 깨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때 같으면 방학 내 구들장만 지고 있어서 등짝이 늘어 붙겠다며 잠도 못자게 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눈을 뜨니까 머리맡에 앉아 밥먹으라는 소리밖에 안했다.

「엄마, 그 아저씨 갔어?」

「니가 그건 알아 뭐해?」

쳇, 되게 투명스럽네. 난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다. 엄만 그래놓고 금방 아직 안갔다고 했다. 난 밥을 몇 순갈 더 떠먹고 눈치를 슬슬 살피다가 슬쩍 물었다.

「엄마, 그 아저씨 순영이 언니 옛날 애인이지? 그렇지?」

하촌일기

「빌어먹을 년. 귀방을만한 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잔말 말고 밥먹고 읍에 나 갔다 와.」

「읍에? 읍에 뭐하러?」

읍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해서 난 “내가 왜 쪼그매, 벌써 10살이라구” 하고 대들진 않았다.

「아저씨가 니가 하도 예뻐서 읍에 가 맛있는 거랑 옷이랑 사주고 싶단다.」

「헤 -」

난 기분이 좋아 속이 미식거렸다. 읍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날보고 예쁘다고 그런 건 엄마밖에 없었는데. 난 아버지를 닮아서 살갓도 까무잡잡하고 눈도 옆으로 치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봐도 별로 예쁜 것 같지는 않다. 난 아버지 본 적은 없지만 제사 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똑같이 생겨먹었다. 엄마도 술을 마시거나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끌어안고 “어이구 예쁜 내새끼” 하며 커다란 손으로 내 궁둥이를 퍽퍽 두들긴다.

아저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언니 옛날 애인이 여러명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말은 엄마한테 안했다.

나는 읍에 오는 게 정말 좋다. 공책사러 오거나 심부름으로 읍에 오면 난 하루 종일 쪼다니다가 집에 간다. 읍에는 큰시장이랑 슈퍼마켓이랑 이발소, 차부 별별 게 다 있다. 읍에서 제일 높은 건 목욕탕 굴뚝인데 하늘보다 조금 밖에 안났다.

아저센 날 양품점에 데려가 빨간 치마랑 웨타를 사줬다. 난 기집애들 입는 치마는 싫었지만 양품점에서 산 옷은 처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 다음에는 문간에 빨간 리본이 너풀거리는 중국집으로 데리고 갔다.

「뭐 먹을래?」

「난 이런데 침와서 몰라요. 여기 짜장면 파는 데죠?」

「그래 저게 다 음식이름이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봐.」

「나 짜장면 먹을래. 꼭 한 번 먹어봤음 했는데.」

아저씨는 웃으면서 짜장면 2인분하고 만두를 달라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 같니?」

「불-, 아니, 회사다니요?」

「그래. 지금은 인천에 있는 회사에 다니지만 그 전에는 쪽 사우디에 있었어.」

「사우디? 그게 어딘데?」

「먼데지. 비행기타고 한참 가면 모래만 있고 일년 내내 여름인 더운 나라가 사우디야. 석유가 많이 나서 부자가 된 나란테 거기 가서 일해 주고 돈을 벌었거든」

「아- 거기 석유나는데, 나도 알아요. 거기 땅이 시커멓죠?」

「그렇진 않지만 무척 더운 곳이지.」

「우리도 거기 가서 살면 일년 내내 여름이라서 계속 손님이 많을 건데. 그죠?」

「하지만 거긴 모래밖에 없고 산이랑 계곡같은 게 없는데?」

난 실망했지만 용기를 내서 또 물어봤다.

「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요? 아저씨 우리 언니 옛날애인이죠?」

아저씨 눈이 고양이 눈처럼 동그래졌다. 읊에 씨커스단이 들어왔을 때 입에서 불을 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놀란 내 얼굴이 그랬을 거다. 아저씨는 내가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

「헤- 난 말안해도 다 알아요.」

그때 짜장면이 나왔다. 난 신나게 먹기 시작했다.

「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전에 용식이가요. 걀 우리 옆집에 사는 애새끼예요-지네 형이 짜장면을 사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막 빼졌거든요. 나도 이제 막 빼길거예요.」

「그럼 많이 먹어라. 만두도 먹고. 순임인 엄마가 좋니?」

「아-뇨. 맨날 때리고 욕만 하는 걸요.」

「언넌 자주 오니?」

「전에는 자주 왔는데 요새 조카들 땀에 못온대요. 우리 조카들 되게 예뻐요. 개들은 언니를 닮았어요. 나보고 이모래요. 근데도 엄만 맨날 나보고 어리대요. 설날에 올거예요.」

「설? 설은 벌써 지났잖니?」

하촌일기

「그건 양력설이잖아요. 그건 가짜설이구요. 진짜 우리 설은 음력이란 말이 예요.」

「언니 오면 내 얘기 할거니?」

「하면 안 되요?」

「안하는 게 좋겠지.」

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눈치 하나는 멀쩡했으니까.

「안할게요. 형부한테도 암말 안할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서 나는 젓가락을 아쉽게 내려 놓았다.

「아저씨 올 오빠도 알아요?」

「응. 한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오빠 요새 어디 있니?」

「몰라요. 오빠도 여름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 집 앞에 바가 있는데요, 아저씨도 봤죠? 지금은 안하지만 여름엔 사람이 많이 와서 춤춰요. 오빠 거기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번 돈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살다 와요. 여름엔 오빠가 노래부르는 바아 담장 옆에 서서 오빠 노렐 듣고 따라 부르는 게 내 취미예요. 날 어린애라고 안넣어 주거든요. 난 디스코도 출출 하는데.」

「내가 보기도 넌 아직 어려. 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뭘, 그런데 순임인 아버지 생각 안나니?」

「아버지요? 올 아버지 얘긴 아무도 안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사진만 봤는데 난 아버지질 닮았대요.」

올 봄의 일이었다. 엄마는 창호엄마랑 대판 싸웠다. 내가 창호랑 싸우다가 울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가 밀리니깐 씩씩거리며 욕을 했다.

「니네 엄만 ××다. 넌 아버지도 없지. 니네 아버지 옛날 옛적에 죽었으니까 넌 좃어 온 기집애 아니냐 따라지 자식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란 말야 이 여자깡패야.」

창호는 짐싸게 내뺄면서 혀를 내뺄었다. 나는 왕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렇게 무서운 엄마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다. 하얗고 커

다란 얼굴이 점점 시뻘개지더니 땀구멍마다에서 피가 배어나올 것처럼 핏줄이 튀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창호네 집에 가서 껍 소리를 질렀다.

「이 놈의 새끼 어디있니. 나와라. 이마가죽을 벗겨버릴테니까.」

창호엄마가 나왔다.

「왜 그래? 내 새끼가 없는 말 한거 없는데 애들 싸움에 처신없이 달려 온 걸 보니 뒤가 구리긴 구린가 보지. 원 남의 아들 얼굴에 손톱자국을 저렇게 내놓고 뭘 잘했다고.」

창호엄마도 벌써 다 알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싸울 태세였다.

「뭐가 어째? 오냐 그래. 에미란 년이 집에서 그 따위로 입방아를 찧으니 애새끼가 그 모양이지. 이년아 내가 너한테 밥을 달래, 국을 달래? 내가 니 서방이라도 빼돌렸니? 아니면 국으로 있을거지. 남이 뉘 씨를 받든 무슨 참견이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싸움을 잘했다. 전국싸움대회라도 있으면 챔피언은 틀림없이 우리 동네에서 나올거다. 창호엄마랑 엄마도 싸움을 잘했다.

엄마랑 창호엄마는 땅바닥에 뒹굴며 싸우느라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칼이 한 움큼씩 빠졌었다. 사람들이 뜯어말려 간신히 싸움은 끝났지만 아직도 엄마랑 창호엄마는 으르렁거린다. 창호랑 난 벌써 화해하고 노는데. 그 담부터 난 절대로 아버지애긴 하지 않는다. 웬지 그래야 될 것 같았다. 아저씨한테도 그 말은 하기 싫었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

「나 집에 갈래.」

돈을 내고 우린 밖으로 나왔다. 아저씨하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극장 앞에까지 왔다. 읍에 올해 극장이 생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영화관은 곧 텔레비전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 말고 애들은 거기가 어떤덴지 아무 것도 모른다. 우린 거기 들어갔다. 거기선 중국 칼싸움 영화를 하고 있었다. 중국말로 썰라 썰라하기 때문에 싸움하는 것도 보고 옆에 글도 읽고 하러니까 너무 헛갈려서 싸움하는 것만 봤다. 난 중국영화는 처음 본다. 텔레비에서는 맨날 뽀뽀하는 미국영화만 해준다. 미국영화보다 중국영화가 훨씬 재미있는 것 같다. 태권도로 주인공이 원수를 다 죽이고 복수한다.

「재미있니?」

하춘일기

아저씨가 소근소근 물었지만 난 쳐다도 안보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사람들이 테레비보다 10배나 커보인다. 어떤 때는 얼굴 하나가 우리 방바닥만 하다.

근데 슬금슬금 졸립다. 배가 부르데다 따뜻한데로 들어오니까 그렇다.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감기기만 했다. 그래서 딱 1분만 자기로 했다. 아니다. 혹시 주인공이 그새 죽을지 몰라서 눈만 감고 듣다가 떠야겠다고 결심했다.

난 금새 눈을 탁 떴는데 벌써 터미널 앞이었다. 아저씨 낯 업고 느릿느릿 걸고 있었다. 아저씨 등도 엄마처럼 따뜻했다.

터미널에서 버스들이 부릉거렸다. 다 먼데로 가는 차들이다.

「아저씨, 나도 크면 저 버스타고 서울 갈거예요. 그래서 돈많이 벌어 엄마 갖다 줄 거예요. 아저씨도 저 버스타고 갈거죠?」

「순임이 쟤구나.」

그러고는 그만이다. 아저씨 입에 풀이 묻었는지 말을 더럽게 조금씩만 한다. 동네 근처까지 오니 해가 지느라고 온 동네가 불그죽죽 했다.

「순임이 먼저 집에 들어갈래? 아저씨 좀 걸다가 갈게.」

동네 앞에서 아저씨가 그랬지만 난 대답 대신에 아저씨 손을 더 꼭 쥐었다. 우린 개울을 따라 쭉 걸어 올라갔다. 개울물은 꿈꿈 얼어붙어 있었다. 애들은 하루종일 썰매를 탔을 거다. 돌틈에 빨간 비니루봉지가 끼어 있었다. 놀러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다. 겨울에도 여름은 계속 남아있다.

난 손이랑 발이 시러웠지만 쭉 참았다. 아저씨가 킬킬클킬 울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순임아, 넌 아저씨가 좋니?」

난 조금 쑥스러워 아무말도 안했다. 속으로는 네했지만.

「너, 나따라 가지 않을래? 날 따라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엄마보다 훨씬 예뻐해줄텐데.」

「싫어요.」

내가 툭 쏘았더니 아저씨는 왜 싫냐고 물었다.

「넌 엄마를 안좋아하잖아.」

「그래도 싫어요. 울 엄마 종단 말예요. 아간 괜히 그래 본거란 말예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심심하면 날 붙잡고 서울

에 안따라가겠냐고 꼬신다. 내가 흑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좋다고 킁킁대놓고 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체만체였다. 췌, 이몸이 어디 한 두번 속아봤나. 그래도 착한 아저씨한테 약간 미안해서 난 다른 말을 물어봤다.

「아저씨 우리 언니 사랑하죠?」

「사랑이 뭘지 내가 알아?」

눈을 똑바로 뜨고 킁킁 웃는데 날 순 어린애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

「그럼요. 남자랑 여자랑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뭐. 근데 올 언니 벌써 시집갔는데 어떡해요? 몰라서 온거죠?」

「글쎸다. 그래서 온 게 아냐. 시집간 줄 모르기도 했지만.」

「그럼?」

「넌 아직 말해도 몰라. 남자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넌 빨리 어른이 되서 뭐든지 하고 싶겠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책임질 수 없는 일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지. 내가 온 건 의무반, 사랑반이다. 아저씨나 니언니는 다 크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을 다 잘안다고 생각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야. 나쁜 일은 그 후에 아무리 좋은 일만 있어도 덮여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구나. 오래오래 가슴을 짓누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야 돼.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온거야.」

아저씨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꿈알거리고 있다. 난 정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다. 아는 게 많은 아저씨거나 말을 무척 잘 꾸며대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난 좋다.

저녁 때 우린 다같이 밥을 먹었다. 설날은 아직 멀었는데 반찬이 굉장히 많았다. 김, 계란, 더덕무침, 조기찌게, 부침, 전부 맛있는 거 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바보같이 엄마랑 아저씨는 밥을 몇순갈만 먹었다. 난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저녁을 다먹고 엄마가 술을 사오랬다. 4홉짜리 소주병을 들고 강총 강총 뛰어오는데 함박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캄캄한 밤에 눈이 오는 걸 쳐다보면 하늘이 전부 나한테 무너져내리는 것 같아 무섭다. 막 뛰어서 집에 왔는데 아저씨가 착하다며 오천원짜리 두 장을 주었다. 난 숨이 멎을 만큼 놀라서 엄마를 봤다. 아저씨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하촌일기

내 심부름값은 깍해야 50 원이나 백원인데. 사우디에서 더위를 먹은 게 분명하다. 엄마가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아저씨가 고집을 부려서 엄마가 졌다. 난 이제부터 5,000 원 짜리만 보면 이 아저씨를 생각해줘야 겠다고 맘먹었다.

아저씨랑 엄마는 늦게까지 술을 마실 것 같아서 난 엄마 무릎을 베고 잤다. 「자네도 좋은 사람 만나 장가들어. 과걸랑 싹 잊고. 이것 걱정은 아예 말게. 자네도 흑달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잠속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

이른 새벽부터 눈이 떠졌다. 새옷입고 빨리 애들한테 자랑이 하고 싶어서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찍 깬 거다. 난 분명히 바깥채에서 잤는데 안방에 누워 있었다.

아직도 밝은 껌껌한테 전기불만 환히 켜져 있고 엄마는 어디갔는지 없었다. 조그맣게 엄마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다. 난 냉큼 새옷을 꺼내입고 바깥채로 갔다.

1호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고개를 빠금히 들이밀고 보니 엄마가 청승스럽게 앉아서 담배를 뽀뽀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는?」

「씩을 년. 너도 그 놈이 좋긴 좋구나, 그 놈만 찾으니. 새벽같이 갔다. 너보기 싫다고 떠났어.」

키다란 주먹으로 한대 쿡 얻어맞은 것 같았다. 실없이 눈물이 났다. 여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온 밤 내내 내린 눈이 높이 쌓여있었다.

정말 좋은 아저씨였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가버렸을까. 이제 다시는 못볼텐데.

「에이씨. 아저씨 나쁘다아-」

세상을 다 덮어버린 새하얀 눈 위로 아저씨의 발자국만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이 꺾꺾 찍혀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발자국은 서울보다 인천보다 매일 여름인 사우디란 곳보다 더 먼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오래오래 그 발자국을 보고 있었다.

편집후기

- 대방동은 참 좋은 동네다
멀리 63빌딩도 보이고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 유람선도 탈 수 있다.
지난시절 Site의 산신령과 장기 몇판을 두
며 보내다
갑자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난,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어색한 신입사원처
럼
열심히 이리뛰고 저리뛰고 바둥거렸다
살아볼려고.
이제 뜬구름같은 결실이 나오게 된다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태산이다
잘난놈, 못난놈 뒤섞여 사는 세상에 잘난척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처음으로 느껴본
시간들이었다.
학교때 농담삼아 중얼거리던 말이 생각난다
“이판, 사판 공사판이다”
하지만 나로선 최선을 다한 싸움이였다.
강 성 구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토록 열심히 준비했던
제3회 공군진중미술전이 백상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쳤다.
바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작품을 보내준
모든 출품자에게 감사할 드린다
애착을 갖고 했던 일들을 끝맺으면서
느끼는 허탈감은 나에게만 있는것은
아닐게다

아무튼 대망의 '88년은 가고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한다.
그리고 또다시 열심히 순간순간을 살아가리
라
이름을 남기고 죽기위해서

美 愛

원 고 모 집

금속성의 폭음속에 촌각을 다루는 영공초
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속
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자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원고매수 : 30매 내외 (200자 원고지)

☆ 제 출 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
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
은 연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영 언

1988년 제 3 호 (통권 제207호)

1988년 12월 20일 인 쇄

1988년 12월 24일 발 행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이 발걸음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차림새와 걸음걸이가 다르듯이
저마다 가진 꿈과 목표도 서로 다르지만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의 100만 장애인,
그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체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이웃입니다.



요격관제 중인 관제사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높은 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을 감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군은
태평양 상공에서
연해주 상공까지
우리의 눈아래
두고 있습니다.